

# 空軍

1982  
AIR FORCE



우리의 生存權 確保에 있어서 最大의 敵은 戰爭, 바로 그것입니다.

戰爭을 막는 唯一한 길은 戰爭을 일으키려는 敵보다도 훨씬 強한 힘을 우리 스스로가 保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強한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를 武力으로 屈伏시키려는 側도 그 企圖를 拋棄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의 備蓄은 戰爭을 막는 길임과 同時に 祖國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는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의 힘에서 要諦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軍事力입니다.

그리고 越等한 空軍力을 主軸으로 初戰에 勝敗를 판가름하는 速戰速決의 現代戰에 있어서 空軍力이 軍事力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豈로 莫重한 것입니다.

따라서 空軍力은 오늘날에 있어 軍事力의 寵兒이며, 世界 모든 國家들이 最新 航空機의 開發에 많은 財源과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 全斗煥 大統領 말씀 중에서 -

## 敵보다 強한 힘 保有만이 戰爭막아



지난 4월 7일 空軍士官學校 제10기 卒業 및 任官식이 全斗煥 大統領을 비롯한 三府 廳長官, 外交通商, 國防保衛官, 空軍司令, 3軍참모총장, 韓-美안보사령관 등 많은 내외 귀빈과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隆昌宮 演藝장에서 성대히 行했다.

全斗煥 大統領은 演說를 통해 「우리의 生存權 捍衛에 있어서 최대의 脅은 北軍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北軍을 殲滅 爲는 유일한 길은 北軍을 일선에서 쫓아내 힘보다 강한 힘의 힘 을 우리 스스로가 保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空軍 第180号 —

**卷頭言**

.....政訓監 姜容求 (2)

**健全社会와 市民精神** .....趙福新 (7)

特輯 / 民族雄飛의 意志

統一祖国에의 念願 .....文道彬 (15)

同伴者時代의 韓·美關係 .....俞光震 (21)

輸出 250억달러에의 意志 .....宋起東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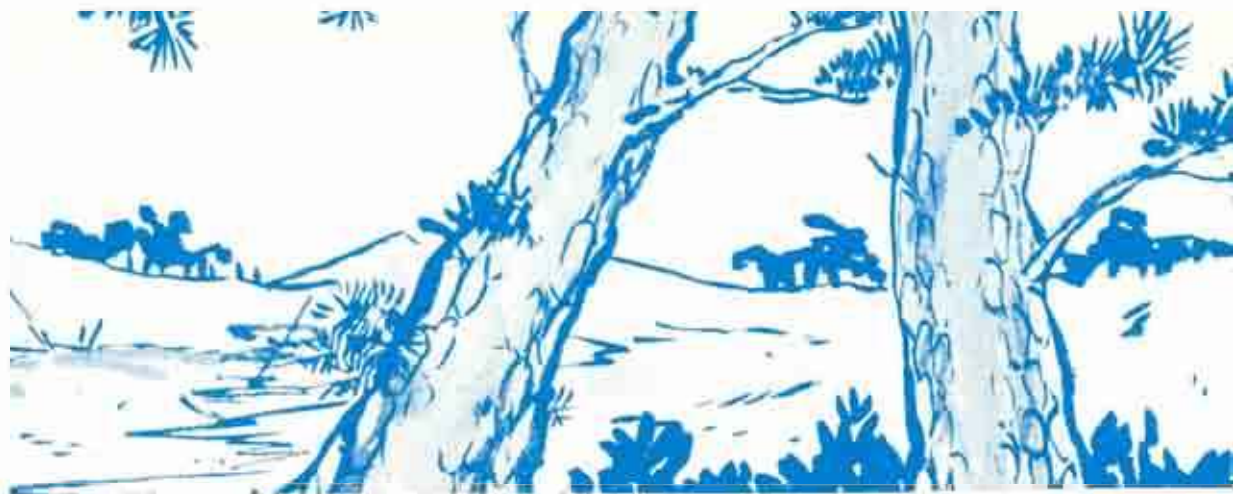
空軍營外將兵家計의 長期生活設計 小考 .....李元植 (45)

레닌主義 批判 .....徐弘教 (57)

80年代의 文化的 次元의 韓·美關係 .....編輯室 (68)

論文 **韓國의 安保環境** .....徐鎮泰 (33)





日帝下 獨立運動精神과 그 敎訓 ..... 編輯室 (120)

航空 · 軍事 · 科學

- 미그-21機 試乘記 ..... 李建淳 (74)  
 最新 防空미사일 開發 및 增加추세 ..... 崔良洙 (83)  
 蘇聯의 위성정찰活動과 그 추세 ..... 尹炯基 (93)  
 TU-계열의 航空機 ..... 尹龍鉉 (101)

優秀戰鬪操縱士의 條件 ..... 朴范鎭 (111)

教養	個人과 國家社會 ..... 編輯室 (126)
講座	韓國人의 自覺 ..... 編輯室 (127)

建康醫學 알콜의 作用과 술주정 ..... 編輯室 (128)

漫 畫 보라매 日記 ..... 鄭雲燮 (56)

短篇 諜 者 ..... 柳周鉉 (130)



第 16 代 參謀總長 金 相 台 大將 就任



參謀總長 이·취임식이 지난 6月 5日 尹誠敏 國防부장관을 비롯한 국회 국방분과위원장, 합참의장, 한·미 연합사령관, 육·해군 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과 역대 참모총장 그리고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尹誠敏 國防부장관으로부터 空軍座標 받고 있는 金相台 參謀總長







## 강릉지구 戰跡碑 제막



6. 25 당시 우리 空軍의 단독 勇功적戰  
을 記念하고, 祖國의 平復을 祈禱하다 敬慕  
히 追慕한 젊은 보라매 勇士들의 遺容을 攄  
하기 위한 강릉지구 戰跡碑가 경포대 海

濱 嶺口에 세워졌다. 이 戰跡碑에는 「이  
이름다운 산수와 거대한 그윽한 峯기, 오늘  
도 발간 머물러를 휘날리며 壯勇을 누릴 때  
조국의 平和는 길이 曠속되리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4> 16

○ 2013년 1월 21일, 2013년 1월 21일, 2013년 1월 21일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특별행사로 진행된 2013년 1월 21일, 2013년 1월 21일, 2013년 1월 21일



○ 2013년 1월 21일, 2013년 1월 21일, 2013년 1월 21일



韓·美修交 100週年 記念 친선 体育대회 개최 (제 2583 부대 5、30)





# 空軍

제 180 호

— 1982년 제 2 호 —

參謀總長 統率方針

制空統一 이 룩 하 자

人 和 團 結  
人 機 鍊 磨  
見 敵 必 勝

空 軍 本 部

# 國家發展과 意識改革

政訓監 大領 姜 容 求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동물과 달리 良心을 바탕으로 道德과 秩序를 遵守하는 社會的 精神生活을 영위하는데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 많은 民族들이 興亡盛衰를 거듭해 왔지만 健全한 精神과 秩序있는 生活을 지닌 民族은 發展해 왔고, 그렇지 못한 民族은 地球上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위대한 민족정신은 위대한 歷史를 創造했으며, 타락한 民族意識은 참담한 歷史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다.

現代 世界史를 통해서 볼 때도 英國 사람들의 紳士道는 大英帝國의 위대한 歷史를 이룩하는데 바탕이 되었고, 獨逸사람들의 勤勉, 誠實性은 갯더미 위에서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200년의 짧은 歷史를 가진 美國은 淸敎道와 開拓精神으로 오늘날 自由世界를 이끌어 가는 偉大한 國家를 이룩했던 것이며, 日本이나 싱가포르도 國民 個個人의 正直, 誠實은 물론 社會의 法과 秩序를 確立하였기에 西歐에 못지 않은 先進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반면 한때 世界를 지배하여 영원한 번영을 누릴 것으로 알았던 로마帝國의 滅亡原因은 軍事力과 經濟力이 미약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市民의 意識이 不健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월남의 共產化 과정이나, 이란의 內的 混亂은 국민의 精神的 타락이나 社會秩序의 混亂이 國家의 運命을 左右할 수 있다는 생생한 敎訓을 주고 있다. 우리 民族이 여러 나라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오면서도 유구한 5千年의 歷史와 찬란한 文化遺産을 이어받고 있는 것은 예절바르고 신의를 지키며 正義를 지닌 民族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西歐思潮와 돈이면 다라는 배금物質萬能

의 의식으로 인해서 價値觀이 混亂되었다. 즉 「정직한 사람은 바보」라든가 「법대로 살면 손해다」, 「빚이 있어야 出世한다」는 등 우리 社會의 政治, 經濟, 社會 모든 면에서 否定的 思考方式이 팽배하여 요령있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正直하고 誠實한 사람보다 인정받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되어 가고 있다.

權力濫用, 權謀術數, 極限對立의 政治風土, 腐敗와 無事安逸의 行政風土, 責任과 倫理意識을 망각한채 利益追求에만 급급한 經濟風土, 분수를 모르는 無秩序와 公衆道德이 결여된 不信風潮가 있는 한 國家發展은 요원하며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국민적 和合은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의 목표인 正義롭고 골고루 잘살 수 있는 福祉 國家를 建設하여 偉大한 祖國을 後孫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속에 싹터 가는 이 잘못된 갖가지 의식을 하루속히 고쳐야 하겠기에 意識改革運動으로 正直, 秩序, 創造, 責任, 本分, 分數, 主人意識, 國民和合, 家庭教育 등 9個의 實踐要綱을 마련하고 모든 公職者와 社會指導層이 솔선해서 이 運動을 垂範할 것을 強調하며 民族과 國家의 運命을 건 이 運動의 成功的 推進을 위한 決意의 蠟燭이 지금 全國 방방곡곡에서 타오르고 있다.

먼저 「웃물」부터 닦아져야 하겠다는 결연한 실권의지에 따라 복되고 성숙된 새 時代를 여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사실은 운동으로까지 번지지 안 했어야 옳을 당연한 德目이 곧 9大實踐要綱! 지나간 세월이 이 덕목을 잃어 갔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다. 그런 뜻에서 의식개혁운동은 곧 「도의 르네상스」! 우리의 精神的 失地 回復을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일찌기 우리 軍人은 祖國의 運命과 더불어 살고 죽어왔기에 살을 에이는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고쳐야 할 의식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굳은 信念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이 大改革에 참여하고 되찾은 이 德目を 永遠히 그리고 確固하게 우리 生活 속에 定着化, 生理化시켜야 하겠다.





# 就 任 辭

參謀總長 金 相 台  
空軍大將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국방위원장님, 합참의장님, 한·미연합사령관님, 각군 총장님, 역대 참모총장님, 내외 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명예 의하여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별하신 지도와 충고로 이끌어주신 것은 물론,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상사 여러분과 선배, 동료, 귀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내일의 어려운 여건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제5 공화국의 굳건한 기틀을 다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공군의 지휘권을 맡게 되어 그 사명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영명하신 대통령각하의 민족발전을 위한 평화적 통일의지와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받들어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완수에 진력할 것을 굳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오늘의 우리 공군을 훌륭하게 성장 발전시켜 온 선배님들의 업적에 감사드리며, 신념을 갖고 책임을 완수하는 강하고 멋진 공군, 싸워 이겨 조국에 헌신하는 훌륭한 우리의 공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선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명을 바칠 각오를 다짐드리며 배전의 지도편달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공군 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과 젊음을 바친 33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나시는 이 회근장군님은 역전의 용장으로서, 그리고 공군의 산 증인으로서 공군사에 기리 빛나는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재임기간 중에는 전력증강과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통한 완벽한 영공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공기 국내 생산에 박차를 가해 선진 공군으로서의 긍지

---

와 면모를 새롭게 하였으며 미공군 A-10 항공기의 국내 전개, 공중전투 훈련장을 신설, 조종사의 전투기량 향상과 실질적인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이 회근장군님의 그간의 노고와 공적에 대해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현금의 국제정세는 경제적 불황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자국 실리추구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치열한 열전이 계속되고 있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분쟁, 이란과 이라크 간의 중동분쟁, 중남미의 좌경화 책동에 의한 계속적인 혼란, 그리고 아프칸 및 폴란드 사태 등은 우리에게 호국을 위한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이념대결이 실리추구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여 도전과 응전의 양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편승한 소련의 집요한 세계 적화전략은 자립과 자주적 자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약소국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좌경화시키고 있는 한편, 서방진영들도 각자 자국의 실리추구를 우선하여 상호 대립과 분열 및 분쟁상태까지를 초래하고 있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전쟁의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휴전 후 지금까지 끈질지게 무력침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괴는 이러한 국제적 여건에 편승하여 기습남침의 좋은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희생적 호국정신으로 전투 상비태세를 완비하여 북괴의 침략도발을 일격에 분쇄할 수 있는 전투기량과 정신력을 발휘하고 압도적 공중우세를 유지하여 제공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강력한 인화단결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자고로 물질력은 목제의 칼집이며, 정신력은 번쩍이는 칼날이라 했습니다. 이는 곧 전쟁의 승패가 장병의 정신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애국충정의 희생정신과 백전백승의 기백으로 다져진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고, 지휘관을 핵심으로 철통같이 단결할 때 우리의 임무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화단결"은 곧 승전의 지름길인 동시에 전력극대화의 요체가 되는 것이므로

---

---

지휘관의 희생적 노력과 휘하 장병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북피 우위의 정신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현대전의 성격은 고도정밀한 과학무기가 총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운영하는 각급 요원의 정예화와 질적으로 우세한 장비의 운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적으로 우세한 북피공군을 질적 우세로 압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은 무기체계의 발전을 이룩해야 하겠으며, 이를 운용하는 각급 요원들을 정예화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은 물론, 전문적인 지휘관리를 통하여 능률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병 각자는 온갖 어려움을 창의와 인내로 극복하고 부단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맡은 바 직분에 정통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북피 공군의 기량을 압도할 수 있는 “인기연마”(人機練磨)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북피는 숫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배경으로 속전 속결의 기습공격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적을 소수 정예로서 완전 섬멸하기 위해서는 견적 필승의 정신과 실전과 같은 피땀 어린 맹훈련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실전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전투기량 향상과 새로운 전술 전기를 개발하여 속달시킴으로써 대적우위의 자신감과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추는 것이 “제공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우리의 당면과제와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장병 여러분들에 앞장서서 우리 공군을 세계 최강의 공군, 싸워 이겨 조국에 헌신하는 훌륭한 그리고 멋진 공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장병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군의 육성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육군, 해군 전우들의 계속적인 협조, 그리고 미 공군의 우의 넘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떠나시는 이 최근장군님의 앞날에 항상 신의 가호가 같이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취임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2. 6. 5.



# 健全社會와 市民精神

趙 福 新

戰友新聞 · 論說委員

法과 秩序를 지켜야 하겠다는 勇氣있는 自覺과 自主性이야말로 國民自律化 時代의 成敗를 좌우할 중대한 意識의 要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民主市民의 責任과 義務

우리는 유구한 民族史에 세롭고 찬란한 歷史의 章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우리는 역사란 스스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각 時代를 사는 인간들의 意志와 努力의 결과로 창조된다는 자명한 眞實을 믿는다. 그러기에 지난날의 운명론적이고 受動的인 姿勢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偉大한 民族史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姿勢를 主體的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가다듬고 運命이란 虛像에 맞서 도전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절감하는 것이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社會淨化運動은 健全社會를 이땅에 定着시키기 위한 일대 국민운동으로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課題를 슬기롭게 克服하고 새 歷史創造에 매진하려는 民族의 召命意識에서 연유한 것이다.

健全社會를 이땅에 定着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國民 각자의 투철한 市民精神이 강조되고 있는 時點에서, 政府가 새해들어 취한 획기적인 조치, 즉 광복 이후 36년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어온 夜間通行금지를 지난 1월 6일 자정을 기해 接敵地域과 海岸線 등 일부 취약 지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한 措置와 中·高生의 校服과 두발형태의 自律化 조치는 우리로 하여금 市民精神의 生活化가 더욱 시급함을 절감케 하고 있다.

正初부터 단행된 政府의 이러한 劃期的인 措置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마야흐로 國民自律化시대로 접어드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자율화시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민 각자가 責任과 義務를 성실히 수행하여 民主市民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번 措置는 80年代의 절대과제의 하나인 국민생활의 向上과 自律意識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변천의 요청에 힘입은바 큰 것으로 결코 낭비나 사치, 無節制와 脫線조장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次元의 大前提가 따르기 때문이다.

國民自律化 시대로의 進入과 함께 우리는 자율화에 따른 責任과 義務의 중요성을 再認識, 통감하면서 健全사회를 육성, 發展시키는데 혼신의 努力을 아끼지 않겠다는 저마다의 다짐을 마음 속 깊이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健全社會의 核은 市民精神

健全사회를 육성,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요청되는 필수불가결의 要素는 뉘니뉘니 해도 市民精神의 高揚이다.

市民정신은 他律적이 아닌 自律的 理性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민 각자의 責任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選擇하고 實踐하는 행동의 즐거움 뒤에는 그 결과를 責任져야 하는 고독한 아픔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선택으로부터 責任에까지 이르는 人間行爲의 과정이야말로 自律的 理性의 支配下에 놓인다.

바로 이같은 자율적 이성의 소유가 인간을 기계나 또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區別시켜주는 우리 人間만의 特長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에서 자유로운 市民정신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앞에는 국내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中東이나 폴란드事態는 一觸即發의 戰爭危機로 치닫고 있으며, 國內로 눈길을 돌려보아도 經濟難局 등 우리의 生存을 위해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슬하계 가르 놓여 있다.

上記와 같은 激動期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市民정신을 바탕으로 한

公共生活의 生活倫理(社會的인 倫理와 國家的인 倫理)이다.

公共生活의 生活倫理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究極的으로는 個人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自覺(自律的 理性)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어야 한다.

民主主義社會란 其實 個人的 自由가 가능한 한 향유되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公共生活의 生活倫理 다시 말하면 高度의 市民정신에 의해서 유지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市民정신은 「나」만의 安逸과 自由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일과 자유」, 다시 말하면 公共의 利益과 秩序를 먼저 생각하는 人生觀과 生活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자유롭게 또는 잘 살면 된다는 生活觀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마땅히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이다.

國民自律化 시대 속의 健全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각자가 위에서 지적한 바의 生活姿勢 즉 「사회全體의 公益과 秩序」를 優先하는 생활자세를 堅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健全社會란 과연 어떤 사회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健全사회란 간단히 말해서 秩序가 生命인 秩序사회, 倫理가 통하는 道義사회, 遵法정신이 核을 이루는 준법사회, 청결하고 정렴한 국민기상이 주축이 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따라서 健全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자신의 物質的 利益이나 지위 상승만을 노리는 일이 없는 사회이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자기 良心에 따라 자기의 職分을 성

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회이다.

뿐만 아니라 健全사회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構成員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意識이 강하다.

이같은 意識으로 인하여 社會構成員간에는 동지애가 싹터 강한 연대의식을 堅持할 뿐만 아니라 社會生活를 통한 參與意識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이상과 같은 健全사회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社會구성원들이 무엇보다도 公共의 利益과 秩序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公共의 이익과 秩序」를 個人의 이익과 욕구에 앞세우는 정신을 島山 安昌浩 先生은 일찍이 「大公主義」라고 부르면서 公共精神을 고취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公共정신이란 다름 아닌 市民정신이다.

島山은 또한 「獨立이란 내가 나 자신의 힘을 믿고 나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노예란 남의 힘을 믿고 남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民族의 他律 아닌 自律에 의한 自由人格의 具現을 力說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같은 정신은 오늘에 있어서도 敎訓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自律에 의한 自由人格의 具現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市民정신의 發揚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市民이란 「公民」의 同義語이고, 公民이란 國家의 公적인 意思形成에 參與하는 權利와 義務를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다.

곧 公共의 일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 公民이고, 市民인 것이다.

그리고 보면 市民정신이란 바로 참여의 정신이기도 하며 公共의 일에 더불어 責任을 나누는 責任意識이기도 하다.

公共의 일에 적극 參與함과 아울러 이에 대해 責任을 나누는 能動的 市民정신은 자기 개인만의 秩序에의 순응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참다운 의미의 市民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참다운 의미의 市民정신이란 社會를 구성하는 成員들이 反秩序의 행위에 대해 용기있게 發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反社會의 행위에 대해 告發정신을 왕성하게 발휘할 수 있을 때 發揚되는 것이다.

## 精神的 近代化와 市民精神

市民정신은 비단 國民自律化 시대 속의 健全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근대화를 위해서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福祉·正義社會의 具現을 指向하고 있는 새 時代에 부응하기 위해서 온갖 그릇된 물질만능의 가치관에서 脫離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근대화를 이룩하고 나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보다 큰 大我를 향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民主 市民정신의 涵養은 필수불가결한 要素로 등장하고 있다.

어떠한 共同體의 사회이건 그 共同體가 존속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 市民이 올바른 市民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는 참다운 民主社會를 實現하기 위한 前提條件인 것이다.

市民들이 올바른 市民정신의 함양없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 그 社會의 安定과 秩序는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健全한 社會風土도

조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以上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는 市民정신으로는 여러 가지 規範이 있다.

모든 法規를 준수하고, 自由와 權利를 主張하기에 앞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회적 責任과 義務를 스스로 다하는 정신, 個人의 利益보다 사회와 국가 全體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公益정신을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의 일에 最善을 다하는 勤勉정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양보할 줄 알고 겸손하는 謙讓의 美德,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生活態度, 公衆도덕 등이 있다.

이러한 民主市民 정신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명량하고 밝은 正義社會가 具現될 것이며, 국가는 더욱 發展되어 민주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다.

다음은 上記에서 소개한 民主市民으로서의 諸規範中 특히 요구되는 秩序준수에 대하여 증점적으로 言及하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社會의 秩序를 위해 法이라는 外在律이 필요하고 도덕의 질서를 위하여 良心이라는 內在律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外在律과 內在律, 法과 도덕에 의해서 人間社會는 維持되고 歷史는 발전한다.

그러므로 國民自律化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法과 秩序를 지키려는 意識과 意志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나 스스로 法과 秩序를 지켜야 하겠다는 勇氣있는 自覺과 自主성이 어떤 意味에서는 國民自律化時代의 成敗를 좌우할 중대한 意識의 要諦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文明社會의 生命줄과 같은 秩序의식과 준법의식, 새로운 時代에 조화할 수 있는 倫理의 극대화가 제빛을 보일 때 진정한 意味

의 健全社會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健全社會가 이땅에 定着化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秩序지키기가 우리들에 의해 生活化되어야 한다.

全斗煥大統領이 지난 1월 22일 國會에서의 國政演說을 통해 국민 속에 內在되어있는 無秩序心理, 腐敗心理, 인플레이心理 등 3大心理의 추방운동을 천명한 것은 秩序確立과 秩序지키기의 生活化로 健全社會를 이땅에 定着시키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意志에서 비롯된 것이다.

無秩序心理가 존재하는 한 民主市民으로서의 基本資質 여하는 고사하고 이 사회를 일정한 規則에 의해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것이다.

이 3대 부정적 心理의 추방, 그 중에서도 특히 無秩序心理의 추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나라를 先進에 보다 근접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秩序는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秩序는 모든 存在의 基本法則이자 創造의 바탕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미세한 原子의 운동에서부터 우주의 生成消滅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현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秩序가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人間社會에 있어서도 이러한 根本的인 原則을 바탕으로 하여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東西古今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진 사회는 사회적인 諸要素間的의 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사회이며, 이처럼 조화되고 안정된 사회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지 自然은 있는 그대로의 秩序에 따라 움직이는데 비해 人間社會의 질서는 合意에 의해 創造된 질서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人間社會의 질서는 자연적 질서의 論理에



바탕을 둔 創造的 秩序라야 하는 것이다.

創造的 질서란 구성원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질서를 뜻한다.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自然法則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낸 질서가 바로 창조적 질서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사회의 질서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각 個人이 인간사회의 秩序를 만든다는 말은 개개인이 다 제멋대로 어떤 規則이나 행동 방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즉 人間社會의 秩序는 어디까지나 여러 사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약속되어진 合意된 규칙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간에 맺어져 있는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려는 個人의 努力과 행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사회질서의 유지는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 秩序 지키기의 生活化로 건전사회 이룩

上記에서 지적한 創造的 秩序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參與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秩序概念 즉 位置秩序와 役割秩序, 關係秩序에 임각한 우리의 행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 가. 位置秩序

위치질서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自然의 질서라는 것은 自然을 형성하는 개개의 構成要素들이 狀況의 여건과 결부되어 정연한 위치에 존재함으로써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질서는 붕괴된다.

그러므로 事物도 자연질서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物的 秩序가 成立되며 사람도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社會秩序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位置秩序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가.

첫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적합한 地位에 적합한 사람을 요구한다. 人間은 어떤 集團에든지 소속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存在가 됨을 자각한다. 즉 集團에 소속되는 개개인에게는 그 집단 속에서 各自의 相對的인 地位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既存의 지위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대개 그 地位에 合當한 사람이 그 地位에 있어야하기를 바라는 바 이것이 곧 사회적 期待이다.

적합한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집단과 사회가 最大의 효율을 增進시킬 수 있는 能力優先의 公正한 人選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要求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도덕적 良心에 立脚한 自己 省察과 人事行政에 있어서의 位置秩序를 흐트리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회는 法, 道德, 規範 등의 사회적 통제 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行爲領域을 규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공간을 享有한 자유를 가지지만 법, 도덕, 규범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制限은 個個人의 生活을 침해하는 제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位置秩序를 확립함으로써 개개인의 生活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하나의 方便인 것이다.

적합한 場所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우선 法이 許容하지 않는 장소에 침입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不法集會나 入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혹은 횡단보도의 불법통과라든가 통행금지가 發効된 때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 등은 位置秩序를 阻害하는 대표적인 例에 속한다.

세째,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정도에 合當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정도에 合當한 행위란 주로 경제적인 位置概念으로 分數에 맞는 행위를 말한다.

個個人에게 경제행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共存共生하는 공동체인만큼 나 혼자만의 支出이 아닌 남을 의식하고 있는 支出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분수를 지키는 風土가 조성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도에 合當한 행위란 個別的인 合當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調和된 合當의 정도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나. 役割秩序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형 무형의 地位를 갖게 된다. 그리고 주어지거나 威就된 지위에는 언제나 사회적 期待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社會的 期待는 주로 사회의 規範에 의해서 정해진다.

政治家는 정치가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고 軍人은 軍人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고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하여야 할 일이 있으며 부모는 부모로서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서는 사회적으로 期待되

는 役割이 있는 것이다.

즉 役割秩序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상태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各自의 役割에 충실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상충되는 役割의 期待를 조절하기 위해 對話를 통하여 合意에 이르거나 서로가 상대방의 立場을 이해하려는 努力을 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여야 할 것을 하는 정신으로서의 役割秩序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役割을 責任지고 실천해 나가는 정신과 상통하므로 곧 責任倫理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정신으로서 이는 또한 전통적인 선비정신과 같은 것이다.

자신의 役割에 대한 자부심과 責任感이 없을 때 즉 役割질서가 붕괴될 때 사회에는 여러 가지 不條理와 무질서가 야기되는 것이다.

사회부조리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남용하는 경우와 役割을 경시하는 경우 그리고 役割을 포기하는 등 세 가지가 있다.

첫째, 役割의 濫用이란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職權을 남용하는 不當行爲를 말한다.

法官이 利權에 개입하여 不當판결을 한다거나 고급 공직자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裁量權을 남용하는 경우, 稅務公務員의 非理, 기업주가 부당하게 고용자를 해고하는 경우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둘째, 役割의 경시란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責任과 의무를 제대로 完遂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땅히 納稅의무가 있는데도 탈세를 한다거나 병역을 기피한다든가 企業倫理를 저버리고 불량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

나 자식으로서의 責任을 다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세계, 役割의 포기란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함으로써 社會 全體 秩序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犯罪를 목격하고도 이를 申告·告發하지 않는 경우나 不道德한 행위를 보고도 무관심하게 傍觀하는 경우 등은 市民 스스로가 주변의 秩序破壞行爲를 묵인함으로써 어느 면에서는 질서파괴를 조장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곧 役割에 대한 責任과 努力을 다함으로써 役割 秩序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관계와 개인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다. 關係秩序

人間은 누구나 고립하여 살 수는 없다. 그래서 人間을 사회학적 존재라고 말하며 실제로 모든 人間은 사회의 상호 작용적인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바야흐로 관계의 그물이며, 관계의 짜임이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은 自己 本位의 관계를 설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반 관계에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나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관계, 즉 合理的이고 效果的이며 원만한 관계의 유지가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가 곧 관계질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合理的인 관계의 形成은 協同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단결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계질서란 바로 協同倫理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서로 뺏어지는 관계가 잡다운 것이 되지 못할 때 사회적 秩序는 붕괴되고야 만다는 점이다.

바로 관계질서의 악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타협될 수 없는 갈등이 커지면 사회는 不安과 격동의 와중으로 빠져들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질서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여 지금까지 自己 本位로 습성화된 행동양식을 버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意識함으로써 市民정신에 입각한 協同정신이 이 사회에 충만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 結 語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正初에 단행된 정부의 劃期的인 措置, 즉 야간 통행금지의 해제조치와 중·고교생의 교복과 머리형의 自律化조치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국민자율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국민자율화 시대 속의 健全사회를 이땅에 定着化시키기 위해서는 高度의 市民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국민들의 높은 秩序의식 및 준법정신과 함께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겠다는 責任의식의 確立이 필요하다.

최근 北傀의 도발양상은 날로 격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統一革命黨 이름의 대남선전방송과 불온비라 살포, 무장간첩 남파, 휴전선에서의 총격사

전 및 대규모 군사훈련 등 일련의 도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북괴의 대남 적화야욕과 함께 폴란드사태로 인한 美·蘇대립 등 대외정세의 심각성은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치안질서의 확립과 對共警戒態勢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通禁을 解除한 조치 등은 하나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같은 정부의 결단에 호응하는 길은 모든 국민의 사려깊은 행동과 自覺인 것이다.

정부의 自律化조치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보意識이 만에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일부에서라도 물지각한 사회혼란 조성행위가 일어난다면 정부의 自律化조치의 참뜻이 그르쳐지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앞에는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대회를 치르어야 할 숭한 과제가 가로 놓여 있다.

上記 두 대회를 그 어느 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1등국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이 그 무엇보다도 先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法規준수와 질서지키기의 生活化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法規준수와 질서지키기의 生活化는 국민 自律化시대 속의 健全사회를 이땅에 定着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要素인 동시에 1등국민으로 가는 要諦임을 우리는 항상 銘心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文化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

### <話 材 의 源 泉>

#### ◎ 정수동의 해학(諧謔)

이조 시대의 해학가 정 수동이 어려서 글방에 다닐 때, 하루는 졸고 있다가 훈장한테 매를 맞았다. 그러던 어느날 훈장이 조는 길 목격한 수동이 「선생님은 왜 졸아요?」「나는 조는 게 아니게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단다. 그래서 내 혼자만이 살짝 빠져 나가 공차님한테 물어보러 가는 것이다. 아마 너희들 눈에는 조는 것처럼 보이겠지」라고 했겠다.

며칠 후, 수동이 또 졸고 있자 「넌 또 조는구나?」「선생님 조는 것이 아니야요. 저도 공차님한테 다녀온 거예요.」훈장은 내심 감쩍하다는 듯 「그래 공차님은 만나 보았느냐?」「네——」「무슨 말을 물어 보았느냐?」「선생님이 전에 오셨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한번도 오신 적이 없다고 해요——」



우리의 統一方案은 民主的 절차와 平和的 方法에 의해 民族·民主·自由·福祉의 이상을 추구하는 民族史的 正統性에 입각한 것이다.

分斷祖國의 평화적 통일은 6천만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특히 「민족·민주·자유·복지」를 理想으로 하는 統一祖國의 완성은 제5共和國이 지향해 나아가고 있는 최대의 국가목표이다.

이 점에서 全斗煥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國政연설을 통해 제시한 「統一憲法」 제정을 골자로 하는 「民族和合 民主統一방안」은 우리 겨레의 통일염원을 그대로 대변함과 아울러 새 공화국의 통일의지를 거듭 극명하게 천명한 획기적인 對北政策구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에서 제시하려던 통일방안을 이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실천의지를 북측에 정확히 이해시켰으므로써 「1·12 제의」 및 「6·5제의」에 대한 北韓의 否定的 태도를 바로 잡아 「南北韓 최고책임자 회담을 기필코 실현시키려는데 참뜻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北韓측의 모든 제의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담한 包容性과 自信感을 보여준 이 제의는 이미 國力과 體制面에서 명백히 드러난 對北優位의 입장에서 앞으로 平和統一정책을 우리의 主導下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렬한 목적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全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武力·暴力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赤化통일이 아닌 民主통일, 특정계층을 위한 통일이 아닌 민족 전체를 위한 통일의 方法論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民族自決의 원칙에 의거, 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暫定協定の 체결에 의해 민족적 和合을 먼저 이룩하고 그 바탕 위에서 「통

## 統一祖國에의 念願

全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의와 우리의 다짐



文 道 彬

서울신문·論說委員

일헌법」을 제정하여 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할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은 또 南北 쌍방의 입장 중 상호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北韓측의 주장도 허심탄회하게 협의,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기만적이고 惡意的인 對南선전을 효율적으로 봉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民意를 대표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자는 우리측 제의는 소위 「대민족회의」 「통일촉진대회」 등 北韓측의 불순한 목적이 깔린 非常局주도 대화제의를 적극적으로 收斂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誠意만 있다면 對話機構설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터놓고 있다.

이로써 北韓측이 그동안 역선전해 온바 「분열주의」 「2개의 韓國」 등 우리측에 대한 모략과 비난을 결정적으로 그 발판을 잃게 된 셈이다. 왜냐하면 그 虛構의인 소위 「高麗聯邦案」을 비롯해 그들이 내걸어온 「前提條件」 등 어떠한 문제도 一方的으로 상대측에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흥금을 터놓고 협의하여 「통일헌법」 초안과정에서 取捨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全대통령의 이번 제의를 계기로 南北韓 통일방안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간추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民主的 절차와 平和의 방법에 의해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하나의 완성된 統一民族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民族史的 正統性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반해 北韓측의 「聯邦案」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를 빙자하여 駐韓美軍철수 및 韓國의 反共정책 철폐 등 「전제조건」을 우리측에 강요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反共체제를 「聯共」체제로 변질시키고 궁극적으로 共產黨주도하의 赤化 통일을 완성한다는 속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韓 어느 쪽이 진정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自明하다 하겠다. 그리고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번 全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北韓에 대해 제시했던 여러 방안을 集大成한 것으로 긴장완화→신뢰회복→통일달성이라는 일관된 통일정책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점이다.

즉 「통일헌법」 제정의 與件조성을 위한 「南北韓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는 종래의 「평화통일 外交政策선언」(73년 6월 23일), 「상호 不可侵協定 제의」(74년 1월 18일),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74년 8월 15일)의 對北관계 부분을 그 7개항 속에 총망라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일관성있게 접대성하고 있다.

이렇듯 全대통령이 이번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南北분단 이후 서로 제시해 온 여러 방안 중 가장 획기적이며 항구적인 평화통일 실현방안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 擴散돼가는 국제적 支持反應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全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 對北제의는 민족의 통일에 평화적으로 이르는 현실적인 길을 체계적이며, 포괄적으로 밝힌 방안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평화

통일제의 里程碑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6천만 우리 겨레의 절대적인 환영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폭넓은 共鳴과 支持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총대통령의 이번 제의에 대해 지지반응을 보여온 나라들은 한결같이 이 방안이야말로 韓半島의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韓國政府의 意志를 담고 있으며, 과거의 어떤 제의보다도 가장 포괄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제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民主統一방안에 대한 이같은 국제적 支持基盤의 확산은 우리 정부의 통일 외교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非同盟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 주고 있다.

지난 2월 16일 현재로 在外公館이 外務部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우리의 「통일헌법」 제의에 환영 지지 등의 반응을 보인 나라는 모두 92개국에 이르며 시간이 갈수록 지지반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중 44개국이 南北韓과 同時修交의 관계를 맺고 있는 非同盟국가들이며, 심지어 대다수 共產圈 국가들마저 中立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번 제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이 얼마나 튼튼히 다져져가고 있는가를 한 마디로 웅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동안 주요 友邦국가들이 밝힌 공식반응을 보면 美國은 『본격적이고 새로운 제안으로서 매우 건설적이다. 전폭적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다』고 했고, 日本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순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英國은 『韓國문제 해결을 위한 상상력과 결단력이 있는 접근책으로서 광범한 지지를 받을 만하다』고 밝혔고, 獨逸은 『신축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세계여론에 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세계여론에서 결정적으로 守勢에 몰릴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非同盟국가들이 지지환영 또는 긍정적 반응을 보내온 내용은 그들의 외교정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의 몇 가지를 든다면 『대단히 논리적인 평화통일 접근방법이다』 『南北韓 어느 쪽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韓國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대통령의 支持親書까지 보내왔고, 중립국의 어떤 나라는 南北對話의 再開를 위해 대화의 場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협조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또 南北韓 동시 수교국인 어떤 나라는 北韓의 주요인사가 자기 나라를 방문할 경우 韓國과의 대화를 하도록 적극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北歐의 한 중립국은 韓國의 제안이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전제하면서 對外정책상 中立을 견지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직접적인 지지의사를 천명하지 못하니 양해해 달라는 뜻을 외교채널을 통해 전해오기도 했다.

각국 정부의 공식반응들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저명한 여러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임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지의 『선진적이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적이다.』 「워싱턴포스트」지의 『가장 획기적이고 상세한 제의』, 「요미우리」지의 『北韓을 어떻게 해서라도 對話에 응하게 하려는 것』 등 美·日언론의 논평과 「스위스」 「라스베이거스」지의 『매우 상세하고 완벽한 것』, 「콜롬비아」 「라 레푸블리카」지의 『金日成이 응답

하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것」, 「인도네시아」 「베리타 부야나」지의 『北韓이 거부할 경우 통일외사가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등등 세계 각국 언론의 광범위한 성원이 그 보기들이다.

쑤대통령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지지여론은 이렇듯 우리의 우방국가들만이 아니라 비동맹 및 제3세계 국가에도 이제 遼遼의 불길처럼 세차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北傀의 拒否자세와 그 속셈

국제적 지지여론의 추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金日成집단은 쑤대통령의 획기적인 「통일헌법」 제정 제의에 대해 또 다시 거부자세를 보이고 나섰다.

그들은 4일간의 침묵을 깨고 지난 1월 26일 對南통일전선조직인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金一의 이름으로 된 「담화」를 통해 쑤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어떤 긍정적 의의도 부여할 수 없는 방안』 『현실을 의면한 圖式』 운운하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겨레의 염원과 국제여론을 거둬 의면하는 태도로 나온 것이다.

더구나 이 담화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韓國측이 先行조건으로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反共정책을 포기하고 國家保安法 등과 反共단체를 철폐해야 하며, 政治犯을 모두 석방하고 韓國정부가 이에 대해 謝罪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주장까지 내세웠다.

그들은 소위 「고려연방제」의 선행조건으로도 南韓의 「容共」정권수립, 共產黨의 合法化, 駐韓美軍의 철수 등을 줄곧 주장해 왔었다. 그와 똑같은 조건을 다시금 내세워 우리 측의 평

화통일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韓國정부의 진복과 韓國의 無力化에 의한 赤化통일 달성이라는 그들 對南기본전략에 하등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케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지난해 상당기간 침묵을 지켰던 「1·12제의」 및 「6·5제의」 배와는 달리 쑤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내놓은지 4일 만에 공식적 반응을 보였고, 특히 「고려연방안」 이외의 통일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듯 시사하는 유연성을 보인 점이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이같이 마치 伸縮性이라도 있는 듯 분장한 것은 쑤대통령이 이번 방안에서 北韓측의 모든 제의도 논의할 수 있다는 대담한 包容性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고려연방안」만을 계속 고집하거나 실천 가능한 우리 측 제의를 묵살할 경우 국제적으로 孤立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국제여론의 신랄한 批判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柔軟性이 있는 듯한 자세를 異例의으로 보인 것 또한 그들의 赤化통일 야욕을 은폐하려는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임은 말할 것도 없다. 韓國측이 소위 「전제조건」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또 새 형상안이라도 되는 양 反韓人輩 일색의 한국측 참가대표를 일방적으로 指名한 가운데 이른바 「南北政治人연합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 그 端的인 증거인 것이다.

요컨대 그들이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부자세로 나온 것은 이번 우리의 平和提議를 둘러싸고 그들 나름의 苦悶이 심각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첫째로 그들은 우리의 對話제개 제의를 받아들여 南北韓간의 緊張이 완화된다면 韓半



島의 부단한 긴장조성과 소위 「南朝鮮혁명」에 의한 赤化통일목표의 추구 등 강경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돼온 金日成—金正日의 世襲獨裁체제의 기반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둘째로는 南北韓사회가 서로 開放되고 다방면에 걸친 交流가 이루어질 경우 西歐사회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의 현실처럼 自由化의 물결이 들이닥쳐 철지한 閉鎖 속에서만 지탱이 가능했던 그들 사회에도 動搖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 또한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러한 세습독재체제 및 폐쇄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적 脆弱性 때문에 그들은 우리측의 대화재개와 상호 사회개방 및 교류제외에 시종일관 거부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統一意志 관철을 다짐하자

그러나 北韓측이 현시점에서 상투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意義가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러할수록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시대적 召命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온 국민이 더욱 일치단결해서 민족통일목표를 꾸준히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이 지난 2월 1일 우리 정부가 재차 제시한 「20개 統一示範 실천사업」의 제의인 것이다. 이 제의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의한 南北韓 당국 최고 책임자 회담이 成事되기 이전에라도 또는 그와 병행하여 각 분야에서 交流와 協力을 통해 南北韓 간의 信賴를 회복하고 統一意志를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최고당국

자 회담의 실현은 물론 통일문제 해결의 참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20개 시범사업 對北제외를 기존의 南北韓 간 교류제외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南北韓사회의 완전개방과 긴장완화를 하루속히 실현해야 하겠다는 우리의 意志가 구체적으로 강도높게 담겨있는 점이다. 그것은 社會開放을 위한 8개 사업을 비롯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8개 사업,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개 사업 등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은 南北韓이 생각만 있다면 당장 實踐에 옮겨질 수 있는 문제들이며, 더우기 이 사업들은 南北韓이 즉각 실천에 옮겨 그를 바탕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통일의 大道에 착실히 다가서기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적 과제들이다.

이같은 事理에 비추어 北韓측이 현재로서는 이 시범사업 제외에 대해서도 만사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언젠가 理性을 되찾는 날엔 최소한 選別的으로라도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처럼 실득력 있고 실천용이한 시범사업마저 끝까지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好戰的인 平和拒否자세를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北韓당국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選擇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우선 示範사업 제외에 순순히 응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의 살 길을 찾느냐, 아니면 韓半島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갈망하는 거제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여망을 또 다시 외면함으로써 호전성으로 인한 국제적 指彈과 反民族性으로 인한 역

사의 심판을 자초하여 스스로 破滅을 재촉하느냐의 어느 한 길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巨視의 안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北韓이 여전히 硬直된 자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것은 현시점에서 고민을 糊塗하기 위한 단기적 반응일 뿐 앞으로 狀況變化에 따라서는 그들이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長足政策」(Big Brother Policy)에 입각한 後續노력을 인내와 성의를 다해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점차 커져가고 있는 南北韓 간 힘의 隔差와 날로 深化되어가고 있는 北韓體制 내부의 갈등, 그리고 계속 확산되어가고 있는 우리측 평화제외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과 이로 인한 北韓의 外交의 孤立추세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80年代가 다하기 전에 그들의 경직된 자세에는 반드시 어떤 變

化가 일어나고야 말 것으로 예상된다.

무릇 세계의 協商史에 나타나 있는 共產主義 政治集團들의 協商行態는 쌍방의 힘이 교착상태에 도달할 때 자신의 權力유지의 防備으로서 協商의 조건이 성숙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일치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體制 경쟁과 國力 경쟁에서 劣勢에 물려있으며 그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져가고 있는 사실을 北韓이 自認한다면 자신의 活路를 平和協商에서 찾을 수 밖에 안 도리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大勢의 필연적 귀추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루빨리 그 부질없는 對南赤化야욕을 포기하고 우리의 평화제외에 순순히 응해오도록 국민 모두의 단합된 統一意志와 그 實踐力量을 더욱 높이 誇示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 名 言 名 句 >

◎ 권력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그 권력을 맡은 자의 특별한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 12 조>

◎ 화가 나거든 10까지 세어라. 그래도 풀리지 않거든 백까지 세어라.

<제퍼슨>

韓·美修交 100年을 맞게 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도 긴밀한 同伴者 關係를 유지  
하면서 世界政策에 對應하고  
있다.

## 同伴者時代의 韓·美關係

한·미 수교 100주년을  
맞아



俞 光 震

政博·東國大法政大教授

## 1. 韓·美關係史의 再認識

『大朝鮮國과 美合衆國은 양국 국민 사이에  
영원한 親善과 友好的의 關係가 확립되기를  
흥심으로 열망하여...』로 시작된 韓·美修好條約  
을 체결한지도 벌써 100년을 맞게 되었다. 이  
로부터 韓·美關係는 公式的 關係로 定立되었  
고 또 지금까지 親善과 友好的의 유대를 계속하  
고 있다.

지금까지의 韓·美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日本, 中國과 더불어 거의 같이 開港과  
修交가 강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와  
는 달리 한 번도 敵對的 關係를 형성하여 「敵」  
개념에 의한 葛藤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동시  
에 強大國으로서의 對立과 協力을 통한 적극  
적 제휴를 맺어 온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 美國이 韓國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政策을 전개해 왔느냐에  
따라 많은 論議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면적인 역사관점에서 볼 때는 친선과 友好  
의 형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韓·美관계는 시작되었  
으나 國際關係의 변화양상에 따라 많은 段階  
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단계의 관계는 列強政治 속에서의 韓·美  
關係를 把握해야 할 것이다. 비록 韓·美修好條  
約에서는 「상호 協力を 통한 友好를 강조하였  
지만 美國은 中國과 日本의 關係 속에서 對韓  
政策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韓·  
美關係를 최초로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 湖岩  
文一平先生의 「韓·美關係 50年史」에서 잘 지  
적하고 있다. 즉 美國은 對韓政策에서 「嚴正

中立·절대不干渉主義)와 이「主義」를 파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露·日戰爭 이후 「테프트-가스타」秘密協約이 立證해 주고 있으며, 그로부터 약 40년간은 공식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韓國의 日本支配下에서는 美國이 日本과의 敵對관계로 말미암아 직접, 간접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던 것이다.

제2단계의 관계회복은 冷戰體制의 일환으로 美國이 韓國의 獨立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이다. 2次大戰의 종결과 함께 美國은 戰後處理의 하나인 韓國의 自主獨立 정부수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것은 軍事的으로 볼 때 美軍의 對韓進駐라는 특별한 意味를 갖게 된다. 과거의 역사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이때의 美國은 勝戰國으로서 한국에 「주는 立場」에 서서 對韓支援을 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韓國의 美國영향권으로의 편입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의 戰略的 地位를 놓고 日本의 방어를 위한 樂觀的 政세관단으로 이른바 「6·25戰爭」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제3단계의 관계는 韓國戰爭으로 軍事的 血盟關係로 밀착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美國은 韓國의 戰略的 主要性을 인식하게 되었고 休戰과 함께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 이에 따른 防衛義務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同條約이 被侵時 自動介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美軍을 常駐시키므로 無限支援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時期는 血盟의 無限支援의 수직적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제4단계는 60年代에 접어들어 韓·美관계의 血盟의 協力關係로의 전환이었다. 즉 50年度의 無限支援성격에서 有限支援성격으로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有限依存관계로 再定立되

어 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施惠의 입장에서 協力の 관계로 전진되었음을 의미한다. 越南派兵과 韓·美安保協議會구성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제5단계는 70年代와 더불어 「성숙한 同伴者的 關係」로 발전되어 왔다. 軍事的 측면에서는 60年代의 協力性格을 진전시키면서 外交的 측면에서는 「主權國家」로서의 위치定立을 위한 갈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메팜트潮流와 함께 韓國의 自主力量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이른바 韓·미간의 「不便한 關係」의 게운찰은 갈등이 內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理由 중의 하나가 바로 政治體制의 문제와 政策스타일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6단계에는 80年代의 정세변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同伴者時代」로 성숙되었다. 全大統領의 訪美와 함께 韓·美관계는 「不便한 關係」의 완전 해소를 가져왔고 軍事的 갈등관계도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이다. 駐韓美軍撤收의 陳結이 이를 잘 立證해 주고 있다. 이것은 또 美國의 極東政策의 일환으로서 東北亞安定과 平和의 관련임을 立證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韓·美關係 100年史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금에 와서 보다 실질적인 친선과 友好의 定着을 가져왔다. 이것은 곧 韓·美간에 있어 水平的 協力を 통한 利害一致의 關係定立을 의미한다.

## 2. 韓·美兩國의 政策的 觀點

그러면 美國이 韓國과의 協力關係를 維持·發展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 마디로 美國의 國益과 직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韓·美 양국이 다같이 東北亞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해 가면서 對共抑止力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美國은 舊韓末부터 淸國과 露西亞의 對韓進出을 抑止해 왔고 海洋勢力인 日本을 支援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지금은 「모든 惡의 根源」인 소련의 南下政策을 최대한 抑止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北韓共產集團의 南侵을 抑止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韓·美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美國은 기본적으로 北韓 共產集團의 侵略을 抑止해야 한다는 政策도 결국에 가서는 對蘇전계의 일환으로 把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美國은 韓國을 東北亞 安定과 平和의 前哨基地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美國은 소련을 전제하기 위한 戰略基地로서 韓國의 필요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韓半島의 地政學的 位置로 보아 美國은 大陸勢力의 南下를 韓國에서 沮止해야 한다는 戰略的 이익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국이 東北亞勢力均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존재가 軍事的, 政治的으로 利益이 保障되도록 함에 있다. 동시에 將次 日本과 中共과의 協力を 통하여 소련을 전제함으로써 美國의 東北亞에 대한 利益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政策的 입장에서든 한국의 존재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 최근 東北亞에 그대로 投影되고 있다. 소련의 西太平洋 진출의 걸목이 바로 大韓海峽이며, 이 대한해협을 다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政策전개는 곧 한국의 戰略的 價値가 그만큼 상승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째로 美國은 한국이 東北亞의 勢力均衡을 유지시키고 日本과 太平洋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중요한 地域으로 인식

하고 있다. 美國은 太平洋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약 한국이 共產勢力의 영향하에 들어갈 경우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日本을 직접 위협하는 要素가 되기 때문에 한국을 적극적인든 소극적인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限界가 있다. 즉 韓國은 東北亞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日本을 보호하는 防壁이 되기 때문에 美國으로서는 결코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美國의 立場에서는 日本을 軍事적으로 育成하여 太平洋을 공동으로 지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거의 美·日관계와 현재 日本의 態度 등에서 결코 「강한 日本」을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한 日本」을 원하지도 않는 立場에 있다. 이것은 곧 美·日安保條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對蘇전계를 위한 軍事協力を 현수준에서 展開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極東有事時 연구」를 통한 공동 海上作戰과 훈련, 그리고 美·日聯合軍事編制 즉 極東式 「나토型」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中共과 한국까지를 포함한 將來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駐韓美軍을 現水準에서 維持하면서 戰力強化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 駐韓美軍의 性格은 構造面에서도 ① 戰術軍인 동시에 戰略軍의 特性을 지니고 있으며, ② 部隊構造도 陸·空 및 特殊部隊까지 포함한 綜合軍隊의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③ 核武器를 포함한 강력한 武裝力을 갖춘 軍隊라는 점 등이며 機能, 任務面에서도 ① 韓半島平和維持를 위한 「유엔」平和軍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②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한 同盟軍의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③ 美國의 對亞細亞戰略을 전개하는 일부로서 또 美國의 세

계戰略의 차원에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은 北韓共產集團의 侵略抑止를 위해서도 美軍의 한국駐屯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對蘇 견제를 위한 美國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은 韓國이 美國의 國益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절대 필요한 位置를 점하고 있다. 더구나 美國은 同盟國과 긴밀한 유대를 통해 對蘇優位를 확보하겠다는 意志를 갖고 있기 때문에 新冷戰秩序의 狀況에서는 韓國과의 긴밀한 同伴者的 協力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美國은 韓國의 國軍現代化 계획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經濟的인 利益에도 많은 支援과 協力を 아끼지 않고 있다.

### 3. 同伴者的 韓·美관계의 再定立

韓·美관계의 실질적 同伴者관계가 再定立된 것은 80年代의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全大統領과 「레이건」大統領간의 진지한 頂上會談의 결과로 나타났다. 81年 2月 2日 全大統領의 美國訪問은 한 마디로 70年代의 「불편한 관계」를 깨끗이 清算하고 「상호 협력」의 새로운 親善과 友好를 형성한 同伴者時代의 개막을 굳게 다짐하는 일대 건기를 제공해 주었다.

韓·美관계를 형성하는 核心的인 軸은 누가 뭐라 해도 安保協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全大統領의 訪美成果에서도 安保面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14個項의 共同聲明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韓·美관계의 획기적인 再定立을 가져온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駐韓美軍撤收를 완전히 白紙化한 선인이다. 이는 對共抑止를 위해서는 힘의 優位를 확보해야 한다는 「레이건」大統領의 意志나 全大統領의 意志를 상징적으로 表現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持續되어 왔던 韓·美 양국간의 血盟관계를 재확인한 점에서 보다 높게 評價해야 할 것이다. 특히 駐韓美軍撤收 계획의 白紙化는 韓國의 安定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한 美國의 義務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美國의 態度는 韓國의 防衛가 세계평화에 중요한 関鍵이 됨을 나타낸 것이다.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한 公約의 履行다짐은 일차적으로 北韓共產集團으로 하여금 對南侵略企圖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리적 效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國軍現代化 계획의 강력한 支援과 駐韓美軍의 裝備補完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意志의 表現만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支援과 協力에 의해 한국의 防衛産業도 활발히 전개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年例安保協議會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不便한 관계」로 인한 韓·美간의 葛藤은 80年 安保協議會를 열지도 못하였고 韓·美정책협의회도 취소되었던 것으로 잘 立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全·레이건」頂上會談 이후 정상적인 協議會가 개최되어 安保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協議를 보아 새로운 軍事協力體制를 갖추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美國은 安保協議會에서 한국군 裝備現代化를 위해 F-16전폭기, M-55 I 탱크, 수동형 미사일,

M-88대전차포 등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 등이다.

네째는 한국의 平和統一基盤造成을 위한 일련의 노력에 대해 높은 評價를 받았다는 점이다. 美國은 全大統領의 「1·12」「6·5」제의를 적극 支持하고 또 「1·22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支持를 표명해 왔다. 더우기 美國은 對北관계에 있어 韓國을 除外한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고 또 北韓共產集團의 同盟國이 한국과 접촉하지 않는 限 美國도 北韓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을 約束하여 실질적인 同伴者의 신뢰관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다섯째는 安保의 차원 뿐만 아니라 韓國의 經濟的 役割의 重要性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共同聲明에서 韓·美經濟協議會를 개최하기로 合意함과 동시에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한국에 에너지供給을 지원하기로 한 것 등은 획기적인 成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韓·美관계는 安保의 측면에서 血盟의 協力關係를 더욱 굳혔고 平和定着을 위한 공동노력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또한 非軍事의 측면에서도 相互協力을 통한 環太平洋地帶에 있어 利害一致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실질적이고 확고한 同伴者로서의 關係를 定立하였던 것이다.

#### 4. 새 次元의 協力時代로의 發展

지금까지 韓·美關係의 再定立과정을 國際情勢變化추세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韓·美 양국은 분명히 利害關係의 측면에서 親善과友好 그리고 協力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다.

그것은 韓·美 양국이 다같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와 동시에 共產勢力의 海洋進出을 抑止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이다. 「레이건」大統領도 취임사에서 「平和를 위해 協同하며 희생할 것이나 결코 平和를 위해 屈服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힘을 保有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힘에 의한 對共抑止力を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對外政策에 입각하여 美國은 이미 極東地域에 있어서 日本 및 中共과 제휴하여 소련을 견제한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韓半島政策에 있어서도 똑같이 「美國에 대한 소련의 威脅」제거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美國은 일본으로 하여금 極東安保에 보다 많은 役割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中共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軍事協力を 위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美·日安保協議會에서의 安保協力문제 논의와 「韓半島有事時연구」의 진행과 미국의 中共 大連港기지 제공설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와 같이 韓·美關係로서 安保의 차원에서의 協力は 대소견제를 위한 美·日·韓國 그리고 將來에는 中공과 더불어 구체적인 共同協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韓國의 地位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韓·美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同伴者關係를 유지하면서 세계정책에 對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對共抑止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協力關係가 계속 지속되고 또 韓半島事態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여 韓國軍現代化계획을 적극적으로 支援해 나가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80年代의 交易은 貿易戰爭  
바로 그것이다. 官民이 一體가  
된 總力戰에의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對應戰略이 필요하다.

## 輸出 250억달러 에의 意志



宋 起 東

韓國經濟新聞·論說委員

##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여기 우리들 귀에 익은 낱말들이 있다.

「漢江의 奇蹟」, 「세계 속의 韓國」, 그리고 요즘 새롭게 듣는 「自律化時代」가 바로 그것이다.

「漢江의 奇蹟」이란 근 2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놀라운 經濟發展에 대한 세계의 讚辭인 말할 나위 없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75년 不變價로 따져 9.4%, 輸出증가율이 經常價로 37.5%, 그리고 1인당 실질국민소득 年 평균 증가율이 7.3%라는 실로 그 유편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움에서 나온 別名이다.

아시아대륙 동쪽 끝에 마치 蟲垂처럼 매달려 눈에도 잘 비치 않던 조그마한 나라가, 1세기 전만 해도 못 列強들의 발부리에 짓밟히다가 끝내는 日帝의 植民地가 되어야 했던 弱小國이 그것도 2차대전 후 가까스로 桎梏에서 풀려났으나 38선으로 두 동강 나버린 「不具」의 나라에서 이룩한 기적이기에 더욱 더 세계 각국은 놀라고 있는 것이다. 실상가상으로 6·25동란까지 겪어 황폐한 폐허 속에서 일어선 우리 民族의 끈기에 더 큰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

또 「세계 속의 韓國」이라는 말은 실상 우리들 스스로가 自負心 속에서 일컫는 말이며 아울러 이제는 국제사회의 몇몇한 일원으로서 계속 도약과 전진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의 다짐이기도 하다.

賦存資源이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세계를 상대로 한 輸出만이 살길이라는건 익히 느껴왔고 또한 실험해 왔기에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폭넓은 視野와 自覺이 갈수록 要緊해지고 있다.

그동안 간단없는 高速으로 치달던 우리 經濟도 한동안의 국내정세에 亂調 등과 油類波動을

비슷한 세계경제의 亂氣流에 휩쓸려 3년이 넘도록 不況의 늪에서 허우적대야만 했다.

집짓 기다던 「待望의 80년대」가 그만 그 첫 발부터 혼란과 무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자 아스라한 마음은 모든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다. 물론 그 바탕에는 그동안 成長일변도에 치우쳤던 누적된 副作用의 요인도 있었지만 특히 10·26이라는 뜻밖의 충격이 不安과 不況 속에 휘말리게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停滯와 危機의 늪에서 벗어나는 민족의 슬기를 보였고 第5共和國을 출범시켜 期約된 내일의 발전을 더욱 굳혔다.

더구나 올 1982년은 크나큰 歷史의 한 分水嶺을 넘어선 해이다.

해방 후 줄곧 우리의 생활행동과 경제활동을 묶어왔고, 그보다는 意識的 측면에서 後進性을 스스로 되씌어 왔던 通禁이라는 自屈의 굴레를 끊는 斷案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우리 모두가 굳혀온 內在의 自信感에 대한 表出이며 開放社會으로 내딛는 自律과 自主意識에 뿌리를 준 새로운 價値觀을 다지는 時點임을 깨달게 된다.

곧 「自律化 時代」에의 開幕인 것이다.

## 한국輸出 어제와 오늘

올해 우리 나라의 수출목표는 작년의 2백억 달러 달성에 이어 2백50억달러 선에 도전하고 있다.

손쉽게 2백50억달러라지만 數值上의 語感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몇년 전의 수출실적들과 對比해보면 상대적으로 그 규모를 직감케 된다.

가령 1960년의 수출실적은 고작 3천만달러

였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3차년인 64년에야 겨우 1억달러선을 돌파했던 사실과 견주어보면 실감이 난다. 그 후 6년만인 70년에 10억달러, 다시 7년만인 77년에 드디어 1백억달러 高地를 점령했던 흥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고는 4년만인 작년엔 2백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이렇듯 비약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은 輸出立國이라는 국가적 大命題에 정부와 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되었는데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計劃的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전의 우리의 社會相이나 經濟與件이 말할 수 없이 꺾박했었다는 사실을 또한 웅변해 주고 있다.

해방 후 혼란기의 5년,

3년간의 6·25戰禍,

政商輩와 買辦資本 등이 판을 쳤고 草根木皮로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休戰 후의 自由黨 시절 7년,

그리고 4·19와 5·16革命, 어제의 우리의 역사는 이렇듯 危機와 不信, 그리고 貧困의 惡循環 속에 點綴되어 왔었다. 그때의 經濟여진은 慣性인플레이션 속에 生産性提高와는 거리가 먼 농업위주의 産業構造와 3%에 육박하는 인구증가율, 또 엄청난 失業率의 누증 등 어느 하나도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역사의 轉機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착수됨으로써 마련되었지만 開發 초기엔 狹소한 國土, 人口의 過密, 그리고 賦存資源과 開發財源의 부족 등으로 허탈과 失意를 맛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선 量的 成長에 역점을 두어야 했고, 그 開發戰略도 넓은 海外市場을 상대로 한 對外指向型으로 輸出드라이브 정책



을 꺾어야 했다. 그리하여 經濟運用도 低金利와 選別支援, 그리고 競爭制限 등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와 규제에 의한 政府主導로 이끌어 왔었다.

마침 당시의 국제경제여건이 低價에너지源의 확보와 世界交易이 활발한데 힘입어 급격한 수출신장이 가능하였고, 안으로는 풍족한 노동 인력에 따른 低賃金으로 다른 경쟁국에 비해 가격면에서 比較優位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수출 1억달러高地를 확보한 64년대를 起點으로 급속히 성장, 70년대 중반엔 어느덧 수출 1백억달러에 달했고, 自主經濟에 로 치달는 高度産業社會의 발판을 굳혔다.

그러나 早期完成과 超過達成이라는 흥분 속에 내달아왔던 우리 경제는 개발계획 착수 후 昨今에 가장 큰 基調轉換期에 접어들고 있다.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國際時流에 맞춰 전면적인 開放經濟체제에 移行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앞에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대두와 後進개발국들의 급속한 世界市場진출, 그리고 世界通貨不安 등 국제경제사회의 硬化된 여건의 변화 등이 우리경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外的인 악조건 뿐만 아니라 內的으로도 계속된 物價상승과 요근래 2,3년 동안 好景氣에 등달은 賃金상승의 급격한 파급과 소득향상에 따른 消費구성 의 분에 넘치는 고급화 등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國際收支균형에의 안간힘, 通貨증발과 安定基調의 위협,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누르기 위한 緊縮정책으로 기업의 資金궁핍은 극에 달하고 여기에다 油價의 波狀攻勢로 不況은 몇년째 꼬리를 물었다.

그리하여 끝내 저작년 80년에는 경제개발계

획이 본래도에 오른 후 처음으로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6.2%라는 충격을 안겨주고 말았다.

아름든 우리 경제는 새로운 전환점 위에 서 있다.

국제정세의 혼란과 新保護主義 등 일련의 대외적인 여건과 정신없이 달려만 왔던 高速成長의 부작용 등 대내적인 슬한 장애요인 속에서 전디어왔던 그 歷程을 이제 제2의 跳躍을 위한 體質 강화에의 체험과 敎訓으로 삼아야겠다.

## 내일을 향한 輸出戰略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 결코 否認 못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 첫째는 赤化야욕에 광분하고 있는 北의 꺾발 선 눈을 마주 대한 채 한시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끝에서 끝까지 자동차로 5시간이면 달을 수 있는 손바닥만한 땅에 3천8백만이 살아가려면 오직 輸出밖에 없다는 생활방도가 그 두번째다.

지금 우리의 主權이 미치는 동강난 韓半島의 땅은 日本의 3·6분의 1, 美國의 1백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영토의 3분의 2는 經濟性있는 山地이며 하천과 늪지대를 떼고 나면 22%의 可用地 밖에 남지 않는다. 이 좁디 좁은 데에 집을 짓고 땅을 갈아 살아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것인가. 또한 이 좁은 땅의 賦存資源이라야 30년남짓 켤 수 있는 石炭 밖에 없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알고는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출은 곧 生命線이란 필연성을 깨물며 20년동안 「輸出立國」을 내세워 피땀을 쏟아 왔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이

우리 經濟는 이제 새로운 轉換期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3년여에 걸친 不況의 터널에 올부터 여러 부문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제2의 跳躍으로 내딛고 있는 우리 앞길의 瑞光임이 분명하다.

이제부터의 80년대 「제2 跳躍期」의 輸出은 熱과 誠意로서 밀어부쳐 量的인 목표달성에만 치우쳤던 안이한 戰略으로는 탈락되고 만다. 80년대의 交易은 이제 바로 貿易戰爭 그것이다.

그러기에 官民이 一體가 된 總力戰에의 보다 次元높은 새로운 對應戰略이 필요하다.

첫째로 政府主導型經濟에서 내일의 제2의 經濟跳躍을 겨냥하고 民間主導의 經濟체제로 一大 轉換을 꾀할 치밀한 靑寫眞을 마련해야 한다.

開發초기단계에는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조 또한 단순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經濟運用은 民間부문의 경영능력의 미흡함을 보완해 주는 구실까지 했다. 이같은 量的 成長위주의 정책과 정부주도 경제운동은 단시일 내에 경제건설을 가능케 하는 그 能率性을 과시해 왔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정부주도 經濟運用방식은 경제가 발전하고 그 構造가 비대해짐에 따라 그 자체가 오히려 일부 부분이나 어떤 업종에서는 創意的인 能率向上을 저해하거나 自主的 競爭力 등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成長潛在力을 억압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民間主導경제란 自律化와 自己 責任의 倫理 없이는 결코 성립되지 못한다. 곧 民間企業이 이를 능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自律的 體質改善과 스스로 책임질 수 있

는 올바른 企業倫理姿勢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차원높은 經濟運用 效率化의 지름길은 오직 「民間主導」밖에 없다는 식의 一言可破는 결코 아니다. 바꿔 말하면 제2의 경제도약기에서는 70년대까지의 정부의 過保護 내지 過規制의 「溫室經營」에서 과감히 뛰어나올 수 있는 강인한 企業體質이 필요불가결해졌다는 뜻이다.

여태껏 기업이 스스로 內在하고 있는 不實經營의 쇄신, 生産性향상을 위한 노력의 倍加와 악조건 아래서도 꾸준한 기술개발의 추구 등 企業體質強化를 향한 피나는 自助努力이 긴요한 것이다.

물론 不況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상황에서 래서 허약해진 기업체질을 강화하기란 말로는 하기 쉬워도 안팎의 제반 여건이 아직도 設備投資의욕을 위축시키고 있고, 惰性이 되어버린 듯한 自己 資本부족의 財務構造를 손쉽게 개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은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自省과 自助努力이 倍加되어야 한다는 逆說을 또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정부는 업계의 自助노력에 장애가 될만한 규제와 간섭을 두루 살펴 이를 배제해 주고 오히려 企業體質을 복돋아주는 積極施策을 펴줘야 할 것이다.

## 技術 드라이브時代로

第2經濟跳躍에 대한 총괄적인 布石으로는 企業體質강화를 전제로 한 民間主導經濟에의 移行으로 기업의 創意性과 潛在力발휘를 위한 「自律性」을 강조했지만 이는 國際時流에 따른 우리의 開放政策과도 부합된다. 바야흐로 自

立·自主·自律의 時代가 멀쳐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의 第2 跳躍에의 對應戰略은 科學技術開發에 대한 과감한 投資다.

「技術개발 없이 우리의 살길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이제 수출상품의 品質개선은 물론 新製品개발에는 보다 고도의 技術研究가 필수적이며, 이는 곧 生産性하고도 직접 연관됨은 물론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란 곧 人的 資本에 대한 투자를 뜻하기도 한다. 人的 資本개발의 바탕은 곧 科學技術 연구개발의 투자규모로 가름되게 마련이다. 이 연구개발비의 對 GNP비율이 지금 우리는 고작 0.8%인데 日本만도 이미 70년대 초에 2%선을 넘기고 있고, 西獨은 2.6%나 된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GNP규모 자체가 한국의 20배가량이나 되는걸 감안하면 우리의 연구개발비 絕對규모는 그들의 6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技術開發투자에 소홀하고 있었나를 實證해 주고 있다. 물론 투자의 우선순위와 財源 兪출의 절대량 등을 감안해야겠지만 80년대의 貿易戰爭은 곧 「技術開發戰爭」임을 새삼 銘刻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第2의 産業革命」에의 관문 앞에 다다르고 있다. 컴퓨터와 産業로봇의 급격한 발달은 工場無人化 내지는 作業의 人間代役으로 제품의 生産性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 이는 半導體로 대표되는 超高密度集積回路(VLSI)의 개발로 人力의 수백, 수천배의 일을 대신해 주고 또 情報處理를 해주고 있다.

「半導體市場을 석권하면 世界技術을 지배한다」는 口號 아래 美·日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치열한 先頭走者다름을 한창 벌이고 있다. 우

리 나라도 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까지는 VLSI의 國產化 및 15억달러의 수출을 겨냥, 7백억원의 特別技術開發자금을 지원하는 등 美·日에의 추격전에 담을 쏟고는 있다.

半導體분야 말고는 技術개발의 손발이 되는 技能工부터가 우리는 태부족이다. 올부터 86년까지만도 연간 1만3천여명의 絕對技能人力이 부족, 86년엔 무려 6만5천명의 기능공 부족현상을 자아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기에 技能工의 特別養成計劃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어쨌든 날로 치열해지는 貿易戰爭에서 이기고, 올 수출목표인 2백50억달러 달성은 물론 지속적인 「輸出立國」으로 期約된 내일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技術드라이브政策」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先進國의 技術寄與도가 22~23%인데 우리는 고작 7%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 價値觀의 再定立부터

80년대의 輸出戰爭에 이기기 위해서는 創意와 自律化를 극대화시킬 民間主導체제에의 무리없는 移行의 바탕 구축과 人的 資本의 개발 곧 技術드라이브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국제경쟁력의 강화, 品質개선과 고급화, 海外原資材공급의 據點확보, 세일즈의 강화와 市場의 多邊化 등 마케팅전략의 高度化 등 슬한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相關관계가 있음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걸맞는 획기적이고도 치밀한 綜合靑寫眞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 한국경제의 제2단계 건설과 우선 넘어야 하는 2백5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기

위한 布石構想에 앞서 한 가지 先行條件이 있다.

바로 政治 및 社會의 安定이다. 社會가 불안한데 그 누가 마음놓고 투자를 하며 일에 열중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 거작년 國內固定投資의 14.8%의 마이너스現象이 그때 당시의 社會相을 한 마디로 實證해 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질서있는 信賴社會, 이것이 경제발전의 선행요건이며 國力伸張에의 第一義임을 다져야겠다.

물론 우리는 뜻밖의 10·26의 충격도, 또 이에 뒤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도 차분히 참고 견딘 끝에 새시대를 향한 第5共和國을 수립, 出帆시킨지 1년 동안 슬한 개혁과 淨化로 정치 및 社會의 安定을 튼튼히 굳혀오고 있다.

그러나 한동안의 사회적 불안은 누적되어 온 不況을 더욱 짓눌렀고 物價를 부채질 했었다. 마침 작년부터 不況탈피의 조짐이 각 부분에서 일고 있으며 더구나 올해는 物價의 10%선 억제제를 굳게 다잡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附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物價高의 억제란 물가상승물의 둔화를 뜻하는 것이며, 결코 絶對價格의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우리와 같은 인플레이션 속의 輸出戰略은 非價格競爭力提高에 눈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이들 非價格 경쟁요인에는 代金決済조건외 완화 등과 같이 延拂수출 지원금융의 확대조치와 기존 輸出保險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조치 등 制度的 지원이 요구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요인들은 어디까지나 企業 자체의 노력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어쨌든 2백50억달러의 수출고지 점령은 물론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輸出立國에의 마지

막 열쇠는 곧 企業人들 손에 쥐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종합적 지원정책도 어디까지나 「支援」에 불과하며, 더구나 제2의 跳躍을 다짐하면서 民間主導으로 布石을 굳혀가는 80년대의 企業人은 더한층 무거운 召命感을 깨물어야겠다.

이제부터의 기업인은 단순한 이익추구나 기업의 성장을 뛰어넘은 보다 次元 높은 歷史觀과 祖國觀에 뿌리박은 社會的 使命을 새삼 다짐해야 한다. 곧 輸出시장만이 우리 모두의 生命線이며, 背水陣을 친 그 先鋒將이 바로 기업인 자신이라는 투철한 價値觀의 再定立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 自律化時代의 새 覺悟

北의 赤化야욕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現實의 사실과 좁은 땅에서 輸出만이 살길이라는 本質의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姿勢는 결코 분명해진다.

모름지기 安保는 모든 것에 先行한다는 그 가장 간단한 眞理를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安全保障의 기틀은 튼튼한 국방력에 있고, 그 국방력은 自立經濟라는 뿌리로부터 이룩됨을 새삼 인식해야겠다. 輸出에 바탕한 自立經濟에로의 매진은 곧 自主國防의 기반이며 튼튼한 자주국방 아래 社會안정을 뿌리박고 이를 다시금 자립경제에의 促進劑로 삼는 相乘作用을 거듭함으로써 우리의 國力은 끝없이 뻗어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의 첫번째 과녁은 뚜렷이 보인다. 2백50억달러의 수출고지를 향해 치달는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輸出戰士들은 물론, 이를 에워싸고 뒤밀어주는 온국민의 總和의 손길과

聲援 없이는 우리의 背水陣은 뚫리고 만다.  
 바야흐로 自律化時代의 문을 연 1982년  
 은 自信感어린 開放社會에로의 바탕을 굳히는  
 새로운 覺悟의 해로 기억해야 한다.  
 사람마다 內在한 實踐理性이 스스로 道德律

을 설정, 여기에 따르는 自律市民意識, 公民  
 人意識이 영글었을 때 2백50억달러 수출고지  
 점령은 물론, 풍요한 福祉와 진정한 民主社會  
 까지도 반드시 이룩된다는 사실을 지그시 깨  
 물어 보자.

## < 이 속 寓 話 >

### ◎ 甘言利說

남에게 충고를 하는 것도 여러가지이다. 진실로 남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거니와 그와 반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설계하기 위해서 남에게 그럴듯한 충고를 하는 예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남에게서 충고를 받았을 때도 그것이 참으로 자기를 위한 것인가의 여부를 케어보고 받아들여야겠다.

어떤 여우가 못된 짓을 하고 다니다가 그만 꼬리를 잘렸다. 그 여우는 꼬리가 없이 남과 같이 다니는 것이 무척 창피하게 생각되었다. 그 여우는 어떻게 하면 자기도 남과 같은 모양을 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 싶어서 밤낮으로 궁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남의 꼬리를 몰래 잘라다가 붙여볼까도 생각했으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은 여우는 새로운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여우들의 꼬리를 잘라 버리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여우는 여러 여우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여우들이 다른 짐승보다 머리는 좋은데 모양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요. 더우기 그들의 꼬리가 길어서 흠이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 이제부터는 그 보기 흉한 꼬리를 모두 잘라버립시다.」 그는 잠시 말을 쉬었다가 다시, 「그렇게 하면 몸이 훑가분해서 날새게 다닐 수도 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못된 놈들을 놀릴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일조이석이 될 것이요.」하고 사뭇 열변 어조로 늘어 놓았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느 여우 한 마리가 입을 열었다.

「이놈아! 그것도 그럴 듯한 이야기긴 하나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네게 이익이 되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놈은 제 꼬리가 없었어졌으니까 창피해서 우리를 속여 저같은 병신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하고 반대했다.

잔피를 부리던 여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뒤를 돌아다 보며 도망치고 말았다.



이 글은 美 空軍大學院 戰略政策과정을 優等으로 修了함과 동시에 어번 大學校 碩士과정을 우수한 成績으로 卒業하여 美國 政治學會 會員資格을 取得한 바 있는 筆者가 海外留學을 준비하는 장병들을 위해 提供한 당시 어번大學 政治學 碩士과정의 卒業論文이다.

# 韓國의 安保環境

## — 4 強 을 中 心 으 로 —

徐 鎮 泰

### 2. 社會開發

#### (7) 새마을 運動

「自助」란 너무나 分明한 事實이라 力說할 必要도 없다. 自助精神은 自信感和 獨立心에서 우러나온다. 自助精神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自身の 責任을 남에게 轉嫁시키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할 바를 行한다. 自助精神이란 것은 스스로의 努力으로 自身の 問題를 解決하려고 애쓰면서 보다 넓은 次元에서 自身을 理解하고, 自身の 能力에 自信감을 갖고 自立心과 獨立心を 기르며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自身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데서 나온다. 그러므로 自助精神을 共同運命體感을 助長시키고 나아가서는 國民團結과 國防力을 強化시킨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일하는 마을사람들에게 繁榮을 가져다 주는데 目的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은 自然히 地域的인 團結과 國民의 主體性에 對한 自覺心을 마을사람들이 기르도록 돕고 있다. 보다 큰 意味에 있어 이 운동은 對外財政支援의 依存에서 벗어나도록 國家의 自立을 助長시킨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擘心하여 돕는 가운데 각자 個人的 욕구를 充足시켜주는 社會를 創造하려는 韓國民들의 熱望과 努力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한 社會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모든 住民들이 마을道路擴張, 다리建設, 堤防補修와 같은 여러 가지 地域事業에 參與할 것이 추구된다.

「協同」은 團結로 歸着된다. 마을사람들이 서로 協力하여 이룩한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굳게 뭉칠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協力하여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確信하게 된다. 現在 進行中인 새마을운동의 成功的인 遂

行을 위해 協同精神이 必須의이란 것은 두 말 할 必要도 없다. 새마을정신의 三大基本要素인 勤勉, 自助, 協同은 不可分하게 서로 聯關된다. 그러므로 이 운동의 遂行過程에 있어서는 세 가지 要素를 잘 調和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새마을운동은 말보다 實踐을 特別히 強調한다. 이것은 가장 쉬운 일부터 完成시키는 것이 勇변이나 글보다 훨씬 더 가치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 勤勉, 自助, 協同의 概念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理解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實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말할 資格이 없다.

이 운동은 거의 우연히 始作되서 아주 洗鍊되게 되었다. 教授들과 學者들이 이 운동에 關與하게 되자 이 운동이 약간 理論的으로 뒷받침되었다. 이 운동을 더 잘 理解하기 위하여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되게 된 逸話を 살펴보자.

韓國에서 가장 豊富한 資源은 석회석이다. 그래서 經濟發展의 初期狀態에 韓國의 많은 企業들이 이 豊富한 鑛物을 시멘트製造에 利用하기 始作한 것은 당연한 進行이었다. 그러나 問題는 시멘트가 凝固되는 經時 때문에 長期間 貯藏할 수 없는 점이다. 1970年엔 시멘트가 過剩生産되고 販路도 마땅치 않았다. 韓國 시멘트製造協會는 政府에 도움을 호소해야만 했다. 그들은 政府가 無利子에 4年거치 3年分 割償還의 조건으로 300,000미터톤을 買入함으로써 시멘트製造業者들을 困境에서 풀어 줄 것을 제의했다. 따라서 政府는 이 시멘트를 利用할 方途를 尋理해야만 했는데 마침내 간단한 解決策을 찾았다. 韓國의 마을 總數는 34,665個 所로 政府는 각 마을에 335부대의 시멘트를 分配했다. 이제 마을사람들은 이 시멘트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決定해야만 했다. 政府는 그

들에게 아무런 指導도 悭없이 自身들의 隨意에 따라 시멘트를 使用하도록 했다.

마을에서는 年長者와 指導者들이 소집되고 마을의 利益을 위해 어떻게 시멘트를 使用할지 決定했다. 어떤 마을은 그것을 道路建設에 使用했고 어떤 마을은 근처 시냇가에 다리를 놓는데 썼다. 또 어떤 마을은 共同으로 이용할 수 있는 倉庫와 公會堂을 짓고, 다른 마을들은 간단한 濾過施設을 갖춘 조그만 저수지를 溪谷에 만들어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각 家庭에 連結시켜 놓았다. 이 간단한 水道施設로 우리는 콜레라, 이질 따위와 같은 水因性 疾病을 追放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오늘날 農村에 살고 있는 韓國人의 80% 以上이 水道물을 供給받고 있다. 이같은 改善으로 마을 女性들은 우물로부터 물을 길어오는 日常의 苦勞에서 解放됐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日常生活에 있어서도 큰 變化를 가져왔다.

시멘트를 割當한 1年後 地方公務員들이 그 동안 마을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마을을 訪問했다. 어떤 마을은 아주 成功的이었고 그들의 作業은 매우 滿足할 만한 것이었다. 反面에 一部 마을은 失敗했다. 다리를 建設한 마을들은 대부분 失敗한 것으로 보였다. 적절한 計劃과 工法도 모른채 시멘트와 勞動만 들여 만든 다리는 다음해 장마때 떠내려 갔다. 地方政府는 그들 마을에 다리를 再建設하도록 技術支援과 補強철근을 提供했다. 그러나 政府는 34,000餘 마을 모두에 도움과 忠告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政府는 처음에 그 計劃이 가장 成功할 것으로 생각되는 8,000個 마을을 選別해 도와주었다. 「허만간」教授는 이 運動을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다.

「이 운동 또한 最小限의 挑戰과 最小限의

支援을 必要로 할 것이 分明했기 때문에, 初期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重要했다. 보다 懷疑의이고 野心이 적은 마을로부터 協力을 얻어내는 秘訣이 그 事業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하고 있었다.

새마을事業의 成果가 매우 놀라운 成功을 보인 結果 아무리 허심탄회한 사람이라도 세세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비판하기가 不可能했다. 그러나 批評家들은 그 점을 무시했다. 우리가 아는 한 政治的 濫用과 그와 比較될 만한 社會計劃에는 상당한 關心과 지면을 할애한 權威있는 言論機關들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專著한 기사는 없었다. 이에 대한 部分的인 理由는 韓國政府 스스로가 外國人들이 評價하거나 模倣할 수 없는 獨特한 韓國的인 事業으로서 이것을 特色지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國際的 關心이 集中되도록 努力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韓國民이 이룩하고 있는 經濟發展과 英雄的인 業績만을 가지고선 이들 外國人들의 關心을 쉽게 끌 수는 없는 것이다.

以上の 逸話는 韓國의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始作됐는지를 밝히는 실제 이야기로서 紹介되었다. 始初에는 計劃된 事業이나 正確한 目的도 없었다. 각 마을이 채택한 어떤 事業의 計劃과 實行의 全過程이 그 마을사람들에게 떠맡겨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指示나 指針도 發表되지 않았다. 이것이 韓國民으로 하여금 歷史의 어두운 遺産을 제쳐두고 熱烈한 愛國心으로 鼓舞되어, 理論이나 理想이 아닌 行動과 實踐에 의한 團合된 努力을 통해, 國家의 近代化와 發展을 모색하려고 計劃된 汎國民運動인 새마을운동이 成功하게 된 主要因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 3. 政治發展

最近에 韓國의 政府形態가 論爭거리가 되어 왔다. 이것은 그러한 批評이 不當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그中 一部는 韓國의 政治遺産에 대한 理解不足과 理想主義를 反映하는 것으로 보인다. 것처럼 理解가 缺如된 속에서는 韓國이나 여타 新生獨立國이 주어진 期間內에 당연히 成就할 것으로 豫상되는 社會發展이나 政治發展의 基準이 設定되기가 거의 不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國家發展이 어떤 路線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民族文化의 어떤 面들은 發展을 阻害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除去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認識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發展을 促進하는 다른 面으로 代替되어야 할 것이지만 文化傳統이 천천히 死滅하고 새로 가치 있는 文化에 똑같이 느린 速度로 同化되리라는 것을 認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重要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韓國의 政治遺産과 이것이 現 韓國政治環境의 本質에 미치는 影響을 간단히 檢討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가. 新儒敎, 李朝와 外國干涉

마그니카르타가 制定될 당시 韓國은 몽고 侵入에 점차 屈服하고 있었다. 몽고 統治下에서 장기간 辛辱한 후 隸屬狀態에서 벗어나 李朝가 들어섰다. 韓國의 政治文化遺産에 가장 크게 影響을 끼친 것이 李朝와 日帝植民統治期(1910~1945)였다. 타락한 僧侶들에 의한 王政聯合統治期에 뒤이어 李期는 韓國社會를 再建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어느 정도 風土에 맞는 代替的인 哲學을 摸索했다. 세 王朝의 基本方針은 그 社會內 人間關係의 階級秩序에 바탕을 둔 權威主義形態를 主要 政治敎理로서

받아들이는 新儒教를 長期的인 國家哲學으로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階級社會로서의 이러한 觀念은 主要統治基盤이었던 양반에게 絶對的 服從을 強要시키는 哲學을 만들어 냈다. 博愛와 知慧, 正義 아랫사람 다루는 법을 가르쳤던 儒教의 그러한 要素는 政策上 빨리 蠶食 당하고 全體的으로 統治者의 잇속만 채우는 그러한 哲學의 面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大多數 韓國民에 對한 抑壓의 手段이 되었고 마침내 李朝 官僚들의 腐敗를 남게 되었다. 이 哲學에 바탕을 두고 보자면 그러한 社會에서 사람들이 가장 渴望하는 지위는 政府의 最高水準의 政治的地位일 것이라는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漸增하는 志願者들의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登用 可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은 美國 民主主義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競爭規則」(法尊重, 公正性尊重, 法廷判決의 尊重, 和解精神尊重, 敗者同情따위)이 充分히 認識되지 않은 채, 上部社會에서 極한 對立을 惹起시켰다. 게다가 또다른 結果로서 政府와 社會內에 黨爭을 激化시켰고 이러한 哲學 속에 家族과 氏族의 役割이 作用해 黨爭은 持續化했다.

아마도 李朝에 對해, 그리고 韓國政治發展에 남겨놓은 遺産에 對한 가장 明確한 說明은 다음과 같은 김관봉씨의 말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李朝의 傳統社會는 絶對服從의 原則 위에 세워져 家族 속에서는 家長, 國家內에서는 封建官僚들에 의해 統治된 理念的으로나 政治的 社會的으로 權威主義的 社會였다. 李朝는 個人이라는 存在가 家族과 社會的 身分에 의해 窒息당한 社會였다. 그 社會內에서 國民大多數는 政府와 社會問題에 參與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社會的 活動을 하기 위한 어떠한 機會도 賦與되지 않았다. 이 社會에서 政府는 때로는 腐敗하고 專制的이며 邪惡한 黨爭에 의한 內部的으로 分裂된 特權少數들을 위한 特權少數만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 社會는 少數統治者들이 個個人의 發展을 嚴格히 禁錮했던 社會였으며 이러한 모든 점을 現代 韓國社會가 相續받아 가장 심각한 政治的 社會的 不安要素로서 作用하고 있다.」

1840年代에서 1880년까지 李朝衰頹期에 韓國의 政治的 背景은, 朝廷과 朝臣들 사이에 가장 큰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地位를 獲得하기 위해 다투는 中國, 러시아, 日本의 角逐터였다. 이 당시 朝廷은 어느 特定 外勢를 支持하는 여러 黨派로 갈라져 있었으며, 反面에 다른 사람들은 孤立主義 立場을 擁護하고 있었다. 朝廷과 朝臣들 內의 이러한 分裂은 社會的으로 抑壓을 느끼는 學者들과 傳統적으로 가난하고 無氣力한 農民들의 不滿을 조금도 解消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터뜨린 不滿은 1800年代 中盤에, 조심히 그러나 기꺼이 社會的 宗教的 勢力과 結束해서 反政府의 이며 外勢排擊運動 支持로 나타났다. 비록 처음에는 派及 效果가 느렸지만 마침내 이 勢力은 韓國政府의 要請으로 中國이 反亂을 鎮壓하기 위해 軍隊를 派遣할 정도로 커졌다.

中國軍의 韓國移動에 對한 反應으로 韓半島를 오랜동안 탐내온 日本이 中國을 妨害하기 위해 1894년에 介入了. 짧은 中·日戰爭이 1年後에 끝나고 시모노세키條約으로 日本은 韓國에 對해 公式的으로 주도권을 잡았다. 이러한 權限이 賦與된 직후 日本은 韓國政府가 오랫동안 늦춰왔던 改革을 斷行하기 始作했다. 奴隸制度, 階級制度 및 과거시험이 廢止되고 西歐의인 一面이 韓國人들에게 強要되었다.

## 나. 日本植民統治

露·日戰爭의 結果 포츠머스條約이 締結되고 韓國은 日本의 保護國이 되었다. 그 후 1910年 合併條約下에 韓國은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고 韓國은 모든 面에서 加虐하고 權威의이며 官僚主義的인 日本植民統治에 의해 影響받았다. 모든 國民의 自由가 剝奪되고 私立學校가 閉鎖되었으며, 韓國의 젊은이들을 日本文化에 同化시키려는 努力으로 日本은 新學校를 세웠다. 日本은 또한 韓國語와 歷史에 對한 모든 研究를 中止시키고 日本語와 日本歷史를 強要했다. 日本人들은 또한 韓國人을 無慈悲하게 利用하고, 特別히 日本人 地主와 業者들에게 有利하도록 計劃된 經濟關係를 만들어 놓고 이를 強要했다. 自身들끼리라든지 他集團 사람들과의 怨恨과 싸움으로 彼들을 分裂시키고 指導者를 잃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嚴格한 統治手段外에도 日帝는 韓國의 愛國者들을 殺害하고 害치고 投獄시키는 등 強力한 彈壓을 加하므로 인하여 韓國人들은 血氣만 넘치고 結果는 悲慘한 抗議에모만 벌일 뿐 그 이상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모는 日帝로부터 단지 名目上의 讓步 정도밖에 받아내지 못했다.

日帝植民統治 結果 李朝의 高官들은 日本人들로 代替되고, 官職에서 쫓겨났거나 훨씬 낮은 職으로 左遷되었다. 國內의 抵抗과 一部 限定된 國際的 非難 및 名目上의 讓步에도 不拘하고 日帝는 韓國人들이 政治的 經濟的으로 發展하거나 自國經營에 구조적 實質的으로 參與하는 것을 苛酷하게 잘 막아냈다. 게다가 그들은 學校로부터 韓國文化의 모든 것을 體系的으로 抹殺하려고 努力했고, 이러한 努力은 모든 한글 刊行物의 廢止로까지 擴大됐다.

日本式 이름이 國民에게 強要됐고 神道와 日本式 儒教概念이 그들의 權威主義的 特徵을 利用코자 學校에 導入됐다. 그러나 日帝는 韓國社會 規範의 傳統的인 패턴을 別로 變化시키지 못했다. 높은 官職을 剝奪당하거나 土地를 빼앗긴, 지체높은 사람들조차 그들의 높은 社會的 尊敬을 繼續해서 維持했다. 김 관봉씨는 그의 著書에서 日帝統治에 對한 適切한 評價를 내리고 있다.

「日帝統治가 남긴 經濟的, 文化的 및 그밖에 흔적과는 別도로, 가장 重大한 遺産은 어찌면 日帝官僚主義的 韓國內 導入일 것이다. 그것은 嚴格하고 法律的이며 權威主義的 特色으로 有名한 프러시아型的 再輸入版이었다.」

## 다. 美軍政

1945年 8月, 日本의 降服으로 日帝統治에서 韓國이 解放된 후 駐韓美軍이 38以南의 韓國을 다스리게 되었다. 美軍政은 一時的인 措置로 日本官僚主義를 保留시켰다. 이것은 韓國人들이 政府運營의 經驗이 不足했고 쫓겨간 日本人들에 의해 생긴 眞空을 급히 메꾸어야만 했기 때문에 不可避했다. 비록 日本에 軍政을 세우는 데는 잘 준비된 美國도 韓國에 軍政을 세우는 데는 效果的으로 準備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韓國이 自治의 길로 들어서도록 돕기 위해 居住民을 쫓아 할지, 亡命 韓國人을 쫓아 할지를 正確히 알지 못했다. E. Grant Meade씨는 그의 著書에서 美軍政이 얼마나 未準備狀態였는지를 간결하게 說明하고 있다.

「理由야 어쨌든 그들은 資格이 없었다. 美 24師團은 필리핀과 오키나와에서 오랜 戰鬪經驗을 가졌다. 이 師團은 戰後段階에서 民政을 遂行할 만한 能力이 없었다. 그리고 韓國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의 概念도 알지 못했다. 韓國割當에 對한 브리핑도 별로 없었고 基本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情報도 별로 없었다. 「하지」中將이 發表한 政策聲明들도 너무나 貧弱하고 模糊해서 그가 取한 모든 措置가 副作用을 낳았다」.

36年間의 日帝統治後라 韓國인들이 비록 美軍政 草創期에 데모와 다른 表現方法을 通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점을 分明히 밝혔지만 大衆의인 民主政府를 즉시 세우기에는 全般的으로 準備가 未足했다. 앞서 밝힌대로 日帝는 새政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모든 韓國土着集團을 철저하게 粉砕했고 民族指導의 資質을 가진 사람들을 破滅시키거나 世界到處로 쫓아냈다. 美國政府內에서도 韓國이 當면하고 있는 問題의 性質과 重要性 및 複雜性에 對한 認識이 一般的으로 不足했다.

萬一 美國政府가 經驗이 없는 韓國官吏들과 政治家들을 訓練시키는 일에 맥아더將軍이 日本에서 했던 式으로 보다 긴 眼目으로 조심스럽게 대들었더라면, 그리고 美軍을 悉數히 撤收시키지 않았더라면, 事態는 달라졌을 것이고 韓國人들은 出發을 보다 좋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라. 政黨과 野黨

西歐民主主義에 있어 政黨은 「執權」을 目標로 養成되고 永久化하기 때문에 國家의 健全한 政治發展을 위해 重要하고 活力을 주는 要素로 보통 看做되고 있다. 西歐民主主義가 行政府 權力에 一聯의 牽制와 均衡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主張하는 것은 部分的으로 政治의 이러한 面에 根據한 것이다. 危機時에 조차 그것이 戒嚴下든 프랑스가 攻略中이든 간에

立法議員들은 指導者로부터 最高法을 固守하고 國家首班에 의한 權力濫用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려는 마그나카르타精神으로 一貫해 오고 있다.

이러한 傳統이 韓國의 政治文化部分에는 없었고 그 結果 韓國人들은 國家 共同利益을 위해 서로가 어떻게 政黨을 效果的으로 取扱해야 할지에 對한 經驗과 知識이 一般的으로 不足했다. 앞서 말한대로 韓國의 政治에 있어, 野黨에 대한 寬容은 별로 없었다. 이 政治問題에 있어 韓國人의 견해는 「우리를 支持하지 않는 者는 우리의 敵」이라는 생각이 一般的이며 따라서 이런 생각은 發展에 妨害가 되니 없애져야 한다.

野黨이 弱해지면 이러한 傾向은 個人의 生存을 위하여 亡命을 떠나거나 國家首班이나 與黨의 行爲를 認定하는 것으로 보통 發展한다. 따라서 危機가 國家에 닥칠 때 大統領과 國民이 取할 行動에 대해 어느 정도 豫想할 수 있다고 본다. 大部分의 國民들처럼 混亂과 危險이 닥치면 韓國人들은 그들이 가장 익숙히 알고 있고 信賴하고 있는 強硬手段에 呼訴해 왔다. 그들은 大統領에게 非常權을 認定했다. 이것은 政府의 餘타 權力보다 大統領의 權限이 最高라는 認識을 심어온 오랜 一聯의 措置로 證明된 것 중 첫번째 것이었다.

#### 마. 近代政治文化

1948年 政府樹立後 大韓民國은 第5共和國을 맞고 있다. (1) 第1共和國(1948~60) (2) 第2共和國(1960~61), (3) 第3共和國(1961~72), (4) 第4共和國(1972~1981.3.), (5) 第5共和國(1981.3~現在)이 그것이다.

朴大統領 逝去後 新任 全斗煥 大統領은 民主政治體制의 無秩序 狀態와 有權者의 變德으

로 인한 統制弱化를 우려한 나머지 軍部가 支持하는 「危機管理政府」를 이끌고 부득이 全權을 강악했으며, 大統領職을 떠맡기 앞서 國家 安保特別委員會(NCNSM) 常任委員長의 職能으로 政治, 教育 기타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社會分野에서 改革을 斷行하고 社會惡을 嚴斷함으로써 社會秩序를 主導적으로 再定立시켰다. 朴大統領 死後에서 全大統領 選任까지 國家는 舊惡을 一掃할 目的으로 前例없이 빠르고 迅速한 社會 改革을 實施했다.

韓國人들은 軍部の 民政能力에 對해 西方 有識者들 사이에 상당한 論難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 韓國人들은 지금까지 수 많은 外侵을 겪었고 많은 苦痛을 당했다. 第2次世界大戰後 우리는 미처 準備할 사이도 없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生소한 西歐文明에 露出되었다. 地政學的인 면에서 우리 나라는 이웃나라에 쉽게 同化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完全히 同化되지는 않았다. 過去 隣接國들의 수 많은 外侵에도 不拘하고 韓國은 國家의 正統性과 傳統文化를 本質적으로 保持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外部의 妨害없이 自由와 平和를 누린 적이 한시도 없었다.

우리는 항상 우리 君主이거나 植民統治者들에 의해 權威主義的 統治를 받아 왔다. 우리는 民衆의 主導로 스스로를 統治하도록 訓練받거나 그럴만한 機會를 잡지 못했다. 유일한 自治機會가 美國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한번 뿐이었다. 韓國動亂中에 그리고 그 後에도 우리의 最優先權은 軍事力 增強이었다. 美國人들은 韓國軍事要員들을 教育하고 訓練시키는 일에 그들의 努力을 集中시켰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軍部는 높은 指導者의 資質을 보여 왔다.

비록 우리는 美國과 英國 및 프랑스와 같은

西方國家에서 教育받고 訓練된 民間學生과 學者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指導者 訓練이 知識만의 問題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實踐과 知性, 責任感 등이 複合적으로 作用하는 問題다. 우리 나라의 모든 士官學校는 美國의 West Point, Annapolis 및 Colorado Springs 에 있는 士官學校를 모델로 하고 있다. 우리는 美國生徒와 거의 똑같은 學科를 공부한다. 卒業後 우리 士官生徒의 資質은 美國生徒의 資質과 맞먹는다.

個人的 觀察로는 美國民主主義가 가장 理想的인 이고 人道的인 政治體制中の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많은 脆弱性을 갖고 있다. 美國民主主義는 두 가지 條件인 國家의 富와 政治的 成熟을 前提로 하지 않으면 거의 作用될 수 없다. 우리가 國家적으로 富強해지고 國民들의 政治水準이 美國人의 水準과 맞먹게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社會 政治環境에 가장 잘 맞는 기존 民主政治體制中の 하나를 고쳐나가는 方法을 摸索해야 한다.

重要한 것은 우리가 法과 型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하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政治的 民主主義를 實現하려는 努力에 앞서 生活方便으로서의 民主主義를 먼저 實現해야 하는 基本公式도 알지 못한채 大多數 韓國인이 「政治的 民主主義」에 對하여만 말하고 있는 우리 歷史中이 特別한 時期에 우리 國民을 이끄는 데 어떤 型의 指導者가 가장 알맞으며 責任있고 獻身的인 指導者를 우리가 얼마나 알아내느냐 하는데 있다. 服從이 韓國人의 歷史 속에 그처럼 오랜동안 第1의 美德이었던 儒敎의 生活方式의 傳統 속에 살아왔던 國民들에게 불과 36年(第2次世界大戰末 以後)이란 歲月은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를 自然스럽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짧은 時間이다.

그밖에 地政學的 狀況과 國土分斷 및 經濟 壓迫은 強力하고 獻身의인 指導者의 必要性을 要求하고 있다. 1979年 10月, 朴大統領 死後 오일소크를 包含하여 國際的인 挑戰과 北으로부터의 繼續的인 挑發威脅이 겹쳐 우리는 現在 어려운 時期에 處해 있다. 이 狀況은 어느 정도 1930年代 美國의 狀況과 比較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美國의 루스벨트 大統領과 같이 有能한 指導者가 必要하다. 우리는 韓國의 루스벨트를 願한다. 窮極的으로 政治指導力의 當爲性은 選舉와 憲法 및 代議過程에 있는 것이 아니라 追從者들의 순수한 要求에 따라 責任있는 政治를 펼 수 있는 指導者의 能力에 있다.

#### 4. 人權問題

人權의 追求는 行政府 交替에 상관없이 美國의 對外政策의 基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카터行政府 期間中 美國의 對外政治問題에서 가장 論難을 불러일으킨 것이 人權問題였다. 人權을 對美關係의 前提로 設定하는 한편 美國 對外政治의 必須要素化하려는 努力은 많은 어려움과 주의를 要했다.

1980年 6月 13日에 公表한 美國의 人權政策 「第198號」에 따르면 카터行政府內의 人權담당 國務次官이었던 Patricia M. Derian 女史가 1980年 6月 12日에 워스콘신州 밀워키市에 있는 美 大學女性協會에서 行한 演說 속에 韓國에 對해 言及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만일 韓國의 一部 將星들이 獨裁를 세우고자 決心한다면 經濟的 道德的 壓力으로는 이들의 決心을 돌리게 하는데 不充分할 것이다. ...」

Derian女史가 그처럼 不當한 妄發을 하기에

앞서 韓國의 政治的 文化的 背景을 考慮했어야 했다. 앞서 指摘했듯이 韓國人들은 王이나 暴惡한 植民統治者들로부터 權威的인 統治를 항상 받아왔다. 美國의 重要한 盟邦인 韓國의 政治文化環境을 이해하려는 眞지한 努力이 없는 Derian 女史는 韓國人의 立場에서 人權問題를 認識하려는데 失敗할 것이다.

그녀는 軍事的인 面에 對하여 不滿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不滿이 있다면 軍事的인 無能力에 對하여 그녀는 不滿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녀는 단지 軍人이 아니라는 理由 때문에 民間人에 對하여 滿足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들의 指導者의 資質缺如 與否를 살피야 한다. 世界에는 民間出身 獨裁者들이 많이 있다는 事實을 그녀는 보다 더 認識해야 한다.

美國人들은 思考方式이 매우 合理的이다. 그래서 그들은 合理的인 사람과 사귀는 데는 매우 効果的이다. 그러나 美國式 論理는 非論理的인 사람과 對決할 때는 자주 失敗한다. 論理的인 面과 非論理的인 面을 함께 理解할 수 있으려면 착실하고 꾸준한 努力이 要求된다. 忍耐는 美國人이 世界指導者로서 가져야 할 美德이다. 人權은 美國人만의 發明品이 아니다. 그것은 世界的으로 다 알려져 있다. 第3世界 國民들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經濟發展과 國家安保와 같은 先決問題와 싸우며, 그네들 자신의 國家를 建設하는데 餘念이 없다. 메리안 女史가 그녀의 演說에서 言及한 食糧·住宅·保健·行動의 自由, 宗教와 教育의 自由 따위의 基本權을 韓國人은 갖고 있다. 韓半島의 地政學的 狀況은 Derian女史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르다. 韓國人들은 미그機로 3分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北으로부터의 끊임없는 威脅下에 있다. 蘇聯 戰鬪機들이 Dulles空港에 非常待機中이며 백

악관에서 그들을 직접 바라보는 狀況을 상상해보라.

코리아 헤럴드는 1981年 2月 15日字에 Ernest W. Lefever氏의 말을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美國은 友邦國이긴 하지만 獨裁的인 外國政府가 人權을 濫用한다는 理由 때문에 經濟的 軍事的 援助를 中斷하는 따위의 報復的인 制裁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效果的인 改革方法은 「조용한 外交」와 友好關係維持인 것이다. 大統領이 特別히 拒否하지만 않는다면 美國은 美國政府가 他國政府와 정상적인 交易를 實施하기에 앞서 반드시 그 國家가 따라야 하는 條件으로서 人權基準을 設定하는 모든 法條項을 法令集에서 빼야 할 것이다. 우리는 世界를 우리 생각대로 改造할 道德的인 委任權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 盟邦의 國內行爲와 심지어 敵對國의 國內行爲까지도 改革하려고 하는 것은 美國의 오만이다.」

이 글은 人權問題에 對한 Ernest W. Lefever氏의 哲學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앞서 밝힌대로 人權은 美國만의 發明品은 아니다. 美國人의 傳統的인 價値觀인 多元主義, 競爭規則, 權力分立, 人權尊重 따위는 充分히 認定된다는 것이 世界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人權目標을 實行하는 過程에 있어 美國은 「차렷, 世界여 美國은 팡금 놀라운 人權革命을 成就했다.」는 式의 含糊한 印象을 없앨 수 있도록 長期的인 案을 發展시켜야 한다.

人權은 宣傳이나 PR의 對象이 아니다. 重要한 것은 正直한 人道的 努力이고 그래야만 한다. 美國은 繼續해서 人權을 追求해야 할 것이지만 美國은 敵對國보다 友邦國에 더 높은 行動基準을 設定할 없이, 보다 慎重하고

微妙한 雰圍氣 속에서 이를 追求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點에서 레이건行政政府는 現實的인 態度를 取했고, 이 問題를 公的으로 強調하는 가운데 보다 論難이 적은 路線을 받아들였다. 비록 이러한 立場이 조금 늦게 取해졌지만 이것은 美國의 對外政治에서 적어도 不必要한 論難을 最小化하는데 效果的인 것이 分明하다.

## IV. 韓國을 둘러싼 4強의 利害關係

### I. 美國의 利害關係

도널드 린스켄드 美國防長官이 說明하듯이 「韓國에 對한 美國의 支持는 日本이 韓國의 安保를 自國安保와 密接하게 보는 것처럼 東北亞安全에 緊要하다.」 美國이 韓國에 쓴 돈은 1945~1976期間에 1890億弗로 엄청난 돈인데 그 중 大部分은 쉽게 美國經濟에 되돌려질 수 있는 退役軍人 年金과 韓國戰 費用이었지만 約 120億弗은 韓國에 對한 軍事的 經濟的 援助였다. 오늘날 韓國은 西獨을 除外한 유일한 師團規模의 美軍 駐屯國이다.

이른바 中·蘇膨脹主義에 對한 牽制와 같은 過去의 理論의 根據는 더 이상 根據로 作用하지 않는다. 그 대신 北傀에 의한 武力統一防止와 日本의 安全保護라는 두 가지 面에 理論의 根據가 주어진다.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大規模 軍事的 衝突再發을 防止함으로써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겠다는 것이 確固한 美國의 公約이다. 이 地域 安定保全과 中·蘇와의 衝突回避는 美國의 利益에 直關된다.

美國 움서버들에 의한 韓國經濟의 빠른 成

長에 대한 認識 또한 重要하다. 經濟적으로 韓國은 이제 美國의 主要貿易相對國이고 브라운 美國務次官이 周知시킨 바 美國의 對極東 交易은 이제 유럽보다 커지고 있다.

韓國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利害를 比較해 보면 韓半島에 特殊한 日本 또는 美國의 利害 간에 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어떤 의미로는 日本이 韓國에 接近하여 軍事的 衝突을 避하는 데에 더 큰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反面에 美國은 직접 戰鬪에 介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損害를 안고 있다. 美國의 納稅者들은 駐韓 美軍維持費로 每年 約 7億弗을 냈고 戰後 韓國援助로 앞서 밝힌 대로 總 120億弗을 썼다.

美國은 1977년에 總 434,000,000弗에 달하는 莫大한 直接投資를 했다. 韓國에 대한 美國의 經濟的 利害程度에 對한 보다 正確한 尺度는 1978年中에 美民間銀行借款中 25億弗이 未決 됐다는 事實이 암시하고 있다. 그밖에 韓國은 美國의 公共借款 14億5千萬弗을 썼다. 韓國銀行들에 對한 外國銀行借款線中 80% 以上이 多國籍民間銀行들이고 그들 중 큰 몫을 美國民間銀行이 차지하고 있다. 美國銀行들이 韓國銀行들에 借款을 提供한다는 事實은 自國政府의 公約에 對한 그들의 信賴를 나타내는 것이며 公·私間의 參與를 區分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萬一 美國이 世界銀行(World Bank)과 아시아開發銀行같이 韓國을 友好的인 케이스로 다루고 있는 多國籍金融機關에 參與하게 되면 韓國의 安定을 持續시키는데 있어 美國의 役割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의미심장하게도 韓國에 投資하고 있는 日本 商社들이 美國과는 아주 對照的으로 中小企業들이다.

결프오일社는 單獨으로 韓國에 原油를 年間

10億弗 以上 팔고 있고 精製와 肥料生産 및 石油化學物質 製造施設에 2億弗의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美國은 23億弗 상당의 軍事基地를 韓國에 維持하고 있고 그들은 繼續해서 一新되고 있다. 이처럼 美國에 歸屬된 利害關係는 北傀가 韓半島를 掌握할 境遇 日本이 당하는 損害보다 더 큰 損害가 美國에 돌아오는 그러한 性質의 것이다.

韓國에 對한 美國의 經濟的 利害關係의 大部分은 公平投資形態인 反面에 日本의 境遇는 技術支援과 特許協定形態가 支配的이다. 韓半島가 掌握될 境遇 日本은 美國보다 直接的인 影響을 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輸出貿易의 大部分이 日本企業들이 國營일 때조차 日本關聯企業들을 위해 必要되는 原資材와 그 밖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美國이 約 39,000의 美軍을 韓國에 維持하는데 不滿足하고 있는지를 理解하기는 어렵지 않다. 美國은 韓半島에 軍事的 衝突이 일어나면 自動的으로 介入되는 狀態가 持續되는 것을 避하고자 할 것이다. 韓國의 經濟的, 軍事的 發展이 크게 이룩된다면 이는 美軍의 負擔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美國이 結論짓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日本, 中共 및 蘇聯 모두가 現 狀態維持를 원할 때 美國이 스스로 事態를 變化시키고자 애써야 하는 지가 의문이다. 비록 카터行政府의 撤收政策이 美國內 政治의 觀點에서는 理解할 만한 것이었지만 對外政策上 그것은 지극히 短視短淺한 것이라는 非難을 免하기가 어려웠다. 撤收計劃이 中止되고 레이건 行政府가 그것을 死案으로 公式的으로 確定지은 것은 多幸한 일이다.

## 2. 蘇聯의 利害關係

南北韓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固有한 變化의



要素로 蘇聯의 利害關係를 論하는데 있어 韓半島에 대한 蘇聯戰略이 變할 수 있는 다음의 前提가 考慮되어야 한다.

첫째 條件은 蘇聯의 政策立案者들이 韓半島를 地政學的으로나 戰略的으로 重要한 地域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이다. 실제로 蘇聯은 韓國動亂 以前에는 蘇聯의 對外政策立案에 있어 韓國을 重要한 要素로 認識했다. 따라서 韓半島는 蘇聯의 安全에 重要한 役割을 했다. 蘇聯은 北韓에 對한 援助를 自國의 絶對的 義務로 생각해서 北韓에 親蘇政府를 維持시키는데 全的인 努力을 기울였다. 그러나 1950年代 中盤 以後부터, 特히 스탈린 死後 蘇聯은 이른바 平和共存路線에 바탕을 둔 多角的인 戰略으로 發展했다. 蘇聯이 北韓에 對한 援助를 對南革命戰略에 重要한 것으로 看做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蘇聯은 強大國間的 和解와 第3世界의 發展에 더 重點을 두었다.

이러한 變化는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特히 對北韓政策이 制限의이며 流動的임을 意味하는 것이다. 바꿔말해서 蘇聯의 國益面에서 韓半島의 重要性은 여타 地域과 比較한 觀點에서 그들의 韓半島에 대한 武力統一劃策이 失敗한 後에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蘇聯은 이제 韓半島를 緩衝地域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 均衡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既定事實로 되었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蘇聯은 美國, 日本, 韓國의 對北傀 接近態度에 敏感하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둘째 條件은 蘇聯의 對外政策에 있어 優先權이 어디에 놓이느냐 하는 問題다. 흐루시초프時代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對外政策 公式化過程에 있어, 蘇聯은 國際政治現實上 그들이 目的하는 바에 制限이 걸린다는 點을 認

定하면서도 그들의 目的을 最大로 達成하고자 했다. 韓國戰에서 쓰라린 敎訓을 배운 바 있는 蘇聯은 流動政策을 펴는 것이 自國에 有利함을 깨닫고 그 堅의 強硬路線을 拋棄했다.

셋째 條件은 中·蘇紛爭狀態下的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可變性 問題다. 中·蘇蜜月期中에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對北 積極援助를 통한 繼續的인 統一政策이었지만 1950年代末 表面에 나선 中·蘇對立은 相互自制와 疎遠의 關係로 發展했다. 그 결과 北傀指導層은 親蘇, 親中國內派로 갈라졌다. 따라서 김일성은 中·蘇紛爭에 휘말리는 것을 避하기 위해 獨自的인 政治路線을 擇했다.

요컨대, 北傀의 革命을 支援한다는 면에서 中·蘇兩國은 意見을 같이 하지만 國際環境의 變化趨勢에 따라 蘇聯, 中共, 北韓의 三角關係는 自國의 國益이 優先하는 見地에서 볼 때 어떤 和合할 수 없는 要素를 안고 있다. 中共과 北韓과의 關係發展이 北韓에 對한 蘇聯의 態度를 실제로 決定지을 것이다. 韓國動亂을 통한 武力統一 達成努力이 失敗한 以後 蘇聯은 수 많은 北韓의 提議에 말로만의 援助를 約束하고 어떠한 統一政策도 쓰지 않았다.

푸에블로號 拉北, EC-121機 擊墜, 그리고 2名의 美軍將校가 DMZ에서 北傀軍에 殺害된 1976年 8·18도끼蠻行같은 一聯의 北傀挑發行爲는 蘇聯의 壓力을 받지않고 저질은 것이다. 1961年 蘇聯과 北韓間的 相互援助協定을 위한 協商時에 蘇聯의 指導者들은 第2의 韓國戰이나 大規模 베트남식 地雷戰을 위한 어떠한 援助도 北韓에 提供하지 않을 것임을 明白히 밝혔다.

南北赤十字會議을 위한 豫備會談이 發表되던 때인 1971년까지 北韓에 對한 蘇聯의 態度는 온건한 政策路線에 바탕을 둔 주로 口頭接

助였다. 한편 南北赤十字 本會議에 대한 反應으로 蘇聯은 北韓의 立場을 支持했다. 그러나 그 論評은 비교적 온건했고 基本的으로 韓半島緊張緩和趨勢를 強調하고 있었다. 실례로 1972年 12月 5日, 프라우다紙는 論說에서 「이 會談을 通해 南北間의 緊張이 緩和되고, 軍事的 衝突이 防止되고, 그들의 對外政策을 考慮하여 南北間에 合議된 措置를 取하는 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

蘇聯은 分明히 南北對話의 發展을 바라고 있고 南北間의 平等을 바탕으로 現狀態를 安定시키겠다는 表現으로 이것은 解釋될 수 있다.

1973年 6月 23日 朴大統領이 宣言한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관한 特別聲明에 對處해 김 일성은 소위 高麗聯邦制를 主張했다. 北韓의 計劃은 宣傳效果를 거두기 위해 1960年代 내놓은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北傀提議에 대한 反應은 以前의 提議에 대한 反應과 다를 바가 없다. 1973年 7月 27日 모스크바放送은 「이 提議는 韓半島와 極東에서 緊張을 緩和하고 同時에 韓國을 平和的, 民主的方式으로 統一하려는 韓國政府의 또다른 重要한 提案이다」했다.

蘇聯은 北韓의 提議에 대한 內容을 전혀 舉

論하지 않았다. 이것은 蘇聯이 될 수 있는 한 南北韓 모두에게 挑發的인 表現을 避하면서 現狀의 發展을 認定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事實을 암시하는 것이다.

緊張緩和政策을 追求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는 蘇聯은 28次 UN總會 政治委員會會議에서 한 決議案을 通過시키는데 있어 여타 關係國과 步調를 같이 했다. 南北關係에 대한 蘇聯政策의 考察에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假定을 設定할 수 있다.

첫째, 蘇聯은 南北韓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北韓과의 同盟關係를 完강히 主張하지만 和解와 緊張緩和와 같은 基本路線維持에 重點을 두고 있다.

둘째, 韓半島를 4強의 力學關係를 調整하는 緩衝地域으로 보기 때문에 蘇聯은 韓半島에 紛爭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可能的인 現狀態를 安定시키기를 원한다.

끝으로, 韓國을 둘러싼 美·蘇·中·日 4強의 力學關係를 調整하는 相互自制의 機能面에서 蘇聯은 南北韓間의 平和的인 接觸이 蘇聯에 어떤 不利한 狀態를 惹起시킬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南北韓 接觸의 動機와 目的에 對한 蘇聯의 態度를 이러한 脈絡에서 肯定的으로 보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繼續)

### <名言各句>

- ◎ 인생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에이버리>

# 空軍 營外將兵家計의 長期生活設計 小考

李 元 植

## I. 長期生活設計와 目標管理技法

한 經濟社會에 있어서 消費 및 貯蓄行爲에 關한 가장 基本的 意思決定 單位는 家計이다. 이러한 家計의 消費 및 貯蓄行爲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느냐 못하느냐의 問題가 작게는 그 家計, 크게는 國民經濟의 오늘과 내일을 運命짓게 된다.

특히 勤勞所得을 全所得源으로 하는 勤勞者 家計들의 짜임새 있는 生活設計가 重要하다. 이에 家計들이 어떻게 長期生活設計를 세우고 管理해 나가는 것이 合理的인가?

이에 個人金融理論에다 目標管理技法을 連結하여 바람직한 하나의 接近을 얻게 되었다.

먼저 目標管理技法부터 읍미해 보면,

첫째, 目標設定(Goal-Setting)이다. 이 段階에서는 長期目標과 戰略的 計劃을 세우고 具體的 全般的 目標을 開發한다.

둘째, 行動計劃(Action Planning)이다. 이 段階에서는 우선 利用可能한 資源을 分類分析 評價하고 一連의 機能的 戰略을 開發한다. 그리고 目標達成을 爲하여 具體的 資源配分計劃을 세운다.

세째, 自己統制(Self-Control)이다. 이는 自身이 實行에 옮기며 必要에 따라 修正 措置를 취한다.

네째, 週期的 再檢討(Periodic-Reviews)가 있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세운 目標을 向한 進行狀態를 檢討하고 全般的인 進度的 評價, 行動의 補強 및 動機의 強化를 도모하면서 이를 계속 反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目標管理技法을 長期生活設計에 세우는 것이 有益하다. 한 家口主, 특히 空軍 營外將兵이 그의 一生週期(Life-Cycle)에 따라 나타나는 主要變化 時期인, ① 任官, ② 結婚, ③ 子女教育開始, ④ 住宅마련, ⑤ 子女結婚, ⑥ 停年退職, ⑦ 老年期 等に 對하여

① 무엇을 爲하여 貯蓄할 것인가(=目標設定)

② 무엇이 目標達成에 가장 效果的인 方法인가?(=行動計劃)

③ 實踐하는 가운데 修正할 것이 있는가?(=自己統制)

④ 目標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週期的 檢討)

를 되풀이하야 살펴야 한다. 換言하면 家口構成, 家口の 支出欲求, 家口主 所得의 흐름(=諸 給與의 增減趨勢) 等 家計의 內的 要因이

두드러지게 變하거나 家計를 둘러싼 經濟社會로부터 外的 要因(=物價高, 福祉惠澤 等)들의 變化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 家計의 살림을 앞에서 지적한 順序대로 再檢討해 나아가는 것을 習慣化 해야 한다. 空軍構成員들의 欲望은 無限하다. 그러나 經濟社會의, 또한 自身の 稀少한 資源을 가지고 여러 가지 競爭的目的들 가운데 어떻게 選擇하여 充足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解決해야 한다. 卽 어느 한 欲望을 選擇한다면 반드시 다른 하나의 欲望을 덜 채우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다. 換言하면 우리 將兵의 欲望은 많고, 우리의 給與 資源等 收入은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欲望 가운데 가장 重要한 欲望들을 選擇하여 充足해야 되고, 이러한 選擇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덜 重要한 欲望들을 犧牲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령 한 家計가 休暇旅行費 10萬원을 支出한다면, 그것을 銀行預金하여 每年 約 20%의 利子를 늘려 나가는 機會를 拋棄한 셈이다. 그러므로 우선 一定한 金額을 가지고 支出할 수 있는 여러 가지 選擇機會들을 具體的으로 列擧한 다음 그 가운데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 하는 것을 選擇하는 버릇을 生活化 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經營學에서 Portfolio란 有價證券들만으로 이루어지는 資產의 構成을 뜻하지만 家計의 生活設計와 관련해서 말할 경우에는 有價證券 뿐만 아니라 不動產, 銀行預金 等 모든 物的資產은 勿論이거니와 教育 技術研修 等으로 蓄積된 人的資產을 包含하는 넓은 意味로 풀이되어야 한다. 卽 한 家計가 動員할 수 있는 모든 資源(人的, 物的)의 構成을 Portfolio라고 해야 한다.

家計는 이러한 넓은 意味의 資產들 가운데 어느 것을 어떤 比率로 갖추느냐를 決定하는

作業이 長期生活設計에 重要한 것이다. 決定하는 과정에서 一例로(一般的이나) 空軍將兵의 心理(意志)上 商品의 量과 質을 가지고 欲求를 充足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實際로 個人的 초라한 住宅보다는 전셋방일망정 高級住宅, 막걸리 한잔보다는 양주 한 잔 等 이러한 心理的 動機 때문에 非合理的 消費支出 行爲를 했던 것이다.

또한 家計는 한 個人(家口主 한 사람)의 立場에서 모든 消費 및 貯蓄行爲가 決定되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하나의 家口는 家口主(將兵本人)의 父母兄弟, 配偶者, 子女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서로 다른 人格, 選好 및 欲求를 가지므로 어떠한 意思決定이 家族單位로 이루어지기 前에는 서로의 意見衝突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것이 妥協에 이르기 爲해서는 때로는 非合理的인 決定이 내려지기도 한다.

家計의 生活設計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기 爲해서 家口主가 먼저 合理的인 意見을 提示하여 全家口員이 이에 同調해야 하는데 이의 客觀的(合理的)인 意見이 本 考案이라고 強調하고 싶다. 合理的인 意見에 귀를 기울이는 家庭生活 雰圍氣가 日常的으로 造成되어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Ⅱ. 目標管理技法과 家計支出設計의 方向

目標管理技法에 따르면 먼저 家計에서 目標을 設定해야 한다. 目標가 現實的인 것이고 達成possible한 것으로 되기 爲해서는

① 여러 가지 欲求들을 모두 列擧하고 이것들의 相對的 重要性 順位를 생각하고

② 家計의 모든 所得(俸給, 諸手當, 債與金, 精勤手當 等)을 推算하고

③ 家計收入에 맞도록 目標(欲求)들을 選擇・調整하여야 한다.

다음 段階는 行動計劃 卽, 目標을 가장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爲하여 戰略을 세우는 일이다. 家計의 生活設計에 있어서 이것은 消費, 支出, 貯蓄 및 投資에 關聯된 決定을 말한다. 決定을 할 때는 家口主의 一生週期(Life-Cycle)에 따라 決定하여야 한다.

家計의 所得은 消費支出과 貯蓄 및 投資로 크게 兩分된다. 여기서 留意할 것은 대부분 將兵家計의 所得이 一定하여 現在 消費를 1원 늘리면 貯蓄 및 投資源이 1원 줄게 된다는 事實이다.

現在의 消費支出은 다시 支出項目들과 保護의 保險 등으로 區分되며 다시 支出項目들은 可變的인 것과 不變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可變的의 支出項目은 飲食, 被服, 家具什器, 住宅置裝, 家庭用品, 各種 購物, 交通費, 醫療, 美容, 娛樂, 餘暇活用費, 其他(文具, 郵便, 新聞, 雜誌 等)와 같이 不規則的으로 短期的 基礎에서 發生하며 支出金額에 있어서 상당한 起伏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 實際로 飲食에 있어서 미끼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생선, 파춌복 대신 간편한 既成服, 택시타는 대신 電鐵이나 버스 이용 等 起伏이 크게 있는 것이다. 反面 不變的의 支出項目(Fixed Expense)은 住宅(집세, 融資元利金 償還 等), 租稅公課金(電氣, 水道, 오물세 等), 月賦金, 保險, 教育費, 會費, 定期積金 等과 같이 規則的으로 一定額(약간의 기복은 있으나)이 長期的 基礎 위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消費支出을 兩分하는 理由는 現在의 消費支出을 줄이고 貯蓄을 늘릴 必要가 없을 경우 1次的으로 可變支出項目을 면밀히 檢討 節約할 수 있는 與否를 發見하고, 그

以上の 節約이 可能할 때 不變支出項目을 檢討 調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家計所得 가운데 消費支出로 쓰이지 않는 部分, 卽 貯蓄과 投資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安全指向的인 것과 成長指向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安全指向的인 貯蓄 및 投資에는 銀行貯蓄豫金, 國公債, 生命保險, 人間資本(教育 等)에 對한 投資, 住居用 住宅의 購入이 包含된다. 우리 나라처럼 인플레이션의 痼疾化, 慢性化 되어 있는 狀況下에서는 住宅은 資産增殖의 가장 좋은 手段으로 되어 있었다. 一家口 一住宅인 경우 無住宅 將兵이 겪는 不安定한 生活基盤을 安定化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安全指向的인 投資로 看做할 수 있다.

한편 成長指向的인 投資에는 株式 및 會社債의 購入, 不動產 購入, 貴金屬 사두기, 退職後의 設計支出 等이 包含된다.

目標管理模型의 세번째 段階는 行動計劃의 實行이다. 앞의 段階에서 目標들이 明示的으로 設定되고 行動計劃이 實踐性이 있도록 짜여진 것이라면, 計劃을 實行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家計의 生活設計가 當初에 家計構成員들의 心理의 理由 때문에 非合理的인 要素가 包含되었을 때는 實踐不可能한 것으로 判明된다. 이 경우에는 行動計劃의 實行段階에서 蹉跎을 가져오게 되므로 目標設定 및 行動計劃을 다시 調整해야 된다.

네번째 段階로서 週期的의 檢討가 있어야 한다. 家計의 生活設計에 있어서는 잘 變化하는 與件에 잘 修正하는 것이 核心이다. 만일 時間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與件變化가 累積됨에도 不拘하고 週期的의 檢討를 통한 必要한 修正을 삼는다면 家計生活設計의 現實性을 잃고 때로는 危險한 경지에도 이르게 된다. 따라서 週

期的으로 明示된 目標을 向한 進陞狀況을 來檢하고 必要에 따라 目標의 이를 達成하기 爲한 戰略 行動計劃을 修正해야 한다.

이와 같이 週期的 檢討는 將兵의 一生週期와도 緊密하게 關聯된다. 前章에서 이미 言及한 바 任官, 結婚 및 家庭形成, 進級, 子女教育, 退職, 老後生活에 따라 重大하고도 深刻한 生活設計의 檢討가 要望된다. 그러나 生活設計의 伸縮性을 強調한다는 것이 곧 家計生活設計의 基本模型 自體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며 目標管理技法의 意思決定模型은 그대로 持續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라살림이나 部隊살림이나 家計살림이나 어느 것을 막론하고 收入과 支出을 짜임새 있게 運營하려면 豫算을 세워야 한다. 豫算은 家計에서 主婦들이 月給봉투를 받는 즉시 여러 가지 支出項目別 봉투들에 나누어 두고 한 달간의 支出 및 貯蓄生活을 해야 하며 每支出 때마다 이를 다시 帳簿(家計簿)를 記錄해야 하는 것이다. 家計支出設計의 方向을 具體的으로 들어보면

① 非正常的인 支出을 精密하게 調查해야 한다. 지난 몇년간의 平均的인 支出水準을 거울삼아 非正常的이거나 豫想하지 않았던 支出項目들을 찾아내어 그것이 과연 必要不可避했던 가를 음미한다.

② 支出擔當者가 돈을 管理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家口主가 住宅의 購入, 保險과 같은 比較的 巨額 및 例外的인 支出에만(例外管理의 原則) 責任을 지고 나머지는 月給봉투에 따라 主婦가 支出責任을 가진다면, 그에 必要한 돈 管理는 主婦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 家口主(將兵)와 主婦(사모님)가 서로 別途의 通帳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다. 空軍이 實施하고 있는 家計手票制度에 따라 日常金은

月給봉투에 巨額 또는 例外的인 것은 家計豫金으로 家口主가 手票로 保管 管理함도 바람직한 것이다.

③ 貯蓄에 항상 留意하여 生活해야 한다. 資本主義 經濟社會에서 家計生活의 安定 및 經濟的 成功은 結局 家計가 所有하는 資産(또는 富)의 多少에 依하여 決定된다. 資産을 蓄積하는 正常的인 手段이 貯蓄이다. 즉 家計의 生活設計에 있어서 가장 戰略的인 要因은 바로 貯蓄이다. 항상 一定期間의 消費支出이 그 期間의 諸給 受領額을 超過치 않도록 하며 貯蓄餘力을 키워야 한다. 將兵中에는 때로는 赤字家計를 運營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지난날의 貯蓄을 蠶蛾하거나 借用하게 된다. 一定한 給與에 있어서 「오늘 氣分이다」 2次 3次 들이키는 例는 貯蓄生活에 절대 禁物이다. 이는 훗날 購入할 수 있었던 어떤 資産을 포기하는 셈이 되고, 또한 未來의 所得을 앞당겨 써 버리는 셈이 된다는 機會費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④ 家計의 生活設計는 長期的 觀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長期的 計劃이어야만 인플레이션, 각종의 非常事態, 個人的 災難 등과 같은 狀況의 豫測不可能性을 極小化할 수 있다.

⑤ 生活設計는 되도록 簡單하여야 한다. 簡單한 形態의 金錢出納簿나 家計簿를 利用하여 記錄이 容易하고 週期的 再檢討를 通하여 實際支出이 計劃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⑥ 家計의 生活設計가 家口員을 爲해서 必要한 것이지 生活設計를 爲하여 家口員들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을 알아야 한다.

⑦ 家計의 生活設計指導를 專門家等 外部로부터 얻을 수 있는 機會를 積極活用하는데 게을리 말 것이다. 各種의 消費者 團體, 主婦들



모임들이 베푸는 健全生活設計를 爲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過去 우리 將兵家口들은 이런 面에 소홀했던 點은 고사하고 消費風潮가 오히려 만연했던 事例도 있었다. 貯蓄한 것 하나 없이 退職後 비참한 生活을 하는 先輩가 한 둘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 Ⅲ. 家計支出의 具體的 設計

#### 1. 消費支出의 設計

將兵들의 家計中 消費支出을 크게 支出項目과 保護의 項目으로 兩分하였고, 支出項目들은 다시 可變的 支出項目과 不變的 支出項目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家計의 健全한 生活設計를 爲해서는 不規則的으로 發生하는 可變的 支出項目들이 非正常的으로 붙어나지 않도록 豫防하여야 한다는 事實을 強調했다.

우리는 여기서 家計가 諸給與所得의 태두리를 벗어난 커다란 支出需要에 直面하여 可變的 및 不變的 支出項目을 줄일만큼 줄이고 過去の 貯蓄으로부터 動員할 수 있는만큼 動員한 것으로도 不足하여 他人으로부터 借用해야 하는 消費者 信用의 문제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他人으로부터 金融을 賃借하는 일에 對하여 傳統社會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律法처럼 되었다. 그러나 家計의 生活設計에 있어서 이 같은 患害는 그대로 有効性을 가지지 못한다. 將兵들의 所得 흐름은 그의 一生週期에 따라 任官期의 낮은 水準에서 점차 上昇하여 40대 서부터 進級 等과 더불어 絶頂에 이르렀다가 退職과 同時에 勤勞所得의 흐름은 거진 全無하게 減少되고 財産所得(退職年金 等)에만 依

存하게 된다. 그러나 消費支出의 흐름은 一生에 걸쳐 거의 비슷한 水準으로 나타난다.

任官 直後에는 여러 가지 事業(?)에서 赤字 人生이었다가, 結婚하여 家口를 形成하고 耐久製品이나 住宅마련 준비 등의 支出需要가 큰 反面에 給與水準은 낮아 一生中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消費者 信用制度나 當軍에서 全員 加入하고 있는 家計手票의 當座 貸越制度가 家計生活設計에 슴통을 열어주는 매우 價値있는 手段으로 될 수 있다.

換言하면 信用이나 貸越制度는 必要할 때 必要한 것을 갖도록 하며 現在 欲求가 있는 資産을 얻는 代身 그 代價를 점진적으로 支拂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肯定的으로 理解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돈을 벌려는 사람이나 外上을 일삼는 사람은 節約과 責任感이 不足한 사람으로 보고 남에게 信用을 베푸는 사람은 존경을 얻고 있다. 그러나 負債 그 自體는 善도 惡도 아니다. 다만 重要한 問題는 負債를 진 다음 그것을 自身의 資産으로 갚아 나갈 能力이 있느냐의 與否이다.

그러나 어느 將兵家計나 수구든지 無限定 借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借用等級(쉽게 軍內에서 階級이라고도 할 수 있다)에 따라 決定된다. 一般的으로 借用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適用되는 4가지 基準이 있다고 한다.

- ① 人品(Character)—正直性, 責任感, 信賴性 그리고 金錢的 責任의 記錄
- ② 能力(Capacity)—現在 및 未來의 收入能力, 債務償還能力
- ③ 資本(Capital)—融資에 對한 擔保物로서 金錢的 資源
- ④ 信用等級(Credit Rating)—債務償還의 全

## 般的 能力

換言하면 職業, 所得, 住居, 金融機關去來, 負債記錄, 爭訟, 人品 等이 金融機關으로부터의 消費者 信用을 決定하는데 重要하게 作用하는 要因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요즈음 이 信用測定은 機械的이긴 하나 Computer의 應用으로 各 個人的 住民登錄番號만으로 各種 負債 等의 期日內 償還與否, 支拂能力, 심지어는 生活方法까지도 分析推理할 수 있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消費者 信用을 얻을 수 있는 源泉은 銀行機關(特히 國民銀行, 住宅銀行), 信用協同機關(마을金庫, 信用相互金庫), 各種 保險, 契, 親知, 戰友 等이다.

家計가 消費者 信用을 求함에 있어서 留意해야 할 것은 以上과 같은 여러 가지 信用源泉들로부터의 信用들이 가지는 條件들(利子, 期間, 擔保要求有無等)을 자세히 比較 檢討한 다음에 決定하여야 한다. 空軍은 이의 決定을 專門分野인 管理參謀가 助言하여 指揮官이 指示하게 되는 바 將兵 個人的 檢討時間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다. 或者는 「強制貯蓄指示이다」는 등 不信風潮는 本人에게 不利해진다라는 點을 알아야 한다.

各種 信用條件들에 共通 檢討事項을 들면 利子, 期間, 擔保要求(有無)外에 契約書의 작은 글자까지 빠뜨리지 않고 읽어야 한다. 信用기관이라는 假面下에 消費者를 울린 예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信用販賣, 現金價格割賦販賣, ○○○會員 募集(販賣目的) 等 廣告物만 믿고 그대로 購入, 加入을 서두르지 않도록 特히 注意하여야 한다.

空軍將兵들은 대개 學校教育을 必하자 마자 飛行教育 其他 各種 特技教育 修了後 바로 Base 等에 배치되어 部隊業務들에만 專念하다 보면 약삭 빠른 商去來 等의 物情에는 어둡게

마련이다.

割賦販賣라는 것은 흔히 相當한 金利負擔을 包含하는 것으로 現金購買보다 不利한 경우가 흔하다. 「外上을 값 덜하기 만루」하고 貸損豫定率만큼 더 原價에 包含시키는 것이다. 같은 種類의 商品도 販賣(Sale)商에 따라 다른 條件으로 信用 販賣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販賣商들의 販賣條件들을 면밀히 比較 檢討하는 일도 重要하다. 그리고 요즈음 盛行하고 있는 Credit Card 等도 多少間의 差異點이 있으므로 이것을 選別 加入하는 努力이 必要하고 이를 가졌다고 過度한 購買를 삼가도록 節制해야 함은 勿論이다.

다음으로 保護的 保險의 문제를 다뤄보면, 여러 가지 保險은 共히,

- ① 반드시 必要한 金額만큼 保險을 購入토록 해야 한다.
- ② 保險을 購入한만큼 投資할 수 있는 資産(現金)이 減少되는 것임을 銘心할 것.
- ③ 保險外販社員들의 달변에 또는 氣분에 左右되어 加入치 말 것.
- ④ 加入시 반드시 部隊의 專門部署에 문의가 必要하다. 같은 Uniform 입은 戰友以上 더 믿을때는 드문 일이다.

以上과 같이 함으로써 첫째로 스스로의 危險부담을 줄이는 同時에 많은 위험에 대한 保險을 얻어야 하고, 둘째로 契約에 앞서 料率을 比較하여야 하고, 셋째로 먼저 스스로 모든 위험에 對한 예방대책을 강구 生活化하여 危險自體가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他 職場人들보다 空軍將兵들은 더 우수하다고 본다. 平常의 安全活動, 치밀正確한 部隊生活이 習性化되어 있다고 보나 항시 위험은 쫓아 다니게 마련인 故로 最小限의 保險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貯蓄 및 投資의 設計

貯蓄 및 投資에는 Sid Mittra에 의하면 安全指向型과 成長指向型으로 區分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無視하는데 그 理由는 예컨대 不動產의 경우 과연 어디까지가 安全指向的인 것이며 또 어느 것부터가 成長指向的(投機的)인 것인지를 實際로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銀行貯蓄과 住宅마련에 대한 設計를 다루고자 한다.

### 가. 銀行貯蓄의 設計

目標管理技法에 依하면 貯蓄과 相關하여,

- ① 貯蓄動機를 明示할 것.
- ② 貯蓄目標額을 가급적 正確하게 決定할 것.
- ④ 貯蓄資金을 安全하게 投資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手段들의 長點을 評價할 基準을 開發할 것.
- ④ 이러한 基準에 따라 貯蓄欲求에 가장 適合한 貯蓄手段을 選擇할 것이다.

貯蓄動機로는 空軍將兵이라고 例外는 아니나 아래와 같은 類型이 一般적이다.

• 意外의 事故나 疾病時에 依存할 수 있는 非常基金을 마련하는 動機

• 住宅마련을 爲한 動機

• 子女 教育을 爲한 動機

• 趣味生活 營爲 爲한 動機

• 老朽生活 대비 爲한 動機(退職後) 등 여러 動機나 모든 動機를 充足키 爲해서는 現在의 消費支出이 過度하게 壓迫을 받지 않도록 貯蓄目標을 設定해야 한다. 貯蓄目標設定 要領으로는 다음 7가지 段階를 들 수 있다.

① 貯蓄動機를 再考하고 貯蓄目標을 現實化한다. 最高級住宅, 世界一週 豪華旅行 等の

過慾을 삼갈 것.

② 未來의 欲求를 正確하게 決定한다. 豫想치 못한 災難에 對한 對備를 檢討한다.

③ 金錢의 負擔을 檢討한다. 子女의 經濟的 獨立時期 等を 생각한다.

④ 年間總所得(諸給與)을 推算한다.

⑤ 正常的 年中 生計費를 推算한다.

⑥ 最小限의 年中行事費를 推算한다.

⑦ 年中 總所得에서 生計費, 最小限의 行事費를 控除하여 當年中에 貯蓄할 수 있으리라 고 期待되는 金額을 算出한다.

이렇게 推算한 貯蓄可能額을 길잡이로 해서 長期的 貯蓄計劃을 세울 수 있다. 卽 앞으로 每年 豫想할 수 있는 貯蓄의 元利合計額이 一定期間 經過後에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 한편 目標年度의 目標貯蓄金額을 얻기 爲해서 올해부터 얼마만큼의 貯蓄을 蓄積해 나아가야 하느냐를 試算할 수 있고, 이것을 貯蓄可能推算値와 比較해 볼 수 있다. 貯蓄手段을 選擇하는 경우 利用할 수 있는 基準으로서 ① 安全性, ② 流動性, ④ 簡單性, ④ 特別서비스, ⑤ 收益性 그리고, ⑥ 稅制上 惠澤과 같은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銀行破産例가 없으므로 銀行豫金の 安全性은 문제되지 않는다. 流動性이란 즉시 現金으로 바꿀 수 있는 性質이기 때문에 換金性이라고도 한다. 모든 金融資産들은 去來가 簡單하다. 銀行豫金の 경우 最低殘高에 對한 強制規程이 없는 것이나 短資나 投信의 경우 最低去來限度가 있다. 銀行은 租稅公課金收納, 手票發行 等 課外의 서비스를 提供하며, 利子 等の 收益을 貯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利子所得에도 稅金이 賦課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財形貯蓄, 家計綜合豫金, 國

公債 等은 免除되는 것들이다.

利子計算에도

① 複利가 單利보다 有利

② 높은 利子が 낮은 利子보다 有利

③ 利子を 複利로 頻度높게(자주計算) 計算하는 것이 低頻度보다 有利. (例컨대 年利率 5%인 경우 每分期計算은 5.0945%, 每月計算은 5.116%, 每日計算은 5.1265%)

④ 利子先拂이 後拂보다 有利 等の 常識을 念頭해야 한다.

貯蓄機關으로는,

一般銀行과 特殊銀行들이 있다. 이들은 前述한 여섯 가지 選擇基準에 대체로 合格하는 手段이다.

그 밖에는 信用組合, 마을金庫 等 信用協同機關들이 있다. 이들은 收益性이라는 側面에서는 銀行豫金보다 有利하지만 他側面(安全性, 其他 서어비스 等)에서는 相對的으로 不利하다.

그 밖에 國公債는 收益性에는 뒤지지만 安全性, 稅制上 惠澤 等에서는 앞선다. 그 밖에 契 또는 私債같은 私金融의 手段도 있다.

契는 會員들간의 親睦도모란 側面 하나만의 뜻이므로 契도입 없이도 空軍將兵은 누구나 生活를 같이 하는 親睦 以上の 유대가 기왕에 定해지고 있으므로 구태여 收益性도 높지 않고 安全性이 極히 低調하여 健全한 家計를 爲해서는 기필코 回避해야 하는 것이다. 私債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 나. 住宅마련 設計

空軍 營外將兵들은 대개는 官舍 등의 혜택을 우선은 받고 있으나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基本動機임에는 누구나 부인 못할 것이다.

住宅購入(또는 建築)을 通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經濟的인 側面과 非經濟的인 側面이 있다. 經濟的인 側面이란 住宅所有의 投資側面을 말한다. 그리고 非經濟的인 側面이란 所有者가 健實하고 成功的인 市民임을 남에게 알리는 社會的 地位이며, 自身에게도 그것을 다짐하는 主體性으로서 住宅의 機能을 말한다. 이 두 가지 側面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住宅마련이 經濟的으로 合理的인 基準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더구나 우리 經濟社會처럼 좁은 國土에 많은 人口(특히 空軍將兵 生活주변)를 가지고 있으며 慢性化된 인플레이션 狀況下에서는 住宅이 資產價値의 保全은 勿論, 增殖에 가장 最効한 手段이었으므로 내 집마련의 熱氣는 不動產 投機風을 再燃시키곤 하였고 아직도 그 불씨가 살아있어 高級 아파트 分讓時에 나타나곤 한다.

그러므로 家計가 一生週期(Life-Cycle)에 걸친 長期生活設計를 세움에 있어서 生活基盤을 安定시키고, 資產을 늘리며 老朽生計를 依託하고 死後에 子女에게 가장 適合한 形態의 것으로 住宅에 가장 큰 力點을 두어야 한다. 然이나 今日과 같이 住宅價格이 높은 水準에 머물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無住宅 將兵들이 住宅마련 하기에는 年中無休 勤務보다 훨씬 어렵다 하겠다.

爲先 住宅所有와 賃貸를 對比해 볼 必要가 있다. 普通 高級住宅使用料(傳賃)와 庶民아파트 價格이 비슷하다. 따라서 現在의 純粹經濟的 觀點에서만 따져보면 住宅所有와 賃貸가 優劣을 가리기 어려우나 住宅의 非經濟的 側面과 住居用 以外的 用途로도 쓰인다는 點을 고려한다면 賃貸보다 所有가 有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住宅所有의 어려움은 資金所要가 正常所得

水準에 比하여 엄청나게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住宅購入을 爲한 金融問題가 크게 提起된다. 住宅金融制度가 크게 發達되어 있는 先進諸國에서는 現金一時拂의 比率이 낮고 融資金이 長期低利로 供給이 되어 勤勞者 家計들이 比較的 容易하고 所望規模대로 住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住宅銀行에서 가장 有利한 條件으로 提供하는 福祉住宅資金도 最高限度가 아직도 住宅價格에 比해 낮게 設定되어 있어 無住宅將兵들이 內 집을 마련하려면, 傳費로부터 10坪 內외의 聯立住宅을 거쳐 점차로 坪數가 家族數에 適合한 國民住宅規模(25.7坪)에 이르도록 所有住宅의 時價上昇에 그동안의 貯蓄을 追加하여 여러 段階를 거치는 어려움을 經驗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渦中에서 將兵들의 所有住宅은 農漁村 住宅과는 달리 長期間 一定하지 않고 隨時로 바뀌는 實情에 벗어나지 못한다.

내 집 마련을 爲해서는 公的 金融機關들로부터의 融資金を 利用할 뿐만 아니라 汗뿐이라도 貯蓄을 一慣性 있게 計劃을 밀고 나아가간다면 住宅마련이 결코 不可能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처음부터 過慾으로 큰 規模 좋은 位置의 住宅만을 고르지 말고 작은 規模(維持費도 고려) 다소 不利한 位置의 住宅부터 고려한다는 思考方式이 現實的이다. 換言하면 처음부터는 住宅의 非經濟的 側面(社會的 地位=階級等)에 영향을 排除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將軍이 그런 집을 사느냐」는 등의 말은 先進 資本主義에서는 通하지 않는 말이다. 首相을 지낸 사람도 집이 없으면 傳贖金세를 다시 질 수 밖에 없는 例도 보고 있는 우리로서는 銘心할 事實이다.

그리고 住宅等 不動產市場은 매우 不完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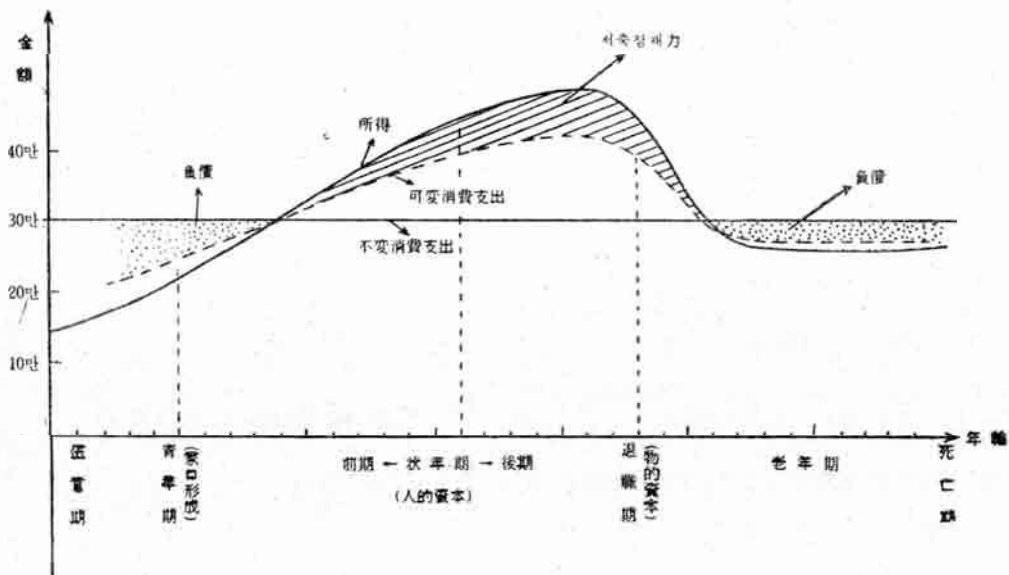
한 市場이므로 同一條件의 住宅이라도 價格差異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따라서 住宅購入에 앞서 여러 地域의 많은 住宅들을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고 都市計劃等은 關係參謀(施設)에도 문의해 볼 것이며, 稅法이 자주 바뀌므로 最新의 情報을 얻도록 努力해야 하는 등 將兵經濟教育等에도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IV. 家計收入의 設計

空軍將兵 家計의 所得 흐름은 주로 家口主(將兵自身)의 一生週期에 따라 年齡別 特徵을 가지고 나타난다.

家計가 所得을 얻게 되는 根源을 크게 人的 資本(Human Capital)과 物的 資本(Physical Capital)로 兩分할 수 있다. 人的 資本으로부터 發生하는 所得을 勤勞所得(俸給, 手當等)이라고 부르고, 物的 資本으로서 얻는 所得을 財產所得이라 한다. 人的 資本이란 教育, 技術習得, 健康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無形의 것인 反面에 物的 資本은 所得 가운데 現在의 消費支出되지 아니한 部分 卽 貯蓄이 累積되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有形의 收益性 資産으로 構成된다. 여기서 資本이라고 불리는 것은 時間에 걸쳐 所得의 흐름을 發生시키는 모든 源泉을 말하며 資源이라고도 일컫는다.

家計의 살림을 보다 質的으로 運轉하게 하고 生産水準을 向上하기 爲해서는 家計支出水準에 對하여 制約條件으로 作用하는 家計의 所得흐름을 增大시키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 家計의 所得흐름을 增大시키는 것은 곧 그것의 源泉인 人的 資本과 物的 資本을 蓄積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家計의 生活設計를 論할 때에는 所得의 흐름을 一定하게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制約條件下에서 家計支出의 合理化에만 置重하는 傾向이 支配的이다. 이것은 一生週期의 어느 한 段階나 어느 한 期間에서의 生活設計를 다룰 때는 妥當한 接近方法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家口主의 一生에 걸친 長期 生活設計를 다룰 때에는 所得의 흐름을 보다 根本的으로는 人的資本과 物的資本의 增大方案을 學論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그림은 한 家口主가 青年期에 家口를 形成한 時點부터 死亡에 이르기까지 所得흐름과 消費支出 흐름을 보인다.

消費支出흐름은 一生에 대체로 同一한 水準(不變消費支出)을 維持하는 것과 可變消費支出를 維持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所得의 흐름은 대체로 青年期(尉官級)로부터 점차 進級 등으로 因해 增大하여 壯年期에 絶頂에 이르렀다가 退職과 더불어 半減하게 된다. 따라서 壯年期 初의 貯蓄으로 青年期의 負債를 상환해야 하며 後期의 貯蓄으로는 老年期의 生活

手段으로 支出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一般的으로 任官後 5個年까지 青年期에는 結婚이다, 家具장만이다 등 財産形成에 급급한 나머지 負債로 生活한다고 보고 그 후 壯年期 前半 5個年間은 青年期의 負債生活과는 달리 貯蓄이 可能한 것이다. 그 후 10개년 間은 可變消費支出도 增加하나 貯蓄餘力이 있어 一生週期에 걸친 長期生活設計의 要諦이다.

사람이 出生한 時點으로부터 養育, 教育, 訓練 등을 通하여 꾸준히 人的資本을 쌓아 青年期에 이르러 任官, 經濟의 自立, 結婚을 通하여 家口를 形成하게 됨을 나타낼 수 있고 人的資本으로 發生하는 勤勞所得을 모두 消費支出하지 않고 貯蓄의 知慧를 發揮하여 物的資本을 蓄積해 나아가며 退職時까지 쌓아 올린 物的資本을 根據로 해서 老後生活을 維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物的資本도 根本的으로는 人的資本으로부터 由來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家計의 生活水準을 提高하기 爲해서는 消費 및 貯蓄行爲를 合理的으로 運



營하여야 함은 勿論, 보다 根源的으로는 人間資本을 增大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내 任官과 結婚으로 한 獨立된 家口를 形成한 다음 家口主가 다시 正規學校 敎育을 履修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OJT, SOC, CSC 其他 諸般 補修敎育 등을 通하여 人的資本을 青年期에 이루어진 一定한 水準에 머물도록 하지 말고 可能하면 退職時까지 不斷한 研磨를 通하여 人的資本이 繼續 자랄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이 現代社會에서 競爭에 이기고 家計살림을 安定化 또는 向上시키는 길이다. 어제의 知識과 技術이 오늘에 老朽化될 만큼 急變하는 社會 속에서 계속적인 努力으로 人間資本을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人間資本의 價値가 잠식되어지고 심지어는 뜻밖의 失職狀態를 맞이하게 될 公算이 크며 이때 대응책이 막연한 것이다.

換言하면 急變하는 社會에서는 人間資本의 不斷한 蓄積勢力이 없이는 現狀維持조차 어렵다. 하겠다. 實事 現狀維持가 目標라고 하더라도 蓄積努力이 있어야 한다.

人間資本의 增大를 爲하여는 역시 目標管理

技法에 따라 目標設定, 行動計劃, 自己統制, 週期的 檢討의 順序로 反復하여 所望스럽다.

人間資本이 家計生活設計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에 비추어 子女의 敎育에 對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높은 關心度(「논팔아 굶더라도 子息 工夫는 시킨다」)는 空軍將兵들도 例外는 아니라고 본다.

## V. 結 言

한 經濟社會의 一翼인 空軍에 있어서도 消費 및 貯蓄行爲에 關한 가장 基本的 意思決定單位는 家計인데 이 意思決定을 個人金融理論에다 目標管理技法을 導入 풀이하면서 將兵들의 一生週期에 如前히 家計收入 및 支出設計를 소망스럽게 할 것이냐를 풀이해 본 결과 역시 貯蓄할 수 있을 때는 서슴치 말고 貯蓄할 것이며 人間資本 形成에 力點을 두고 長期生活設計를 세워 銀行貯蓄에 專念해야 할 것이다.

### < 參 考 文 >

1. 韓國人的 長期生活設計 研究, 金秉柱 博士 著, 1980.
2. 貯蓄 어느 것이 有利한가. 東亞日報, 1981. 11. 25.
3. Mitra Sid 著 "Life-Time Management of Objectives". New York Harper & Raw 1977.

×

×

×

<연재(2)>

# 보라매 日記

점윤섭



反共教育

# 레닌主義 批判



少領 徐 弘 教

## 序 論

오늘날 世界가 兩大陣營으로 分裂됨으로써 共產主義가 世界人口의 3분의 1을 占有하게 된 것은 바로 1971年 10月 러시아에서 볼셰비키에 의한 共產主義 革命이 成功한 후였다<sup>1)</sup>.

原來 마르크스의 理論에 의하면 獨逸이나 英國, 佛蘭西 등 西유럽의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일어날 것으로 豫測했으나 오히려 資本主義的 工業生産體制가 가장 後進의인 水準에 머물렀던 러시아에서 共產革命이 要求되었는데, 이는 마르크스主義를 信奉하면서 當時 러시아 現實에 알맞게 革命理論을 實際로 適用하고 實踐해 온 革命指導者인 레닌(Vladimir I. Lenin, 1870~1924)이 그 장본인인 것이다<sup>2)</sup>.

### 가. 레닌主義의 定義와 內容

이와 같이 레닌은 마르크스主義에 立脚한 劃

期的 變化와 適應을 러시아 땅에 부식시킴으로써 오늘날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로서 흔히 마르크스·레닌主義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와 密着된 不可分의 關係로서, 스탈린 獨裁 以後 共產主義를 追從하는 모든 勢力에게 教科書的 役割을 하기 始作했다.

오늘날 레닌主義의 定義는 스탈린에 의한 것으로, 「레닌主義는 帝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革命時代의 마르크스主義이다. 더 正確하게 말하면 레닌主義는 一般的으로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理論과 戰術이며, 특히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理論과 戰術이다」고 規定하고 있다<sup>4)</sup>.

스탈린은 그의 著書 「레닌主義의 諸問題」에서 言及한 主要 內容을 ① 帝國主義에 關한 問題, ②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關한 問題 ③ 黨의 役割에 關한 問題, ④ 勞農同盟 問題, ⑤ 民族과 植民地 問題 등으로 區分하였다.

아울러 레닌主義는 볼셰비즘(Bolshevism)이며, 黨은 곧 프롤레타리아 革命 내지 獨裁의 理論과 戰術로서 마르크스主義를 러시아에 適應시킨 理論이며, 마르크스主義를 政權掌握의 手段으로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한편 레닌主義 特徵에 對한 살바도리(Mas-sino Salvadori) 教授의 解釋을 보면, ① 暴力 革命論, ② 前衛黨과 職業革命家論, ③ 帝國主義論, ④ 勞農同盟論, ⑤ 프롤레타리아 階級 獨裁論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sup>6)</sup>.

이처럼 레닌主義의 特徵은 그의 獨特한 革命手段에 있으며, 레닌을 위시한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實現을 위해 第一段階는 支配階級을 打倒하기 위한 暴力革命을 提唱하고, 暴力革命에 의한 프롤레타리아가 掌握한 國家權力을 守護하고 反對 階級을 消滅하기 위한 所謂 프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實施해야 한다는 것이다.

即, 資本主義 社會의 卽刻的이고, 進步的인 顛覆을 위해 暴力, 武力에 의한 手段의 使用을 提唱한 것이 또한 레닌主義의 核心이 될 수 있다.

## 나. 레닌의 러시아革命 適用

20世紀에 들어가기까지 러시아는 아직도 後進國家였고, 近代産業의 發達は 初步的 段階을 벗어나지 못하고 國民의 大多數가 文盲의 農民들로서 傳統的인 生産方式을 踏襲하고 있는 形便이었다. 그 동안 짜아르體制의 傳統的 保守性 때문에 當時 革新主義的 知識層은 러시아의 後進性에 對한 不滿이 漸次 高潮되어 갔으며, 1905年 露·日戰爭에서 러시아가 近代化가 된 日本帝國에게 敗하게 되자, 이들의 不滿은 極度로 惡化되었다. 特히 西歐의 發展相에 눈을 돌리고 거기서 自身의 後進性을 克服하고 하나의 突破口를 찾아 보려고 했다.

當時 마르크스理論이 새로운 急進思想의 形態로 유럽에 登場하게 되자, 많은 러시아인들은 이를 自己들의 問題에 對한 하나의 解決策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마르크스의 革命思想이 러시아인들을 完全히 滿足시켜 주지 못하였고, 마르크스가 提示한 約束은 모두가 近代工業社會의 後期段階, 卽 成熟段階에 到達한 工業社會에서 實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卽 資本主義 體制가 高度로 發達하여 하나의 프롤레타리아 階級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 勞動者階級이 急成長하여 資本階級을 寸자적으로 完全히 壓倒할 수 있을 때에 프롤레타리아革命이 發生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러한 理論은 아직도 初期 資本主義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러시

아에서는 하나도 適用되지 않았고, 農民과 地主의 國家였던 러시아는 少數의 工場 勞動者로만 存在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이들보다 적은 資本家로만 하나의 階級을 形成하기는 더욱 어려운 實情이었다.

따라서 辨證法的인 原則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相當한 期間에 걸쳐 資本主義의 成長이 必要한 것이라는 論理가 생긴다. 이러한 論理가 마르크스 理論과 實際的 러시아의 適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아직 弱勢한데다 그에 맞선 資本階級도 한층 더 虛弱한 存在였고, 無能한 帝政 러시아의 짜아르體制는 그 支持基盤을 거의 喪失함으로써 必야호로 革命的 氣運이 감돌았고, 라로 이러한 狀況에서 政治的 手腕과 感覺이 機敏한 레닌이 러시아의 狀況을 感知하고 少數의 革命組織을 마르크스主義로 武裝시켜 革命을 遂行할 準備를 하고 있으면서 그 適切한 機會가 곧 다가올 것으로 豫想하고 짜아르 政府에 대한 崩壞活動의 手法으로 그의 獨特한 黨理論을 展開함으로써 그는 正統 마르크스理論을 회생시키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觸發을 合理化시킬 수 있는 理論을 提起하게 된 것이다7).

## 레닌의 諸 理論

### 가. 獨占資本으로서 帝國主義

1916年 帝國主義論은 1916年 레닌의 著書 중 영향력이 큰 책으로써 헵슨(Hobson)의 「帝國主義論(1902)」과 힐퍼딩(Hufferdin)의 「金融資本論(1910)」에 根據를 두고 著述했다8).

레닌은 生産革命이 資本主義가 發達되지 않

은 後進國인 러시아에서 오히려 容易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理論的 根據을 提示한 것이 바로 帝國主義 理論으로 合當化시켜 놓았다.

西歐의 高度로 發達된 工業國家들은 第1次 大戰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植民地 獲得競爭을 벌였다. 이러한 現象을 레닌은 마르크스主義의 用語로 分析하여 資本主義 腐敗의 典型的 증상이라고 했다.

帝國主義는 1915年 레닌이 「社會主義와 戰爭」에서 20세기에 비로소 到達한 資本主義의 最高의 發展段階<sup>9</sup>)로서, 基本的 特徵은 ① 資本의 獨占 ② 資本主義의 腐敗 ③ 不均衡의 發展 ④ 帝國主義 產物로서 戰爭 등을 들 수 있다.

卽 先進 工業國家들의 계속적인 增大一路에 있는 生産製品을 國內市場에서 소화시킬 수 없게 되자, 海外로 눈을 돌려 植民地 市場을 開拓하므로 그들의 돌파구를 찾았었다.

여기서 西歐 資本家들은 막대한 植民地 勞動의 剩餘價値를 搾取할 수 있기 때문에 國內의 勞動力을 完全히 搾取하지 않아도 利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豫言과는 달리 資本家들을 구태여 國內 勞動者들의 賃金을 最低水準에 묶어두지 않고도 자신의 팽창이 可能했던 것이다. 이른바 貧困의 海外輸出이며, 이렇게 하여 資本家들은 西歐의 프롤레타리아트는 比較的 잘 살게 할 수 있었고, 先進 工業國家에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트 階級意識이 제대로 擡頭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海外 植民地를 계속 獲得하여 帝國主義가 膨脹할 수 있는 領域은 無限定 存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닌에 의하면, 各 植民帝國들이 制限된 植民地 市場을 놓고 決死的인 角逐을 벌이게 되고 이것이 帝國主義戰爭의 形態로 나타나 資本主義 發展의 最後段階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0</sup>).

第1次 世界大戰의 勃發은 資本主義가 結局 이러한 段階에 到達하였으며 高度로 成熟한 先進 資本主義 體制가 完全히 解體될 時期가 왔음을 立證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레닌은 資本主義의 崩壞가 工業國家의 中心部에서 始作되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 世界를 둘러싼 植民地域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했다. 더구나 大部分의 植民地域은 그 經濟的 落後性으로 말미암아, 世界의 어느 프롤레타리아트 보다도 오랫동안 극심한 搾取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植民地域은 어느 곳보다도 革命이 發生하기 쉬운 地域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 프랑스 등 西歐 工業國家의 資本主義 體制는 一定한 發展段階를 넘어서서 러시아, 아프리카 등 後進地域에 進出하여 植民地를 開發하고, 그 곳에서 原料를 獲得, 本國에서 工業製品화한 다음, 다시 그것을 植民地에 轉매하는 소위 帝國主義 段階에 到達하게 된다는 것이다. 레닌의 主張에 의하면 이 段階에 資本主義는 그 病弊와 矛盾을 植民地에 轉가함으로써 本國에서의 資本家와 勞動者 사이의 關係는 심한 收奪關係를 벗어나게 되며, 資本家は 勞動者の 福利를 위해 배려를 해 줄 여유가 생기는 까닭에 勞動者는 굳이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와 같은 資本主義가 아직 帝國主義 段階에 到達하지 못한 後進의인 初期 資本主義 國家에서 可能하다는 逆說的 說明에서 레닌과 마르크스의 見解差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虛弱한 짜아르 體制에 挑戰하여 革命을 成功 시킴으로써 이를 世界的 革命의 始發點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레닌의 主張이다.

이것은 레닌이 그의 祖國 러시아에 職業的 革命家 政黨을 수립하여 政權을 奪取하겠다는

野心을 合理化시키기 위한 理論의 根據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나. 共産黨의 役割

레닌은 앞서 帝國主義 理論에서, 後進地域인 러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觸發될 수 있다는 論理를 提示하면서, 한편으로 다가올 革命을 根本적으로, 이른바 革命的 勞動階級의 前衛組織으로서 黨에 의한 實踐을 強調했다(11).

여기서 黨은 一般 勞動者나 마르크스 思想의 同調者들로 構成되는 廣範圍한 組織이 아니라 마르크스 主義에 透徹하고 革命을 위해서 無條件 貢獻할 수 있는 限定된 精銳分子로서 高度로 集權化된 組織이어야 하며, 그들의 活動은 엄격한 規律 아래 秘密적으로 行해야 된다고 했다.

當時 프롤레타리아트가 많지 않고 또 어떤 形態의 政治의 決死가 許容되지 않는 러시아 社會에서 大衆政黨의 結成이 不可能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 바로 레닌의 全體主義의 政黨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西歐 政治, 社會의 政黨과는 전혀 다른 獨特한 政治組織形態로서 共産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共産革命의 目標을 効果적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前衛黨 理論이 擡頭되었다.

이는 레닌의 初期著作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1902년)에서 革命政黨이 갖추어야 할 여러 條件을 提示했는데(12), 즉 黨의 크기가 問題가 아니고 共産黨은 앞으로 雜多한 要素들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徹底하게 嚴選된 黨員들로만 이루어지는 政黨을 主張하면서 職業的인 革命家들로만 UNG겨진 共産黨에 絶對의 忠誠을 바쳐야 할 것

이며, 잘 訓練된 軍隊와 마찬가지로 上部의 命令에 無條件 服從할 態勢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完全하고 嚴格한 規律의 精銳分子들이 大衆의 여러 組織體에 浸透하여 그 組織體의 리더십을 掌握하게 되고 이렇게 그들의 手中에 들어가 組織體들은 黨의 目標을 傳達해 주는 通路, 즉 傳動帶(Transmission Belt)로 利用하게 되는 것이다. 레닌이 創案한 이 組織的인 黨은 一般的인 黨이 아니고 처음부터 戰鬥組織으로 考案된 것이며, 思想的, 軍事的인 軍隊이며, 테러로부터 話術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手段을 使用하여 파괴함으로써 權力을 탈취함을 目的으로 着案한 것이다. 여기에서 黨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으로 조직된 黨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階級中에서 戰鬥的이고 革命的인 精銳로서 組織된 프롤레타리아 前衛隊 또는 革命的인 前衛隊이며 프롤레타리아의 여러 組織 가운데 最高의 階級組織이라는 것이다.

원래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人類 自體를 解放하는 唯一하고 眞정한 革命階級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닌은 모든 프롤레타리아트 階級이 한결같이 마르크스의 階級組織으로 武裝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本質적으로 現在의 一時的 利益에 사로잡힌 奴隸로 되어 있으며, 黨에 의해 함께 이끌려 가지 않으면 부르조아 思想에 依存하는 傾向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革命的 組織分子인 黨員이 眞정으로 革命理論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正體가 한결같이 階級意識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고 프롤레타리아는 階級意識이 貧弱한 勞動組合과 같은 大衆組織과 마르크스의 階級意識이 透徹한 少數精銳의 職業的 革命家로 區分하여, 後者



에 의해 구성된 前衛黨이야말로 革命을 主導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므로 前衛黨에는 堅固한 組織성과 指導性이 必要하다. 이어 레닌은 勞動組合 등 大衆組織과 少數 精銳의 革命的 組織이 서로 區分되어야 하는 論理를 提示한 것이다.

한편 革命家 黨 組織은 全 生涯를 革命에 바칠 수 있는 職業的 革命家로서 構成되고 鋼鐵같은 團結과 規律이 必要하며 위로부터 아래로 嚴格한 中央集權體制를 이루어 軍隊처럼 組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共產黨의 特徵은 ① 프롤레타리아트의 核心的 前衛部隊로서 役割, ② 黨에서 決定된 事項은 鐵의 規律로서 貫徹시키는 中央集權의 組織 原則, ③ 프롤레타리아 階級組織의 最高 形態로서 共產黨, ④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遂行하기 위한 政治 道具, ⑤ 分派를 許諾치 않고 單一意思의 統一體, 그러나 共產黨은 黨內의 肅清을 통하여 分派活動을 배제하고 宗派分子의 過度한 制止로 오로지 黨에 忠誠하고, 忠直한 結成을 통하여 黨을 堅固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共產黨은 理論性이나 實際性으로나 一黨 獨裁이며, 自由 民主主義의 政黨과는 全然 다른 種類의 形態인 것이다. 따라서 共產黨은 戰鬥의 集團으로서의 明確한 歷史의 進路를 따라서 活動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레닌主義에 있어서 이러한 黨의 概念안에는 正義의 理想, 人道的 目的, 다른 사람들에 대한 義務의 觀念이 포함되지 않는다. 共產黨에 있어서 革命은 職業이며, 歷史의 執行者로서 正當化 된다.

## 다. 暴力革命論

마르크스主義는 國家를 支配階級の 抑壓과

搾取機關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革命을 통하여 資本主義를 顛覆하고 社會主義를 實現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本來 革命은 18세기 以後 西歐에서 封建的 專制權力的 打倒를 目的으로 일어난 革命을 마르크스主義는 브르조아革命이라 하며, 브르조아의 小市民들이 參加하지만, 革命 後에 社會의 決定的 勢力으로 브르조아지가 登場하므로 브르조아 革命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브르조아革命은 政治革命으로 끝나기 때문에 經濟的인 平等은 實現되지 않기에, 生産手段의 所有를 廢止하고 社會主義를 세워야 한다는 主張이다.

그리고 브르조아지를 打倒하고 社會主義를 가져오기 위한 改革의 主力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는 이러한 革命을 프롤레타리아 革命(社會主義革命)이라고 하고 있다. 社會主義를 實現하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가 政治權력을 잡아야 하며 政治權력을 잡기 위해서는 平和의 手段으로 議會를 合法的 方法과 非合法的인 手段에 의한 暴力鬭爭方法으로 政權을 獲得한 方法이다. 마르크스主義 暴力革命에 대해 레닌은 「國家와 革命」(State and Revolution, 1917)에서 「被 壓迫階級の 解放은 暴力革命 없이는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支配階級에 의하여 만들어진 國家 權力機關을 破壞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고 했다.

즉 國家를 階級的 對立의 産物이므로 이로 인하여 奴隸化된 階級の 解放은 반드시 暴力革命이어야 한다는 것과 資本主義, 帝國主義 時代에는 支配階級에 의한 抑壓과 搾取가 強化되므로 當然히 暴力革命의 方法을 取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는 지금까지의 일체의 社會 질서를 暴力的인 顛覆에 의해서만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宣言하고 支配階級을 共產主義革命 앞에 전을케 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있어 勞動者들은 「식사슬 외에는 잃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얻는 것은 온 世界다」고 共產黨 宣言에서 記述하고 있다.

이처럼, 마르크스主義者들은 暴力을 崇拜하고 共產主義 革命의 小形態로서 테러 戰術을 適用하는 것은 물론 政權을 掌握한 後에도 繼續的으로 暴力을 使用해 왔다.

마르크스理論에 依하면 資本主義의 經濟的 成熟은 社會主義革命의 前提條件이라고 提示했으나, 레닌은 이것을 修正하여 「오늘의 帝國主義 時代에 있어서 革命의 客觀的 條件은 一國의 經濟的 成熟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 階級 여하에 달렸으며 革命을 遂行할 主體的 力量의 成熟이 主가 된다.

따라서 「帝國主義의 식사슬이 가장 강한 國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可能하다」고 披瀝했다. 弱한 國이란, 「抑壓과 服從, 支配와 隸屬의 關係가 篤심하고 支配者와 被支配者의 對立과 憎惡의 感情이 露骨化되고 소수나마 프롤레타리아를 指導할 優秀한 前衛, 즉 共產黨이 存在하는 社會」라고 했다.

따라서, 後進國에서는 革命을 앞질러 遂行하지 않으면 안 되며 未發達된 段階에서 資本主義 最終 段階로 飛躍함으로써 社會主義 段階를 達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의 이와 같은 革命觀은 러시아 革命에서는 說明이 可能할지 모르나 오늘날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革命이 不進한데에 對해 레닌은 說明할 수 없었다.

## 라.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暴力革命으로서 브르조아지의 階級支配를

打倒하면 프롤레타리아는 自己들의 階級支配를 이룩하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 國家理論에 의하면, 社會에서 階級的 對立이 克服되면 階級的 抑壓機構로서 國家는 當然히 消滅된다. 그러나 國家의 消滅이 資本主義가 廢棄됨으로써 즉시 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르조아 階級이 權力을 잃고 財產을 뺏기지는 했어도 다시 回復할 機會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反抗이 完全히 없어질 때까지 階級的 抑壓機構로써 統治機構가 存續되어야 한다. 즉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 履行하는 過渡期에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不可避하다고 했으며, 이 때 階級鬭爭은 더욱 尖銳化되는 것이다. 레닌은 이에 대해서 프롤레타리아의 革命的 獨裁는 브르조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暴力으로서 發露되고 維持되는 權力이며, 아무런 法律에도 구속되지 않는 權力이라고 했다.

즉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政權掌握은 革命의 出發이며 終結은 아니다. 왜냐하면, 브르조아지는 權力에서 追放되었다고 해서 곧 經濟적으로 沒落해 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期間에 걸쳐서 強力한 經濟力을 持續하면서 舊制度의 分割을 企圖하여 프롤레타리아에 對한 反抗을 激化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는 權力을 強化하여 打倒된 搾取階級的 反抗을, 抑壓하면서, 그 權力을 지렛대로 삼아 搾取階級을 經濟적으로 收奪하여 이 階級을 消滅시킴으로써 人間에 依한 人間의 搾取를 根絶시켜 共產主義의 첫 段階인 社會主義를 建設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獨裁인 것이다.

以上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란 資本主義에

서 社會主義의 過渡期에 있어 唯一한 支配形態이며, 여기에서 既存의 國家機關 대신 大衆을 널리 包攝하고 創意力을 反映하여 소비에트 制度를 採擇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레닌이 實踐한 革命은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아니라 共產黨의 一黨 獨裁가 되어 버렸다.

蘇聯의 黨規約에 依하면 黨은 「社會組織, 政治組織의 最高 形態이며 소비에트 社會의 指導의 核心이다」고 規定되어 있다(13).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工業, 勞動者의 모든 階級을 打倒하는 獨裁가 아니라, 少數의 볼셰비키黨의 獨裁에 不過하며, 實際 레닌이나 스탈린의 一人 獨裁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點에서 共產主義의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結局 共產黨의 一黨 獨裁로 歸着하는데 不過한 것이다.

#### 마. 레닌의 戰略戰術

共產主義 戰略戰術은 「共產主義 革命鬭爭의 指導에 關한 科學이며 共產黨의 行動法則」이다. 따라서 모든 共產主義者들의 行動은 共產主義 戰略戰術을 法則으로 삼고, 주어진 條件에 能動的으로 適應하여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는 速度로 하나의 目標로부터 다른 目標로 移動하는 것을 生命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戰略戰術은 레닌 以前에는 마르크스·엥겔스의 短篇的 思想에 依한 社會革命을 追求하였으나 政權奪取을 위한 共產黨의 訓練, 獨裁方法 등에 對해서 組織의 이고, 體系의인 企圖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暴力革命에 關한 共產黨의 새로운 戰略戰術은 레닌에 이르러 登場하게 되었다. 스탈린에 依하면, 레닌主義의 戰略戰術은 「프롤레타리아의 階級鬭爭을 指導하는데 關한 科學」이다.(14)

即,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은 一定한 鬭爭 段階와 一定한 情勢의 科學的 分析에 黨이 만든 政治的 方針, 即 政治路線에 따라 鬭爭해야만 勝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方針 내지 政治路線을 戰略戰術이라는 概念으로 使用한다.

스탈린(1879~1953)은 戰略이란 「그때 그때의 革命段階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主된 攻擊方向을 決定하고 여러 勢力의 集結을 비롯해서 그 適切한 配置計劃을 作成하며 作成된 計劃을 그 革命段階의 全期間에 걸쳐 實現하기 위하여 鬭爭할 基本方針」이라고 定義했고 戰術은 一定한 革命段階에 있어서 革命運動의 滿潮 또는 干潮革命의 昂揚 또는 衰退 등 比較的 短期間의 情勢變動에 따라 그 時代에 알맞는 프롤레타리아트 行動方針을 決定하여 남은 鬭爭形態와 組織은 새로운 形態로, 남은 口號를 새 것으로 바꾸고, 그러한 여러 形態의 것을 結合시키는 등 戰略上 目標을 達成하도록 行動方針을 遂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共產主義의 戰略戰術은 資本主義體制을 打倒하기 위한 革命의 方向과 原則을 定立하고, 具體的인 鬭爭의 手段과 方法을 決定짓는 技術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共產主義 戰略戰術은 歷史的 節次와 社會的 環境의 變化에 따라 달라졌으며, 劃一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共通의 이고 不變의 것이 아니라 恒常 伸縮性和 適應性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레닌의 革命戰略과 戰術은 1917년 러시아 革命을 통해 이루어졌고 主要內容은 ① 革命의 時機에 對하여, 마르크스는 生産力과 生産關係를 矛盾으로 生産力이 더 以上 發展할 餘地가 없을 때를 革命의 時機로 보았지

만 레닌은 生産力의 發展程度에는 關係없이 戰鬪的 革命 集團인 共產黨이 組織되고 社會的 混亂이 極度에 達하여 支配階級の 權力이 強化되었을 때를 好機로 포착해야 한다. ②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可能한 곳은 先進 資本主義 國家가 아니라 所謂 帝國主義의 쇠사슬이 가장 強한 後進國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革命은 겨우 成長段階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階級이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貧農階級과의 同盟에 依해 遂行되는 것이다. ③ 暴力革命만이 奪權의 唯一한 手段이라고 믿고 테러活動, 武裝테모, 武裝團體에의 浸透를 통한 掌握에 온갖 權力을 傾注하였다. 卽 불세비키는 짜아르軍隊에 浸透하여 죽음의 戰線에로의 出動에 不安을 품고 있는 將兵에게 厭戰思想과 反戰思想을 鼓吹하여 이들의 총부리를 國內로 돌리게 하는데 成功시키기도 했다. ④ 레닌은 革命을 都市의 占領이 權力 奪取의 先決要件이며, 都市에서 爭取한 革命을 점차 農村으로 波及시키는 戰略을 展開하여 中國 共產黨과 다른 戰略을 낳게 하므로 러시아와 中共의 革命戰略이 相反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레닌의 戰術原則으로서 융통성과 適應性을 들 수 있으며, 테러戰術은 결코 固定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環境에 맞도록 尙상 變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로는 一步前進을 위해 二步後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15)(一步前進, 二步後退 1904).

이처럼, 레닌은 敵을 強化시키기 위해서는 그 內部에 浸透하여 民主主義의 機構의 民主的 節次를 利用하면서, 이를 破壞하고 分裂시켜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때에 따라서는 中立的 集團이나 심지어 敵과도 暫定的 聯合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戰略戰術이 變質되어 오늘날에 와서

는 世界赤化를 위한 侵略의 手法으로 갖가지 形態가 提起되고 나아가 共產主義者들의 手法으로 널리 使用하고 있는 것이 多樣하고 伸縮性 있는 戰術로 나타나고 있다. 즉 組織活動과 浸透戰術, 聯合戰線戰術(人民戰術, 統一戰線), 테러戰術, 罷業戰術, 武裝暴動戰術, 게릴라戰術, 宣傳煽動(心理戰) 등이 時·空間을 超越하여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共產主義의 戰略과 戰術은 오로지 共產革命을 達成하기 위한 謀略과 欺瞞의 術策에 不過한 것이며, 이와 같은 共產主義者들의 凶計와 陰謀는 어디에서든 活用되고 있음을 明白히 看破해야 하겠다.

## 바. 勞農同盟

레닌은 러시아에서 資本主義의 未發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勢力이 強하지 못하기 때문에 社會主義 革命의 勝利를 保障하기 위하여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理論을 提起했다(16).

아울러 레닌은 〈人民의 벗이란 무엇인가?〉에서 勞動者 階級이 勝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農村 프롤레타리아가 이것을 支持하는 것이 不可缺의 條件이다. 萬若 이러한 同盟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勞動者 階級만으로 도저히 革命에서 勝利할 수 없었으며, 十月革命도 바로 이러한 同盟의 役割이 주요한 것이다. 레닌은 勞動者 階級과 農民의 同盟을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基本原則이라고 가르치며, 이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만일 우리들이 勞動者 階級과 農民의 同盟을 破壞하거나 弱화시킨다면 우리의 任務는 남김없이 空中에 떠버릴 餘력이 있다.

특히,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광범한 農民大衆을 爭取하며, 農民과 同盟을 強化하고,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動同盟을 프롤레타리아 獨

裁의 最高 原則이라고 했다. 이러한 原則은 勞働者 階級과 그 指導 밑에 있는 勞動, 農民 大衆과의 鞏固한 團結에 있으며, 共產主義者 들이 農民과의 同盟을 絶對視하고 있는 原因도 여기 있다. 그러나 勞働者 階級과 農民의 同盟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階級을 對等한 主張에서의 同盟이 아니라 勞働者 階級이 革命과 獨裁의 過程을 通해서만 언제나 指導의 主動勢力인데 반해 農民은 그 指導를 받아야 하는 階級이라고 規定하므로 이 두 階級 사이엔 根本的 差別이 있는 것이다. 즉 農民은 二重的 性格의 所有에 問題가 있는 것으로 이는 勞動하고 生産하는 勤勞者로서의 一面과 土地라는 生産手段을 所有하고 있는 私的 所有者로서 一面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勞働者の 側面과 私的 所有者의 側面으로서 農民은 勞働階級과 資本家階級 사이에 不斷히 動搖되고, 이 動搖性은 貧農에서 보다 中農에서 甚하다. 이 點에 대해 레닌은 「農民은 一般의 으로 모든 소 브르조아지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獨裁 밑에서 또 中間의인 地主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經濟的 地位는 不可避하게 프롤레타리아트와 브르조아지와의 사이에서 動搖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農民問題는 全體 人口에서 農民이 차지하는 比率이 가장 큰데다 勞働者, 農民의 大衆의 基盤을 確保하는 것이 革命의 勝利를 위한 不可缺의 條件이기 때문이다. 또한 勞農同盟의 維持를 위해 레닌은 三次 코민테른 報告에서, 「獨裁의 最高의 原則은 프롤레타리아트가 指導의 役割과 國家權力을 確保 維持할 수 있도록 프롤레타리아트는 農民과의 同盟을 維持하고 있다」고 했으나 스탈린은 農民問題는 프롤레타리아트의 權力獲得을 위한 鬭爭에

있어서 그 同盟은 派生的인 問題이다. 따라서 勞農同盟의 目的은 農民을 위한 것이 아니라 共產黨의 獨裁政權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며 農民을 利用하여 同盟으로서 目標를 達成하는 들리리에 不遇하다고 했다.

即 革命初期에 土地를 農民에게만 주라,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는 슬로건을 通해 農民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고는 政權奪取하는데까지 同伴의 役割을 遂行하다 革命이 達成된 後에는 다른 조치를 내리게 한다.

이러한 事例은 蘇聯에서 十月革命 後 레닌은 農民을 利用할 속셈으로 革命 다음날 「土地에 關한 法令」을 공포하여 地主, 브르조아, 皇族, 寺院 등의 많은 土地를 農民에게 無償으로 나누어 주고 1929년에는 農業의 集團化 方針으로 굳히고, 1932년에는 農民에게 配當된 모든 土地를 回收하여 國有化하게 되었다.

이처럼, 共產黨은 根本的으로 土地를 公有化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政策과 矛盾되는 것이 明若한 것이다.

특히, 革命初期에 土地를 農民에게 나누어 주고 所有形式으로 分配하고서는 나중에 公有化 내지 社會化의 條件으로 國家에서 受容하는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만약 農民의 抗學나 反抗이 야기될 때는 共產黨의 秘密組織을 통하여 彈壓 내지 粉碎해 버림으로써 農民에 대한 共產黨의 政策은 根本的으로 僞裝된 속임수에서 出發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結 論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레닌主義는 1917年 볼셰비키 革命을 達成하기 위하여 파르크스主義에 대한 새로운 解釋의 適用과 리

시아에서의 革命的 實踐을 통하여 共產政權을 掌握하게 된 것이다. 특히 레닌은 마르크스·엔겔스의 豫言과 달리 先進 資本主義 帝國에서의 社會主義革命 實現 可能性이 희박해지자 새로운 解釋을 내리 後進國에서의 革命을 主張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革命이 可能한 곳은 資本主義가 가장 發展하고, 프롤레타리아 階級이 人口의 大多數를 차지하는 先進 資本主義 國家가 아니라, 오히려 資本主義 發展이 허약하고 世界的으로 볼 때 「帝國主義의 最弱點이 가장 弱點인 고리」(The Weakest Link in the Chain of Imperialism)에서 革命이 可能하다는 諸理論의 實踐을 통해 이룩한 것 뿐이다<sup>17)</sup>.

그러나 오늘날 모든 共產主義者들에게는 레닌主義가 하나의 革命形態의 定型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共產主義理論과 實際는 많은 矛盾과 時代 錯誤의인 現狀으로 非科學的

인 宗教化를 당고 말았다.

그러나 한 가지 明白한 事實은 暴力이든 平和이든 그들의 궁극적인 目標은 全 世界를 共產化로 만드는데 있으며 이러한 革命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온갖 陰謀와 術策을 통하여 資本主義 社會를 崩壞시키고 自由陣營의 自由와 平和를 爭取 破壞하기 위한 理論의 技術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레닌主義는 現代 共產主義者들의 政權奪取과 維持를 위한 手段과 方法의 道具로 使用되며 이러한 實踐的 道具를 粉碎하기 위해서는 그의 策略과 手法를 看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蘇聯이 共產主義 宗主國으로서 世界 革命을 主導하여 世界를 支配하고자 음모하고 있으니만큼 우리는 北傀와 對峙되고 있는 現實임을 決코 忘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註 解>

- (1) Thomas T. Hammond, 共產主義의 政權掌握類型, 極東問題研究所, 1977, p. 13.
- (2) 鄭學稼, 레닌의 生涯와 思想, 極東問題研究所, 1976, p. 9.
- (3) Joseph L. Noguee, Man, State, and Societ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2, p. 8.
- (4) 스탈린 全集 第六卷, 레닌主義의 基礎, 1924. 4, 日本: 大月書店, p. 86.
- (5) 國際科學文化研究所, 勝共論, 良書閣, 1974, p. 43.
- (6) M. Salvadori, 共產主義發達史, 文明社, 1976, p. 26.
- (7) 共產黨의 戰略戰術批判, 國軍精戰學校, 1979, p. 59.
- (8)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London: Pelican Book, 1975, p. 204.
- (9) Ibid.,
- (10) Ibid., P. 208.
- (11) De George Pattern of Soviet Though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6, pp. 131~134.



- (12) Op. Cit., p. 185.
- (13) Richard Cornell(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70, p. 133.
- (14) 勝共論, p. 263.
- (15) G. Niemeyer(ed.), 共產主義本質批判, 極東問題研究所, 1977, p. 128, 本書는 美國 Vanderbilt 大學에서 社會科 擔當教師訓練用으로 만든 共產主義本質과 批判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한 것이다.
- (16) 李大雨, 共產主義革命에 있어서 農民의 役割, 自由아카데미研究論叢 第七輯, 1978, p. 547.
- (17) 徐弘教, 「共產主義革命에 있어서 戰爭의 役割」, 自由아카데미研究論叢 第九輯, 1979, p. 479.

### < 이 습 寓 話 >

#### ○ 喜 悲

한 가지가 좋으면 다른 한 가지는 좋지 못한 법이다. 「한지에 나는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다」는 속담도 있듯이 모든 일이 골고루 만족스럽게 되기는 어려운가 보다. 이 습의 우화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어부들이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윽고 그물이 목적해졌다. 어부들은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 줄로 알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물을 끌어 올려놓고 보니 바라던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기 대신에 돌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부들은 낙심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좋아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에는 실망이 대단했다.

어부들이 모두 기운을 잃고 맥빠진 사람들처럼 허탈상태에 있을 때, 그들 어부 가운데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실망할 것까지 없소. 슬픔은 기쁨의 자매와 같은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들 지금과 같이 맥이 빠지도록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게 아니요.」 이 말을 들은 일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하면서 또 다시 그물을 만지기 시작했다.



# 80年代의 文化的 次元의 韓·美關係

編輯室

다음은 리처드 L. 워커駐韓美大使가 1981년 10월 5일  
韓·美協會에서 행하기 위해 준비한 연설 全文이다.

본인은 韓·美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協會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주는 이 주제는 바로 본인이 韓國에서 맡고 있는 使命의 핵심입니다. 본인은 우리兩國간의 理解를 넓히고 깊게 하는 일이 본인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모임에서의 연설은 흔히 우리兩國의 友誼를 自視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열렬하게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美國과 韓國이 거의 獨特하다고 할만한 따듯한 관계를 계속 누려오고 있지만 우리의 自視가 지나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우리의 관계가 한결 같이 평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밀하고 확고한 유대에 지나치게 열중하다 보면 때로는 마치 관계가 밀접한 家族간에 흔히 위험신호가 무시되듯 위험신호를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韓·美 유대의 독특한 성격에 주목하여 이야기 할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兩國은 가끔 강하고도 깊은 네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관계는 極과 極이 서로 반발하는, 또 그와는 달리 서로 끌어당기는 物理學的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兩國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美國은 大陸國家이고 韓國은 작은 半島라는 地理的 차이도 있습니다. 歷史적으로, 美國은 다양한 사람들을 그 용광로에 받아들여 독특한 전통을 세웠으나 韓國은 人種的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또 外勢의 침입에 항거하면서, 그 文化를 특색있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兩國의 社會的, 政治的 價値觀은 더 큰 對照를 이룹니다. 美國은 때로는 거의 「放任」에 가까운 個人主義에 置重하고 있는데, 韓國은 儒敎의 自制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多樣性의 有用性을 信奉하고 있는데 비해, 전통적인 韓國은 전통적으로 順從, 單

一性和 단합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美國人은 教育에 대해서 거의 萬人均等主義的 접근방식을 추구해 왔는데 비해, 韓國人에게는 그 접근방식이 고도로 경쟁적이며 엄격합니다. 對人관계에 있어서는, 美國人은 서슴없는 태도를 취하는데 비해, 韓國人은 格式을 강조합니다. 餘暇를 즐길 때의 오늘날의 美國人의 옷차림은 韓國人의 깔끔한 격식을 갖춘 옷차림과 대조를 이룹니다. 심지어 등산차림도 그렇습니다. 그 對照를 더 열거하자면, 「맥도날드 햄버거 샌드위치」와 김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 兩國의 文化는 서로 상대방의 극단적인 것을 약간 수정하게 하는 정도라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결코 우리 양국간의 經濟 및 通商關係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고 싶지 않거니와, 또한 아마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날의 軍事的 防衛 및 安保 면에서의 우리 양국의 전폭적 협력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과거 및 미래의 우리 양국 文化關係의 몇 가지 국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많은 도움과 혜택을 서로 주고 받은 분야는 文化的 分野이며, 또한 오직 文化的 理解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실수, 誤判, 誤解 및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에서 우리 兩國이 함께 겪은 悲劇을 통해 韓·美間의 결속이 공고해졌으며, 그 결속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자랐습니다. 전쟁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은 韓國은 미래를 같이 하기 위하여 美國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50년대는 「대규모로 밀려다 쓰는」 10년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천명의 韓國人들이 人文 및 科學 전 분야에 걸친 高度의 教育을 위해 美國으로 留學했습니다. 이 10년동안에 美國은 韓國人들이 전에 教育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분야들에서 선생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의심의 여지없이 그들 韓國人은 材能있고 誠實한 학생임이 드러났습니다. 美國人들은 模倣이라는 최고의 형태의 自我形成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韓·美 쌍방에는 미래에 誤解를 낳을 잠재적 요소들 가진 習性들이 생겼습니다. 즉 韓國人들은 美國人들에게 문제의 解答을 기대했고, 美國人들은 韓國人들이 자기들의 助言에 잠자코 경청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1960년대는 韓國이 「自覺한 나라」가 됨에 따라 協力促進의 10년대가 되었습니다. 고도로 유능한 韓國人들이 美國에서 教育을 받고, 귀국하여 「韓國經濟의 奇蹟」을 위한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韓·美 兩國은 越南戰에서 또다시 協力했으며, 이들 양국은 이같은 協力を 閉鎖社會와 開放社會를 갈라놓은 大斷層線에 대한 일치된 인식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현실에 입각한 認識은 근본적으로 계속 유효합니다. 協力は 쉽게 英語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韓國人들은 外部世界와 자유로이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지도계층이 통상적으로 세계의 상업 및 정치의 방편이 되고 있는 言語에 통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韓國語와 같이 어려운 言語를 배울 수 있는 外部世界의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1960년대의 好況이 계속된 후, 특히 1975년 봄의 越南戰의 비극적 終末이 있

은 후, 兩國社會는 다같이 주저의 10년대, 內部 指向的, 自己反省的 10년대로서 1970년대도 끝났습니다. 美國人들은 어느 정도 그들의 전통적인 孤立主義的 形態로 후퇴하였으며, 과잉개입과 개입 축소, 과잉공약과 데탕트에 관한 시비를 벌였습니다. 韓國人들은 美國人들의 助言에 대해 不信을 나타냈습니다. 韓國人들은 民族的 主體性을 더 많이 내세웠으며, 물론 그것은 여타 가지 면에서 정당한 것임이 그들의 행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떠한 폐허의 잿더미와 빈곤 속에서 일어나 인구 1인당 소득을 1961년의 82달러 수준에서 20년이 채 못된 기간에 1,500달러 이상으로 끌어 올린 나라로서는 긍지를 가질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理解의 일부 유형들이 共同的 희생에 관한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새로운 世代들이 진출함에 따라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어느모로 보나 1980년대는 再調整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어 가졌던 벗들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애정과 이해심을 지닌 상호간의 솔직성을 필요로 합니다. 예술면의 창조적 활동에서나 상업과 공업면의 건설에서나 그리고 개인적 유대와 가족적 유대를 바탕으로 구축된 인간의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우리의 문화적 관계에서 당면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문제점들을 토의하기에 앞서 문화적 關係와 理解를 굳게, 그리고 깊이 하기 위해 마련되어 온 공고한 기반, 우리가 문제점들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을 확실히 도와줄 기반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우선 현재 광범하고 다양하고 값진 방대한 韓·美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등하게 빠르고도 명료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全斗煥 大統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사면에서는 압도적인 다수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美國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과 군사편제의 양식은 美國식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남이 추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공동방위 노력을 진밀한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美國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을 韓國처럼 많이 高位職에 배치한 政府는 이 세상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長官, 次官, 次官補의 30퍼센트가 美國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1만여명의 韓國人이 美國에서 修學 중입니다. 美國의 大學에서 博士학위를 받은 韓國人은 약 1,50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 중 일부만을 들어도 그분들은 법률, 경제학, 철학, 물리,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지도자이며, 명성이 높은 인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30년 동안에 발전해 온 협력관계가 존속해 왔습니다. 현재 韓國과 美國都市 사이에서 자매도시 관계를 맺은 곳이 열두 곳이나 됩니다. 韓國의 27개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들이 美國의 38개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들과 결연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韓美親善會」와 「友情의 使節」의 활동에 관해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친선사절이 1978년에 경사스럽게 발족한 이래 韓·美양면에 각각 약 3천에 달하는 민박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여 진밀한 가족적 유대와 우정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1975년 이래 韓美親善會는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美軍人을 접대했으며, 거의 1만8천에 달하는 민박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韓國 國際文化協會는 각

게 각종의 저명한 美國 지도급 인사들을 韓國으로 초청하여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에게 시찰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東西文化센터,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美國國際交流處(USICA)의 활동으로 연구, 문화교류 및 방문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韓國의 國立交響樂團은 美國을 순회공연했으며,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美國의 4個 交響樂團이 韓國에서 공연했습니다.

한편 美國측에서도 韓國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韓國美術 5千年 展示會를 보기 위해 줄을 섰던 美國인의 數는 2百萬名이 넘습니다.

1981년 처음 6個月 동안에 韓國을 방문한 美國인은 6萬2千餘名이나 됩니다. 아마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50萬名이 넘는 韓國系 美國人이—이는 아마 韓國의 가장 큰 海外僑胞 사회일 것입니다—美國에 받아들여져서 醫師, 教授, 건축가, 工學技士, 産業人 및 銀行家로서 美國社會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韓國企業들은 美國에서 비단 문자 그대로 數千名을 고용하고서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韓國會社들은 美國內에 제조시설을 건설하는데 投資하고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아웅은 1980年代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계의 이 분야는 각종 統計數字의 예를 가지고서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우리 兩國간의 접촉과 相互관계와 理解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 兩國은 어떤 애로도 해소하고, 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광범한 활동과 그리고 가족과 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利益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솔직성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분야의 많은 것들이 바로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의 관계를 특징지어온 親密性에서 나옵니다. 美國에서 留學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접촉을 하고서 돌아온 韓國學生들, 新興産業 및 都市化된 中流層, 외국을 널리 여행한 이론 정연하고 세련된 韓國人, 兩國軍將兵간의 부단한 접촉, 이러한 요소들이 韓國의 전통적인 사회와 價値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韓國은 1950年代 中葉과는 판이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安定, 秩序, 政治, 격리 및 통제에 대한 儒敎式 접근방식의 일부는 주로 西方圈, 특히 美國과의 개방적인 접촉 때문에 위문시되고 있습니다. 金日成은 北韓에서 情報의 교환 및 유통을 막으려 들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는데 성공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通信衛星과 트랜지스터의 시대에는 情報에의 접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특히 韓國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韓國에서는 세계의 개방된 社會와의 交流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通信革命과 韓國社會內의 심대한 변화를 감안할 때에, 최근의 일부 추세에서 은연중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류하여 멀어져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감시와 好意的인 주의를 요하는 다섯 가지 개괄적인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 분야는 美國인들이—서울에 만도 20,000여명의 民間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美國人들은 韓國의 文化 및 韓國의 樣式 그 자체의 존엄성 내지 순결성에 관해 정기적으로 우리 美國人 자신들 내지 韓國人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全世界에 걸쳐 근 6천만에

달하는 韓國人은, 中國이나 日本 等 強大國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나 주의의 파생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美國人들은 우리의 盟邦인 韓國 국민들 및 그들의 文化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 어린 관심을 보여 주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본인이 앞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세계적으로, 특히 이곳 韓國에서 民族主義의 強化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전 韓國人들은 西方의 開放社會를 향해 進出해 나갔으며 中小國으로서의 現實들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그런 現實에 관한 솔직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성장한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처신하려면 나라가 작은 韓國人들은 하나 이상의 西方言語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이같은 패턴으로부터의 逸脫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劄大統領은 그의 아시안 訪問을 마치고 난 후 外國語 教育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국가적 성취에 대한 금지인 民族主義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有害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韓國人들은 排他主義者가 되거나 隱者의 王國의 특징들로 되돌아갈 처지가 못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어떠한 傾向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또 通信과 情報의 通路가 계속 열려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곳 韓美協會에 있는 우리들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국이 배출한 최고의 知性들을 여러 해 동안 괴롭혀온, 세계의 전반적 문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비슷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北

쪽의 전체주의적 慣行에 대해서 安保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世界 共產主義의 傾向에 관해 언급하면서 韓半島 北쪽에 있는 政權의 극단적 行態들이 상징하고 있는 위험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노벨文學賞 수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한 위험은 지구 각 지역 간의 情報의 차단이다. 현대과학은 그같은 차단이 엔트로피(Entropy)의 길이며 세계적 멸망의 길임을 알고 있다. 情報의 차단은 국제적 署名이나 條約들을 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강압적 침묵의 地帶에서는 여하한 條約도 멋대로 쉽게 고쳐 해석할 수 있으며, 또는 보다 간단히 말해서 마치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듯이 은폐할 수도 있다(오웰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압적 침묵의 지대 내에는 맘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해방시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을 갖고 세상을 남작히 짓밟아 버리려는 火星으로부터의 遠征軍이—겉으로 보기에 지구의 주민과는 전혀 판이한—살고 있다.

北쪽의 침묵지대를 생각할 때, 이곳 大韓民國에서 表現의 自由와 思想 交流의 自由를 유지하는 일은 갑절로 중요해집니다. 솔제니친이 지적했듯이 共產主義者들이 아직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다른 창조적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회는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그는 「진리의 한 마디는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본인은 學園의 자유와 면허제 아닌 言論의 자유를 옹호함에 수반하는 문제점과 모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美國人들은 어쩌면 자유의 방향으로 너무 멀리 잘못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방향에서 우리가 과오를 범하는 편이 보다 낫다는 것을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과 문화면의 자유는 우리가 신봉해야 하는 大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美國 사회로부터 이 영향을 받아들이는 韓國인들이 이 韓半島와 美國에 수만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이 영향이 北韓에까지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네째로 開放性과 多樣性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혁명적인 美國인의 꿈과 보다 보수적인 儒敎의 전통 사이의 차이에 유의 하였습니다. 오늘날 협소해진 이 세상에서는 균일성을 유지하고 만장일치를 달성하려는 시도는 어렵고도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는 시도 일 것입니다. 상이한 문화는 서로 기여하는 바가 많으므로 多樣性은 유일한 적극적 가치 일 수 있습니다. 美國人들은 對人관계의 존중 면이나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다시 重要視하고자 바라는 家庭에 대한 重視面에서 韓國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 韓國에서 美國의 대표자들은 多樣性은 強點이지 弱點이 아님을 성공적으로 예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文化的 感受性으로써 견해의 結構적인 다양성을 표명하는 기회는 견해의 兩極化와 잠재적 폭발성을 방지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制度化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방식을 교집하는 나머지 문서처리로서 착수된 과거의 계획이나 접근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본인은 우리 美國人들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속하지나 않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 음악, 人的왕래, 공업 및

상업 등 여러 분야의 접촉을 확대시킴에 따라 우리의 관계에 변함없는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혁신과 참신한 접근 방법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要塞와도 같은 共產社會를 개방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에 있어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접근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나라 관계처럼 긴밀한 두 國家 사이의 관계란 결코 변치 않거나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인은 끝맺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對敵者들과의 우리의 관계에 보다 많은 安定性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볼 때 그들의 敵意는 일관된 성질의 기정 요소입니다. 이를 보다 더 단순하게 말씀 드리자면 이웃 사람들과의 말다툼보다는 한 가족 안에서 자주 더 많은 말다툼이 있게 마련인데 일단 이웃 사람이 그 가족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오면 그 가족 안의 말다툼은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美國과 大韓民國의 문화적 접촉을 가족문제로 간주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본인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對敵者들 그 누구라도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견차이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견고하고도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문화적 이해와 문화적 자유야말로 실로 1980년대의 탁월한 특징임을 과시할 수 있는 미래를 우리는 동정과 신뢰로써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MIG-21機 試乘記



李 建 淳 譯

## 試 乘

Egypt 空軍이 運用中인 소련製 MiG-21 Fishbed機의 空中作戰上의 特性들을 本 Aviation Week & Space Technology社의 專屬操縱士가 이 航空機에 同乘하고 Suez運河, Great Bitter湖 및 Sinai砂漠 上空을 날으는 동안 지켜 볼 수 있었다.

이 航空機는 特히 低速狀態에서 安定성이 뛰어나고 또한 輕快하고, 取扱이 容易한 特性을 지닌 航空機로서 알려져 있는데, "Mongol"이라는 別名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MiG-21 US型機를 試乘해 봄으로써 이를 實感할 수 있었다. 前方席에는 同 空軍의 戰鬥作戰訓練部의 責任을 맡고 있는 Nabil Farid Soukry准將이 그리고 後方席에는 本人이 搭乘했다.

## 航空機 缺點

約 30分間에 걸친 實際飛行을 通하여 本人은 이 MiG-21機가 다음과 같은 缺點들을 갖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適切한 武器體系의 不足
- 機內 燃料積載量이 적다.
- 航法體系가 없다.

(但 MiG-21 MF (Fishbed J)型에는 VOR/ADF基礎航法 裝備가 되어 있다)

實際 空中機動飛行이 約 18分동안 實施되었는바 그동안 AB推力飛行을 包含하여 여러 가지 形態의 機動飛行을 實施해 볼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 數千臺에 달하는 MiG-21 系列機들이 소련 內에서는 勿論, 체코 및 印度 等地에서 生産되어 오면서, 機體를 비롯하여, Avionics, 火力統制 및 武器體系의 改良, 最近에는 全天候作戰能力을 갖춘 最新型機도 生産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는 IR誘導型을 비롯하여 Radar Homing型의 改良된 Atoll 空對空 미사일을 積載토록 改良된 것도 包含된다.

Great Bitter湖와 Suez運河 近方に 位置하고 있는 이 Farid 空軍基地에는 MiG-21 S機들로 武裝한 1個 飛行團이 駐屯하고 있는데, 이들

은 東쪽으로부터의 空中威脅에 對備하여 作戰 中에 있다.

●對空미사일 部隊들이 本 基地周圍 砂漠에 集中的으로 配置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든 支援車輛들을 비롯하여 航空機 및 整備用施設들이 콘크리트 掩體壕內에 들어 있었고, 이들壕는 砂漠모래로 덮여 偽裝되어 있었다. 따라서 空中에서는 텅 빈 滯走路施設들만 드러내 보였다.

MiG-21機들이 任務飛行을 爲해 發進할 때에는 Engine Start가 Shelter內에서 이루어 지게 되므로 操縱士들은 곧 바로 離陸待機地點까지 直進하여 離陸機能動作을 爲해 잠시 待機하게 될 따름이다.

이 基地는 지난 1973年 10月 第4次中東戰時 Israel軍에 依해 한 때 占領되면서 이들 Shelter들이 破壞되었던 것이다.

이 基地를 Egypt가 되찾게 되면서 이곳이 Suez運河와 Great Bitter湖를 隣接하고 있는 戰略要衝地임을 감안하여 이곳에 많은 數의 Shelter들을 再建하게 되었는데, 精密誘導武器의 直擊彈에도 이겨 낼 수 있는 堅固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關係官은 말하고 있다.

이곳에는 每 大隊當 16~20臺의 MiG-21 戰鬥機들로 編成되어 있는 3個의 飛行大隊들이 必要로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Shelter들을 保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Egypt 空軍이 마련하고 있는 自體防護計劃에 따라 被襲時 航空機 生存率을 높이기 爲해 航空機들을 이곳 저곳으로 그 配屬位置를 隨時로 바꾸기 爲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MiG-21機의 飛行點檢도 勿論, 이 Shelter內에서 이루어졌다.

### 燃料漏出

格納되고 있는 MiG-21機 밑바닥에서 흘러 나오는 機內燃料을 받아 모으기 爲하여 大型 기름받이를 놓고 있었다. 이 航空機는 約 634 gal(2,400 l)의 機內 燃料을 積載하는데, Egypt 空軍側에서는 航空機의 飛行安全을 爲해 最小限 132 gal(500 l)의 燃料을 남긴채 着陸토록 하고 있었다.

Egypt 空軍內에서 비행기 잘 타기로 이름난 Shoukry准將은 本人에게 Canopy를 닫고 與壓된 座席에 Lock하는 法 등에 對한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 AB Setting에서 Military Power Setting으로 되돌아갈 때 同調機能(Synchronization)이 제대로 作動치 않을 때에는 Throttle 위에 달려 있는 操作子(Gear Tang)를 썩서 手動으로 作動시키는 法을 가르켜 주었다. 이와 같은 操作은 前方席에서는 할 수 없고, 後方席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萬一 이와 같은 Synchronization 機能이 Slipped out 된 것을 調整치 않고 放置해 두면 飛行中 엔진 非常事態(in flight engine emergency situation)에 빠져 들게 된다는 것이다.

座席에 들어 앉자마자 이 航空機가 매우 粗雜하고 單純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航法系統裝備는 찾아볼 수 없었고, 計器들은 最小限의 것으로 局限되어 있었다.

- Mach計
- 高度計
- 速度計
- g-force計
- 姿勢計等

### 座席 形態

座席 右側에 달려 있는 通信 Switch는 最小限의 周波數를 다루는 것이었다. 左側에 Throttle Lever는 손 位置 가까이에 附着되어 있었다. Ejection Seat System은 前方席에서 同時作動시키지나, 兩다리 사이에 달려 있는 D型 고리를 당김으로써 前·後方座席이 分離射出하게 되어 있었다. 射出時는 脫出 캡슐 (Escape Eapsule)을 形成토록 Canopy와 Seat가 同時射出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航空機의 Tumansky Engine은 Shelter 內에서 始動되고 3分後에 밖으로 나와 매우 빠른 速度로 滑走路 離陸待機線까지 進出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 配置되어 있는 航空機들은 極히 制限된 時間 동안만 外部에 露出되게 되는 셈이다.

이곳의 滑走路는 三線으로 된 主滑走路들이 平行하게 建設되어 있었다. 中央의 主滑走路를 中心으로 兩 外側 主滑走路의 끝 部分이 突出된 狀態에서 緩慢한 角으로 外側으로 구부러지게 建設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設計를 하게 된 것은 이들 三線의 主滑走路가 敵의 被襲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作戰을 繼續 遂行할 수 있게 하기 爲함에서였다.

우리가 탄 航空機가 이들 三線中의 한 滑走路 離陸待機線에 進出하고 있을 때 탄 航空機

의 飛行活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Flight Control Tower는 小型의 移動式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必要에 따라 願하는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하기 爲함이었다.

이곳에서 繼續的인 飛行訓練이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最上의 Alert 狀態를 維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Alert 發令時, 2分 40秒 內에 Shelter에서 發進하여 空中邀擊姿勢를 取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이 時間은 이 飛行團 操縱士들의 平均出動 時間으로서, 最短時間은 아니라고 同 關係官은 말하고 있었다.

Shoukry 准將은 滑走路 끝 離陸待機線에서 AB推力로 離陸中 最大限의 離陸性能을 發揮토록 하기 爲해 80% rpm으로 Engine을 稼動시킨 다음, 곧 이어 100% rpm engine setting으로 AB를 稼動시켰다.

이 Mongol機는 滑走中 加速되면서, 2,297ft (700 m) 地點에서 離陸, 空中으로 向했다.

40度 角으로 上昇하면서, 20秒內에 4,950ft (1,500 m) 高度에 이르렀다.

即, 이 航空機는 Sea Level에서 21,000 fpm, 36,000 ft 高度에서 10,000 fpm의 上昇率을 가지는 것이었다.

Shoukry 准將의 飛行計劃은 左側으로 6g 持續旋回를 하면서, Great Bitter湖 東쪽 上空으로 Heading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機動이 持續되는 동안 速度計는 速度減少 없이 493kt (900 km/h)를 維持하는 것이었다.

이 航空機의 持續旋回率은;

- 高度 15,000 ft

機速 Mach 0.9에서

○ 7.5度/秒(持續)

○ 13.4度/秒(瞬間)

● 高度 15,000 ft

機速 Mach 0.5에서

○ 11.1度/秒(持續旋回率)

우리는 다시 AB를 작동시켜 Aileron Roll을 하면서, 26,400 ft(8,000 m) 高度까지 450 fps(27,000 fpm)의 상승률로急上昇하였다.

機首를 북쪽으로 바꾸어, Suez運河 上空으로 進入하고 나서는, 다시 東進하여 "Split-S" 機動을 하면서 Sinai地域을 飛行하였다. 여기서, 26.40 ft(800 m) 高度까지 急降下하면서 西進, 母基地上空을 Pass하였다.

우리는 約 495 ft(150 m) 低空까지 降下하여 Farid 母基地 滑走路上空에서 Slow Roll을 實施하였다. 이 때의 速度는 431.2 kt(800 km/h)였다.

이 航空機의 最大速度는 Sea Level에서 Mach 1.06, 高空에서 Mach 2.02라는 關係官은 말하고 있다.

한편, MiG-21機의 比推力(Specific Power)과 推力/重量比(Thrust/Weight Ratio)는 다음과 같다:

#### Specific Power, MiG-21

高度: 15,000 ft

速度: Mach 0.9

Pulling 1g                      450 fps

Pulling 5 g                      50 fps

#### Thrust/Weight Ratio 比較

MiG-21	F-5E	F-14A	F-15	F-16A
0.8	0.63	0.72	1.08	1.01

### 性能示範

戰鬪機의 飛行時間이 約 3,000時間, MiG-21 機의 飛行時間이 約 1,000時間의 記錄을 갖고 있는 Shoukry 准將은 이 航空機의 性能이 一般 普通의 戰鬪機의 性能水準을 凌駕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는 우리가 搭乘한 MiG 機를 Great Bitter湖와 Sinai地方에서 歸還飛行하는 Flight Profile에서 이 航空機의 安全性과 取扱性を 遺憾없이 發揮케 하는 것이었다.

AB를 作動, 2,970 ft(900m) 높이를 上昇하는 동안, 377 kt(700 km/h)에서 539kt(1,000 km/h)로 매우 빠른 加速反應性を 나타냈다.

또한 6 g로 360度 旋回한 後, 中間 Power Setting으로 Aileron Roll 上昇을 하였는데, 이는 低速 및 無速狀態에서의 MiG-21機의 取扱性を 示範해 보이기 위해서였다.

速度가 151kt(280 km/h)를 가리키고 있는 데에도 온전한 機動力을 發揮하고 있었다. 速度가 繼續 떨어져 가고 있는 데에도 機動性은 여전히 維持되어 나갔고, Stick이 Full aft 狀態에서도 아주 쉽게 旋回되었다.

이 航空機는 아주 粗雜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것이 매우 빠른 速度의 大量生産型으로 設計된 航空機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例로서, 油壓統制系統(Hydraulic Control System)의 一部인 加壓補助裝置(Boost Assistance)의 設計 잘못으로 航空機가 어떤 迎角飛行으로 g-force가 걸려 있는 狀態下에서는 操縱士로 하여금 過한 壓力(Over Stress)으로 航空機를 動作시킨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게

되어 있다.

Over Stress되고 있는 이 항공기를操縱桿으로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뻑뻑하고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操縱士는 이와 같이作用되는 힘들을 거의 모두 항공機の操舵面(Control Surfaces)만으로處理되게끔 만들어져 있었다.

### 安定性 誇示

全飛行過程을 통하여 이 항공機の安定성이 뛰어남을 드러내 보였지만,前後方向의視界는制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 항공機のCanopy가防彈用風防으로 만들어져 있어自然히視界에支障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地上에서 Landing Gear가 내려져 있는狀態에서後方席의視界를 돕기 위하여,潛望鏡(Periscope)이附着되어 있었고, Landing Gear가引繼됨에 따라,計器盤上端의原位置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다시 한 번 Aileron Roll上昇을 하며,急右旋回로計劃된機動示範을 보여 주고 나서 Shoukry 准將은着陸을爲해機首를基地로向하게 하였다. 항공機가接地할 때,燃料計는 237 gal(900 l)이 남아 있는 것으로指示하고 있었다.

着陸時 이 항공機는 매우 탄탄한 느낌을 주었고緩衝系統의作用도 매우良好하였다. 항공機가 멈추자, Taxing을急히하여 빠른動作으로 Shelter 內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Shoukry 准將은 항공機가 Shelter 內에格納

되고 나서, 이飛行團에所屬되어 있는操縱士들은每月約20回の飛行을 하고 있어, 이 항공機와 더불어, 매우 높은水準의臨戰態勢를維持해나가고 있다고說明해 주었다.

美本土의 Hill AFB에서 F-16機도搭乗한經驗을 갖고 있는 이准將은 이 MiG-21飛行大隊의 항공機들이 하루約6 Sorties의出動도可能하나, 이와 같은出動을敢行하고 나서는2~3區間の整備를爲해 항공機를세워놓아야만한다고說明해 주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Egypt 內에서 여러가지改良作業이進行되어오고 있는데, 소련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 그後輸出機에서改良實施되고 있다고,修理 및技術擔當責任의 George Ezzat 准將도 말하고 있다. 卽, 武裝積載位置가改良되었고, 또한 새로운 R-13-300 Turbojet Engine의裝着으로300時間까지의運轉이可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從前 Engine이250時間밖에運轉치 못하였던 것에比하면 크게向上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Engine의裝着으로行動距離도增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항공機는 AB Power로空中機動할 때에는補助 Tank를 단체(胴體中央 및 Pylon)飛行치 못하도록制限되어 있으며, 따라서15分以上 AB飛行치 못하도록規制되어 있다. 이와 같은制約點을 덜기 위하여 Egypt 國內에서元來 소련 것보다도 더 많은容量의燃料를 실을 수 있는機內燃料 Tank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作業은 Helwan Aircraft Factory에서實施하고 있다.

MiG-21MF(Fishbed J)型機는補助 Tank를



달고 約 1.5時間을 飛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Shoukry 准將과 Egypt 空軍의 作戰參謀副長 Mohammad Alaa Barakat 准將은 MiG-21機가 비록 소련으로부터의 正式 支援이 中斷되어 있는 狀態下에서 部品支援에 制約을 받는 形便에 있으나 同軍은 이와 같은 逆境 속에서도 最大限의 臨戰態勢를 갖추도록 努力中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情으로 미루어 보아, 同國이 西方陣營의 支援을 받아가면서, 그들의 航空機 再生 및 整備能力을 最大限 維持, 發展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 中共의 支援

이들 두 准將의 말에 따르면, 同國은 中共으로부터 어느 程度의 支援을 받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Overhaul을 爲해 소련에 보내졌던 Tumansky Engine들이 Egypt國에 와 있던 소련인들이 撤收하고 난 뒤 Egypt로 되돌아 왔는데, 그 數는 約 150臺에 達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두 准將들은 MiG機 訓練을 모두 소련에서 받은 바 있다. 한편 Barakat 准將은 MiG-19機로서 500時間, Su-17 對地攻擊機로서 350時間에 達하는 教官飛行時間을 保有하고 있었다.

이 基地의 基地司令官인 Abdel Nasr 准將은 이 MiG-21機가 이 地域內의 어떤 戰鬥機들보다도 優秀하고, 또한 操縱士들의 戰鬥經驗과 技倆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航空機를 擊墜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이 MiG-21機에 對하여 몇 가지 重要한 改良計劃이 推進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몇 몇 美國航空會社들이 이 最新化作業에 競合하고 있었다. 美國의 Teledyne社에서는 지금 소련의 周波數圈內에서 運用되고 있는 이들 航空機에 IFF 裝備를 設置하는 契約을 締結한 바 있는데, 이 作業이 이루어질 경우, 現在 Egypt 國內에서 運用되고 있는 餘他 소련製 航空機와는 아주 뚜렷한 存在로 登場하게 될 것이다.

同社에서는 또한 西獨의 Litef, Litton社들과 合同으로 Dassault-Breguet/Dornier社 共同開發의 Alpha Jet의 西獨對地近援支援攻擊型機用 Dopplar Navigation Computer 및 同 Control Display System에 對한 開發契約도 締結하고 있다. 이 體系는 Head-up Display와 더불어 武器發射系統과 連繫運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Egypt 側에서는 同國에서 保有運用하고 있는 航空機들에 共同으로 裝備할 수 있는 Dopplar 航法시스템을 願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MiG-21機를 비롯하여, 餘他 同國保有의 固定 및 回轉翼 航空機에 美國 Teledyne社製 航法 시스템으로 裝備할 것을 強力히 바라고 있었다.

Egypt 空軍內에는 6種에 達하는 MiG-21 系列機의 訓練型機를 保有 運用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保有 MiG-21機 系列

#### ● F-13型

Fishbed C로 알려져 있는 이 晝間戰鬥機는 Radar Ranging 시스템을搭載한 VFR 作戰用 短距離戰鬥機이다.

Engine을 RD-11이라고 알려진 Tumansky Turbojet Engine으로서, Dry推力 9,600 lb, AB推力은 12,700 lb의 것이다.

武裝은,

- 赤外線誘導型 K-12 Atoll 空對空미사일과
- 右側胴體에 23mm 機關砲를 積載한다.

Ejection Seat는 Conopy와 座席의 同時射出型이다.

#### ● PFM型

Fishbed F型으로 알려져 있는 戰鬥機로서, 改良型 Radar를搭載하고 있으며,

- 約 10 NM 밖에서 目標物을 Lock-on시킨다.

垂直安定板 上端은 導電板構造로 되어 있고, 그 内部에 Antenna가 收納되어 있다.

#### ● PFS型

西方陣營에서 Fishbed D型機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 戰鬥機는,

- 最新 改良型 RD-11 Engine을 裝着하고 있으며, 이것은 從前 것에 비해 AB 推力이 約 1,000 lb 增加되었다.
- 空氣吸入口 面積의 擴大
- 防空任務機能 增大를 爲해 探索 및 追跡用 Radar 追加搭載
- 前方胴體 Taper率이 緩慢하여졌다.
- 他 型機들과 크게 差異나는 點은,

- Rocket 補助離陸시스템 導入으로 990 ft(300 m) 以內 離陸可能
- Blown Flap 使用으로 着陸距離를 1,320

ft(400 m) 以內로 短縮

#### ● FL型

後期生産 輸出型으로서,

- 垂直安定板 Chord 幅이 넓어졌다.
- Rudder Base에 Drag Chute 收納
- R-2L 探索 및 追跡用 Radar 搭載
- R-11-300 Tumansky Turbojet Engine

- Dry 推力 8,500 lb
- AB 推力 13,700 lb

#### ● MF型

- 西方陣營에서 Fishbed J型機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 戰鬥機는,

- Engine은 RD-13-300 Tumansky Turbojet Engine으로서,

- Dry 推力 11,240 lb
- AB 推力 14,550 lb

· RD-11F-300(Fishbed C/E Engine) 보다 約 15%의 推力增加를 가져오고 있음.

· 이와 같은 推力量에 따른 副作用으로 比燃料消耗(SFC)面에서는 約 2%가 減少되었다.

· Compressor Stage 2段이 追加되었고, Titanium材를 더 많이 使用하고 있는 關係로 RD-11F-300 Engine 若干 더 무겁다.

#### ● R型

- 偵察型 MiG-21機로서,
- Egypt 國內 Helwan Aircraft Factory에서 製作한 偵察用 Pod를 積載하고 있다.

#### ● MiG-21 U/US型

- 흔히, "Mongol"이라고 西方側에서 부르

고 있는 訓練機로서,

○ 그 形態는 MiG-21F(Fishbed C)와 비슷하며, 縱列複座訓練機이다.

○ 한편, US型(Mongol-B)은,

- Blown Flap 導入으로 着陸距離를 短縮시켰음.

- 後方席(教官席)에 潛望鏡(Periscope)이 設置되어 있는데 後方席의 視界를 돕기 위함이고, Landing Gear 引込과 同時 原 位置로 기둥어 진다.

에서 運用되고 있는 一般 戰鬥機와 MiG-21機와의 性能을 比較해 가면서, 이 MiG-21機가 自國의 作戰所要를 充足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Fishbed機의 飛行性能領域(Flight Envelope)을 색깔로 表示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불탄서製の Mirage 5와 F-1을 비롯하여, Israel軍이 運用하고 있는 McDonnell Douglas社製의 A-4와 F-4機들과의 性能比較가 明瞭하게 表示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 性能比較 例는 다음과 같다.

### 性能 比較

基地司令官 Abdel Nasr 准將은 오늘날 世界

#### 最大 離陸 重量

單位:LB

MiG-21	F-5E	MiG-23	F-16	F-15C	F-4
20,725	24,600	43,000	35,000	68,000	58,000

#### 翼面 荷重 值

單位:PSF

MiG-21	F-5E	F-16A	F-4	F-15
73	85	79	89	72

#### 戰鬥 行動 半徑

單位:NM

MiG-21: 400

F-4: 359

- 550 LB 爆彈×4
- 補助 Tank×1

- Missile×4
- 2,000 LB 爆彈
- 補助 Tank×2

MiG-21MF (Fishbed J)

593 NM (1,100 km)

- ・ 機内燃料만으로
- ・ 武裝未詳

資料: Jane's aircraft 80~81

Page 194 및 381

F-4

・ Area Intercept 683NM (1,266 km)

・ Defensive Counter air 429 NM (795 km)

・ Interdiction 618 NM (1,145 km)

最大速度 比較

單位: kt

At Sea Level MiG-21: 660

- ・ 外部物 積載

At 4,000 ft MiG-21: 1,148

F-4: 759

- ・ 外部物 積載

F-4: 1,245

旋回率 比較

瞬間 旋回率

單位: 角/秒

・ Mach 0.9 高度	MiG-21	F-5E	MiG-23	F-4	F-15	F-16
・ 15,000 ft	13.4	14	11.5	13.5	14.1	17.3
・ Mach 0.5 ・ 15,000 ft	11.1	11.4	8.6	7.8	16.5	15.6

持續旋回率

- ・ Mach 0.9
- ・ 高度: 15,000 ft

MiG-21	F-5E	F-4E	F-15	F-16
7.5	7.8	9	11.8	12.8

# 최신 방공미사일 개발 및 증가추세

崔 良 洙 譯

198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거대한 전략체제에서부터 보병이 휴대하고 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열 추적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사일이 유인 항공기로부터 야기되는 위협과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각 체제를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충분한 여백은 없으나, 현재 판매 중에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각종 미사일체의 규모에 대한 생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요인들이 확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즉, 가장 큰 규모의 무기는 소련이 개발하고 있거나 제작한 무기이며, 서방측의 각개 무기체제는 소련의 각개 무기체제보다 우수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통합된 한 SAM 체제열이 소련에서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 장거리 체제

제4차 중동전에 대해서 거의 보고되지 않았던 몇 가지의 양상중의 하나는 미공군의 SR-71 BLACKBIRD 전략정찰기가 무사히 시나이 전장과 골란고원의 전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집트와 시리아 방공부대들은 어느 부대도 이와 같이 속도가 빠른 고고도 목표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이 부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정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이 SA-2 GUIDELINE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측은 영공비행에 대하여 무언의 승인을 하였을 것이며, 이를 중지시킬만한 충분한 힘이 없었고 중고도용 HAWK 미사일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의 모든 공격기를 저지할 수 있는 최신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구입하려는 방위부대들은 각종 장비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서방측이 제공할 수 있는 최신의 무기는 고가의 장비이나, 기술적으로 우수한 PATRIOT 미사일이다. 이 1단계 미사일은 나무 높이의 고도에서부터 24,000m까지의 모든 고도에서 목표물을 탐색, 포착 및 추적하기 위하여, 다목적 위상배열(Phased-array)의 AN/MQP-53 레이더를 사용한다.

신형 미사일 개발을 위한 SPRINT 대탄도미사일계획 기간 중에 획득한 일부의 전문적 기술을 이용할 수 있었던 Martin Marietta 사에서는 이 미사일을 실제로 개발하였으며, 미사

일의 최대속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Mach 5 인 것으로 추측된다.

야전에 최초로 설치될 때에는 고정된 고도와 방위각에 레이더와 4개의 발사대가 고정된다. 공격해오는 목표물에 미사일과 레이더빔을 지시하기 위하여 미사일이 민첩하게 작동하고, 전자안테나빔 주사망식이 사용되며, 예상공격방향이 변할 경우에는 발사대와 레이더가 새로운 방향에 있게 하기 위하여 발사대와 레이더가 방위각을 회전할 수 있고, 각 레이더는 교전통제소(Engagement Control Station-PATRIOT 체계 중 전투시 인원이 배치되는 유일한 곳)와 같이 작동한다.

이곳에서는 발사대를 8개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대처하려고 하는, NIKE-HERCULES나 또는 개량형 HAWK 보다 야전 배치가 간단하다.

PATRIOT 미사일은 새로운 유도방식을 사용하며, 이 방식은 "Track-Via-Missile(TVM)"로 알려져 있다. ECM 환경에서 철저히 시험을 한 후에는 이 미사일은 지령 및 반능동 Homing 방식을 겸용할 것이다.

미사일 Seeker가 목표물을 Lock-on을 하면, Seeker는 교전통제소로 목표물 Data를 보내며, 미사일 유도지령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Data를 처리하여, Radar에서 얻은 Data와 비교한다.

영국 항공사는 지상기지형 SEA DART 미사일을 제외해 왔으며, 1970년대 후반에 수출주문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접근하였으나, 이 계획은 유산된 것 같다.

따라서, 미국무기 구입을 꺼려하거나, 또는

구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국가들은 장기 리용 SAM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련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SA-2 미사일은, 구형의 SAM 이기는 하지만, 소련은 이를 서서히 폐쇄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최신 모델은 월남전과 아랍, 이스라엘전쟁에서 얻은 작동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ECCM 능력을 갖고 있으나, 고속 고고도 목표물에 대해서나 1,500m 이하로 비행하는 목표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매우 우수하지 않다. 일부 미국인들은 SA-2의 최대고도가 15,000m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무기에 희생된 U-2 정찰기의 대수로 미루어 보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중공에서 제작한 SA-2(일명 SA-1)는 소규모로 수출되었으며, 유일하게 알려진 중공의 SAM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생산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중엽 이후부터, 연간 125대 수준으로 생산되어 왔다.

소수의 SA-4 GANEF 미사일이 수출되었으며 6일전쟁 후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 방공부대에 전개되어 있으나 이집트에 넘겨주지는 않고 있다. 이 체계는 동독과 체코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쌍발 자동회전식 발사대를 사용한다. 개량형은 저고도 목표물에 성능이 보다 우수하다.

SA-5 GAMMON 미사일은 소련에서는 그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수출은 되지 않고 있다. 이 미사일은 일부 태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는 확실치 않다.

최근에 소련에서 취역하고 있는 최신 미사



일은 수직으로 발사될 수 있는 SA-10 미사일로서, 성능은 미국의 PATRIOT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 미사일은 3개의 CW 탐색 및 추적레이다와 같이 작동을 하며,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갖도록 무기를 개조하기 위하여 개발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SA-12 미사일은 능동레이다 Homing 방식을 사용하는 SA-2/SA-5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것 같다.

### 중거리 체제

HAWK 미사일의 최초 발사시험은 25년전에

실시되었다. "Homing All-the-Way Killer"라는 명칭을 갖고 있듯이 발사시험용 미사일은 요격을 성공적으로 하였다.

그 이후부터 이 미사일은 계속 성공을 거듭하여 왔으며, 개조형 최신 HAWK 미사일은 총 18개 국가에 취역 중에 있거나 또는 주문 중에 있다. 한편 3개국 이상 국가에서는 원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된 무기체제이다.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SOVIET UNION						
SA-2 GUIDELINE	45	7	25	1.5	command	rocket
SA-4 GANEF	70	9	25	1	command +SAR	ramjet
SA-5 GAMMON	280	90	27	?	SAR	rocket
SA-10	65	?	30	0.03	active radar	?
USA						
PATRIOT	60	?	24	?	TVM	rocket

SAR=semi-active radar

TVM=track-via-missile

## Medium-Range Missile Systems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SOVIET UNION						
SA-3 GOA	35	?	15	0.3	command	rocket
SA-6 GAINFUL	35	4	13	0.3	command +SAR	ramjet
SA-11	28	3	14	0.03	SAR ?	?
USA						
IMPROVED						
HAWK	40	?	18	0.03	SAR	rocket

SAR=semi-active radar

지원차량을 포함하여, 각종 레이더 (고고도 펄스 포착, 저고도 CW 포착 및 Illuminator) 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지원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지 못한 체제가 될 수도 있으나, 구매국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 및 이용되고 있다.

미육군은 신형이기는 하나 가격이 보다 고가인 PATRIOT 미사일로 그의 개조형 HAWK 대대를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Thomson-CSF 및 MBB 사에서 권장하고 있는 한 산업팀은 4년간의 1억 4,000만불의 계획으로 대부분의 NATO 체제를 향상시키고 있다.

Northrop사는 개량형 HAWK 미사일 조작 요원들에게 목표물의 시각적 영상을 제공하고 저고도 추적과 조밀하게 구름지어져 있는 목표물의 식별 및 적 항공기의 확실한 식별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광학 Tracking Adjunct

System을 지원하기 위하여 1,47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리측정 레이더 (Range Only Radar)」가 실험한 ECM 환경에서 제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Stand-off Jamming 항공기의 위협과 대처하기 위하여 더욱 개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른 무기를 찾고 있는 군은 소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광범위하게 수출된 소련체제는 SA-3 GOA와 SA-6 GAINFUL을 들 수 있다. 이 두 미사일 체제는 전투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제4차 중동전 당시 SA-6의 출현은 전쟁초기단계에서 이스라엘의 공격기에게 큰 경종이 아닐 수 없었다.

추적차량에 적제된 SA-6와 그의 STRAIGHT FLUSH 레이더 차량은 적이 이동하면, 새로운 사격진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위치에 설치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조형이 시리아에 취역하고 있다고 보고될 바 있다.

SA-11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나, 미정보사회에서 누설된 평가된 성능에 따르면, SA-11은 SA-6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의 자동회전식 차량에는 FLAP LID 추적 레이더를 포함하여 4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으며 다른 차량에는 1개의 입체식 CLAM SHELL포착 Set가 장착되어 있다. 최초형은 SA-6 레이더 체계를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

### 단거리 체제

서구라파에서 개발한 3가지의 단거리 미사일 체제가 미사일 판매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CROTALE와 ROLAND 및 RAPIER 미사일은 모두가 5km 정도의 단거리를 유도하는데 SA-CLOS(Semi-Automatic Command to Line-of-Sight) 유도방식을 사용하나, 영국에서 개발한 무기는 프랑스나 독일에서 즐겨 사용하는 근접폭파신관(Proximity Fuzing) 보다는 충격폭파신관(Contact Fuze)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RAPIER 미사일 체제는 견인식 체제로서 이용되었으나, 현재 영국 육군은 이란을 위하여 최초로 개발된 자동회전식 TRACKED RAPIER 체제를 채택하였다.

ROLAND와 TRACKED RAPIER 미사일 체제는 하나의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추적차량에 적재되어 있으나 CROTALE 미사일은 2개의 유폐차량에 적재되어 있다.

CROTALE 미사일을 최근에 개조하여 개발

한 미사일은 SICA 미사일로서, 이는 사정거리가 약간 긴 미사일과 새로운 Pulse-Doppler 감시레이더를 사용하며, 발사대가 6개로 되어 있다. 이 미사일 체제의 한가지 형은 SHAHINE 미사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용으로 개발하였으며, AMX 30을 기조로 한 추적차량을 사용한다.

ROLAND 미사일은 2가지 형이 있다. 최초형인 ROLAND-1 체제는 오직 청천후(Clear-weather) 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ROLAN-2 체제는 400m 시계까지 작전을 할 수 있다. 미국은 ROLAND-2 미사일을 채택하였으나, 이는 미국의 국방예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미국의 최단거리 SAM은 CHAPARRAL 미사일로서, 이는 AIM-9 SIDEWINDER 열추적 미사일의 MIM-72형을 사용하는 지대공 무기 체제이다.

ROLAND 미사일은 CHAPARRAL 미사일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보충할 것이다. 따라서 미 육군은 개량형 탄두와 Rocket Motor는 물론 근접신관과 성능이 우수한 Seeker를 통합한 개량형을 인도하였다.

수출될 소련의 이와 같은 종류의 미사일은 IR-homing SA-9 GASKIN으로서, BRDM-2 유폐차량에 4발의 미사일이 적재되어 있다. ROLAND 미사일과 개념상 비슷한 SA-8 GECKO 미사일이 소련의 전선부대에 서서히 취역되어 왔으나 서독주재 소련군 부대보다는 소련주둔 일선부대에 조기 인도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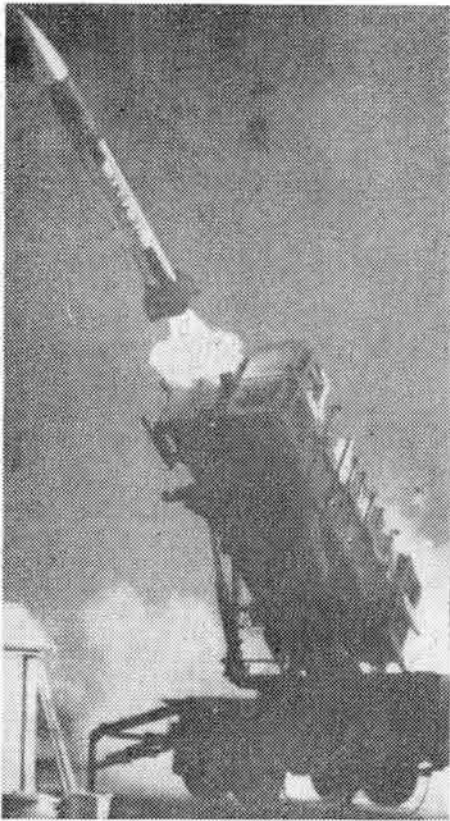
조기형의 이 미사일 체제는 6륜발사차량에 4발의 미사일이 항시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으며, 밀봉된 발사/저장 콘베이너에 6발의 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는 최신형이 보고된 바 있었다. 소련의 최신무기는 SA-13으로서 이는 Gaskin을 대치하기 위하여 작년에 최초로 야전배치되었다. 거리측정 레이더를 포함하여 4~6발의 IR-homing 미사일이 장치된 추적차량이 보고된 바 있다.

이테리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Sistel사에서는 Indigo-MEI, SACLOS 유도방식의 미사일 체제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2대의 M 548 추적차량에 적재되어 있다. 이 무기는 이테리 육군에서는 채택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ROLAND 미사일을 채택할 것 같다.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FRANCE						
CROTALE	8.5	0.5	3.6	0.05	SACLOS	rocket
SICA	10	0.5	?	?	SACLOS	rocket
INTERNATIONAL						
ADATS	8+	1	5	?	laser beam	rocket
ROLAND	6.3	0.5	3	?	SACLOS	rocket
SKYGUARD	18?	1?	5?	?	SAR	rocket
ITALY						
INDIGOMEI	10	1	15	0.02	SACLOS	rocket
JAPAN						
TANSAM	10	?	?	?	passive IR	rocket
SOVIET UNION						
SA-8 GECKO	12	3	10	0.05	SACLOS	rocket
SA-9						
GASKIN	7	0.6	5	0.02	passive IR	rocket
SA-13	7	?	10	?	passive IR	rocket?
UK						
RAPIER	6.5	1	3	?	SACLOS	rocket
TIGERCAT	5+	?	?	?	command	rocket
USA						
CHAPARRAL	3+	?	?	?	passive IR	rocket

SACLOS=semi-active command to line-of-sight  
SAR=semi-active radar



앞으로 NIKE, HERCULES와 HAWK 미사일, PATRIOT 미사일로 대체될 것이다.

일본 자위대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Toshiba사에서 개발한 TANSAM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된 바가 없다. 화력조종장비와 4개의 발사대가 있는 차량은, 공중으로 수송할 수 있는 3.5톤 트럭을 기초로 하였다. 동 미사일은 2가지 색깔의 적외선 Seeker와 최신 신호 처리기술을 사용하며, 이는 지형 "Hot Spots"와 같은 오(False) IR Sources로 기만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총 76체제가 주문될 예정이다.

최신 자동회전식 체제는 Oerlikon사의 AD-ATS 미사일 체제이다. 이 체제는 Laser beam 유도방식을 사용하며, 대항공기 및 대전차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각 추적발사차량에는 8발이 장착되어 있고, 발사시험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1985년에 작전화될 예정이다.

단거리 미사일 체제는 모두가 차량에 적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체제는 적합한 장소로 견인되어 재래식 대공포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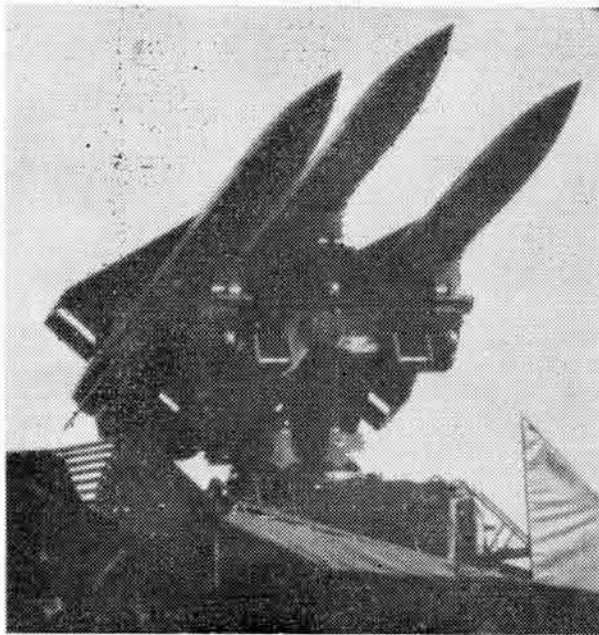
영국의 RAPIER 체제는 전인체제로서 개발되어 전개되었으며, 영국주둔 미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형으로서 미 공군에서 구입하고 있다.

은밀작전(Silent Operation)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획한 개조계획에는 피동적외선 감시체제와 Laser 거리측정기는 물론, Night-vision Channel이 포함되어 있다.

TIGERCAT의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며, 개발회사는 경량발사대와 소형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신형 Mk-2형에 대하여 최근에 수출 주문을 받았다. 모든 형은 지령유도방식을 사용한다.

Contraves사에서 개발한 SKYGUARD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국가도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 발사시험은 SPARROW 미사일을 사용하여 1980. 10.에 이미 시작하였고, Selenia사의 ASPIDE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Contraves사는 몇 개의 구매국가들과 잠정적으로 협상 중에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최초



네덜란드의 Twent 공군기지에 전개된 개조형 HAWK 미사일. 초기형 HAWK 미사일은 과거 20년 동안 자유세계의 방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주문을 발표할 희망을 갖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종류의 장비는 CHAPARRAL의 M-54 형으로, 이는 비행장과 같은 고정된 시설물을 방어할 수 있는 헬리콥터로 수송할 수 있는 형이다.

#### 휴대용 체제 (Man-Portable Systems)

대부분의 20세기 동안에는 각개 병사들은 공중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였으며, 경기관총으로 비효율적으로 사격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무기가 미국의 REDEYE 미사일로서 이는 병사가 어깨에서 발사하는 적외선 Homing 미사일이며, 1960년

대에 취역하였다.

현재 이 미사일은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개조형 미사일인 STINGER 미사일이 1981년 2월에 미 육군에 취역하였다.

현재 4,000발 이상이 주문 중에 있으며 제작 회사에서는 총 7,000발 이상을 제작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미 육군과 해병대는 STINGER 미사일을 전개할 것이며, 미사일이 적의 방해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저항하게 할 수 있는 2중 주파수의 적외선/자외선 Seeker의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최신 IR-homing 무기는 소련의 SA-7 GRAIL 미사일이다. 최초형은



Flare와 같은 적의 방해수단에 민감하나, Mod 1 개조형은 이에 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Seeker가 기만 당하지 않도록 각종 Filter를 통합시켰고 개조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개조에는 Seeker가 시제의 다른 더운 IR원에 Lock-on 하게 하는 장치도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전술은 Flare나 다른 IR의 기만의 효과를 종종 극복할 수도 있다.

REDEYE 미사일과 같이 SA-7 GRAIL 미사일도 도주하는 항공기의 더운 열이 나는 제트 파이프에 발사하기 위하여 「후미추적」 방식을 사용한다.

### Man-Portable Missile Systems

Designation	Range (km)		Ceiling (km)		Guidance	Propulsion
	Max.	Min.	Max.	Min.		
FRANCE						
SATCP	5	<0.5	5	0.5	passive IR	rocket
SOVIET UNION						
SA-7 GRAIL	3.5	?	4.3	0.025	passive IR	rocket
SWEDEN						
RBS 70	5	?	3	?	laser beam	rocket
UK						
BLOWPIPE	3+	?	2	?	command	rocket
USA						
STINGER	5	?	3	?	passive IR	rocket

일본의 Kawasaki사에서는 KEIKO라고 부르는 적외선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 계획은 초기단계에 있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취역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의 Matra사에서도 SATCP 휴대용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무기는 2가지 하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Pulse-Doppler 감시 레이더를 사용하는 완전한 차량적재형과 포탑에 장치된 해군체제를

포함하여 각종 개조형 미사일이 계획 중에 있으며, 경량 휴대용(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불탄서의 신속전개 군용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또한 Radar-homing 미사일형이 1990년대에 취역하기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RBS 70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하여 Bofors사에서는 Laser Beam Riding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이 유도체제는 열추적미사일이 사용하는 간단한 발사대보다 많은 지상장비를

필요로 하나 모든 목표물에 효과적이고, ECM으로 기만하기가 곤란하다. 프랑스의 SATCP 미사일 체제와 같이 이 무기체제는 장비를 2인이 휴대한다.

LAND ROVER이나 또는 M 113 및 IKv 103 APC와 같은 Platform을 사용하는 차량적체형에 대한 각종 발사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M 113의 시설장비에는 미사일 발사대와 목표물 포착 레이더 및 야간 조준경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장비는 1984년에 구매국들에게 인도 하도록 준비될 것이다.

소련은 SA-7의 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무기가 Laser Beam Riding 유도방식을 사용한다고 1970년대 후반에 보고된 바 있었으나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

BLOWPIPE 미사일은 간단한 지령유도방식을 사용하나, 개발회사에서는 미사일의 동체와 탄두를 개조하여 SACLOS 유도형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표준형에 대한 생산은 계속하고 있으나, 4발의 견인 또는 차량적체형에 대한 설계작업을 하고 있다.

< 名 將 名 言 >

將軍이 명심해야 할 일이 다섯 가지 있으니, 첫째는 理요, 둘째는 備요, 세째는 果요, 네째는 戒요, 다섯째는 約이다.

理란 많은 兵士 다스리기를 마치 적은 兵士 통솔하듯 함이며, 備란 문밖에 나서면 敵을 대한듯 내쳐함이며, 果란 敵과 싸움에 살 생각을 품지 않는 勇氣이며, 戒란 勝利하여도 序戰 때의 긴장을 품지 않음이며, 約이란 法令을 省略하여 簡素化함이다.

將之所慎五 一日理 二日備 三日果 四日戒 五日約

理者 治衆如治寡 備者 出門如見敵 果者 臨敵不懷不懷生 戒者 雖克如始戰 約者 法令省而不煩

吳子<第四論將>

# 소련의 위성정찰활동과 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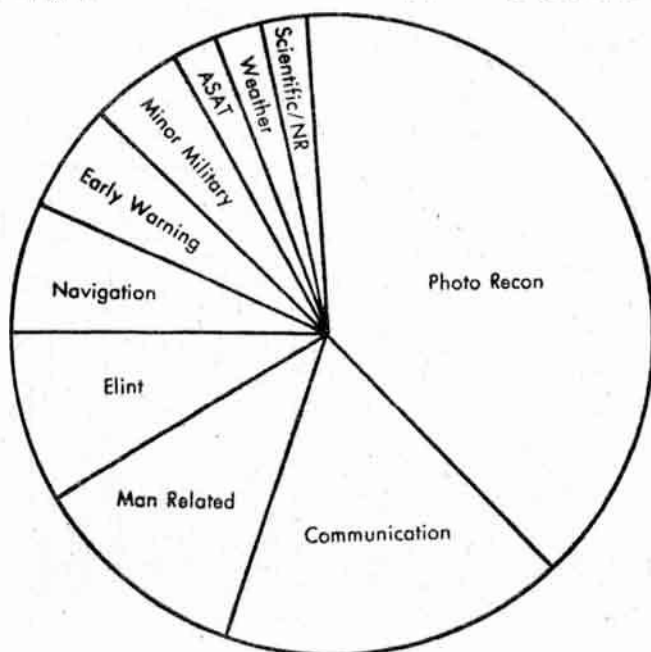
尹 炯 基 譯

1957년에 Sputnik-1이 발사되어 우주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기 전에도 전송장치를 통해서나 또는 캡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찰위성이 촬영한 각종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사진정찰위성을 궤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였다.

「정찰용 인공위성의 이용」이라는 제목의 Rand Corp의 보고서는 미국의 초기 개발노력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

정찰장비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각종 로케트의 제작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었던 소련의 과학자들은 아마 똑같은 노력을 해왔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시능력은 농업 및 자연자원을 모니터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하늘의 스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및 정치적인 제반 이익도 또한 충분히 인식되었다.



1980년에 궤도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을 기초로 한 소련이 비교적로 역점을 두고 있는 우주계획

미국의 이와 같은 노력은 18개월 동안 12개의 우주선을 손실한 후, Discoverer-13을 회수하는 일 외에도 1960. 8. 11. 에 지구궤도로부터 사진궤술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성공리에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Discoverer 계획의 실제적인 성공과 Tiros 기상위성에 대한 소련의 반응은 격렬하였으며, 1960. 5. 소련상공에서 U-2기를 격추시킨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Discoverer-13이 회수된지 불과 9일 쯤해서 소련은 2마리의 개를 탑승시킨 Sputnik-2호의 궤도에서의 성공적인 회수를 발표하였으며, 소련 자신의 정찰위성의 가능성이 그때부터 확실하여졌다.

소련은 1962년과 1963년 봄에 정찰위성의 궤도발사를 중지하자고 미국에 제의하여 왔으나, 1963년 가을에 9회에 걸친 사진정찰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발사중지에 대한 제의를 위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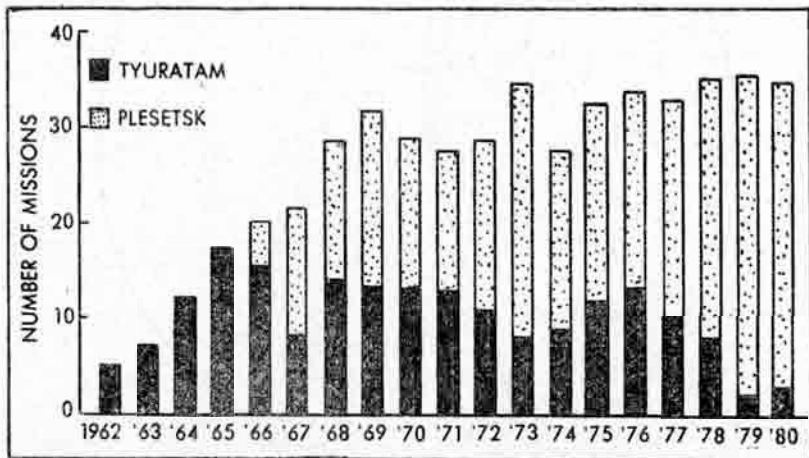
소련은 이와 같은 종류의 위성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미국, 구라파 및 세계도처의 동맹국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위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성들이 큰 가치를 갖고 있음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Data를 신속히 획득하여 무사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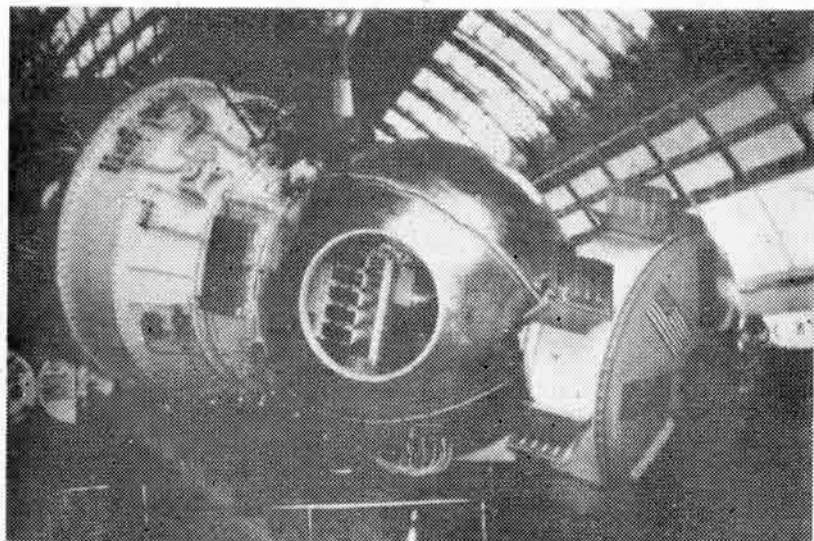
정찰위성은 미·소 양국이 상대방의 강·약점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냉전정후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1973년, 제4차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의 진격을 이집트에게 경고하여 주었고, 1977년 여름에 핵무기시험을 위하여 미국이 남아프리카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충고하기 위하여 소련이 이와 같은 우주의 눈을 사용하였다는 보고서는 사진정찰위성이 전술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 제반 작전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련은 이와 같



이 도표는 소련이 지구에 대한 사진정찰임무를 수행하는데 투자하는 연간 투자액을 표시한 것이다.



**Kosmos-782 생물학용 우주선. 최근에 2주일간의 장기간 체류한 소련의 사진정찰위성은 이와 같은 형일 수도 있다.**

은 정찰위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 소련의 추세(1971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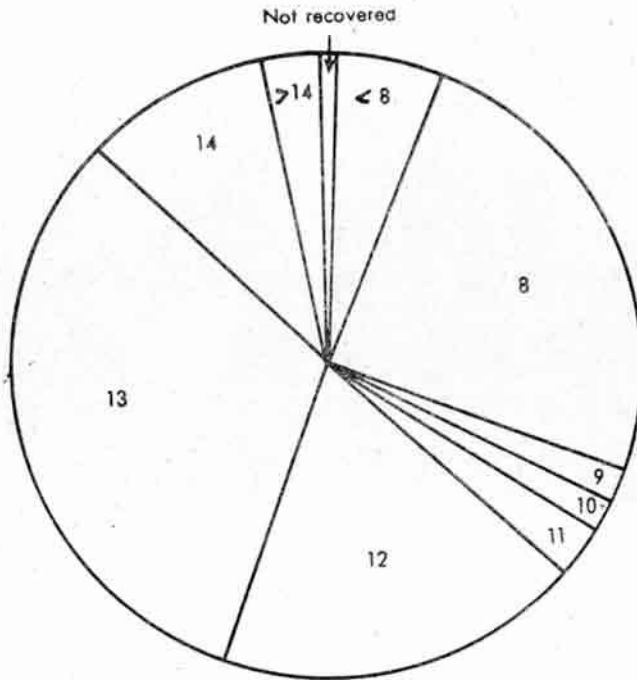
소련은 1971년 이후부터 사진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미국보다 우세한 위치에 있어 왔다.

이 사진정찰위성계획은 1980에 소련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모든 위성 중 39% 이상을 차지하였다(도표 1 참조). 1981. 1. 1. 까지 약 501개 정도의 무인 회수용 우주선이 지구감시용 사진정찰위성계획과 관계가 있는 우주선이며, 이 위성숫자는 1957년에서 1980년까지 소련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총 1,339개의 위성 중 3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도표 2 참조). 이 회수용 위성 중 대다수 위성은 낮은 지구궤도에 있으며, 2주 이내로 중요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지구로 귀환한다(도표 3, 4 참조). 이 중 4개의 위성은 재돌입 제제가 고장을 일으킨 후, 비동맹국가에서 회수하지 못하도록 궤도상에서 조심성 있게 폭파시킨 것 같다.

1970년 전까지는 매년 궤도를 비행하였던 대다수의 정찰위성들은 8일간 궤도비행을 하였으나, 과거 10년 동안에는 이 위성들은 12~13일간을 규칙적으로 비행하였다. 이는 소련의 정찰위성이 해상로와 장기간의 비행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소련의 우주정찰계획이 다양하고 유연성이 있다는 대표적인 한 예가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제4차중동전 기간 중에 나타났다. 전운이 고조되었을 때, 3개의 사진정찰위성이 3~4일간의 간격으로 발사되었으며, 종전과 같이 12~13일간 비행하지 않고, 5, 8일간만 궤도비행을 하고 회수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1962~80년간의 소련의 정찰위성의 비행을 궤도상의 체류비행기간별로 분류 세분한 도표임. 1980년에 수행한 임무 중 7개는 13~14일간 계속 비행을 하였음.

고문단들은 보다 적시의 전투시열을 이집트관 리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불과 3주반동안 에 7개의 소련 사진정찰위성이 궤도로 발사되 었다.

그러나 제반전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위성을 발사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소련의 우주군에 어떤 손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소련은 1975년에 새로운 세대의 사진정찰위 성개발에 대한 시험을 시작하였으며, 이 우 주선들은 6주 이상 동안 우주정거장에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민감한 정보자료를 즉시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재돌입 캡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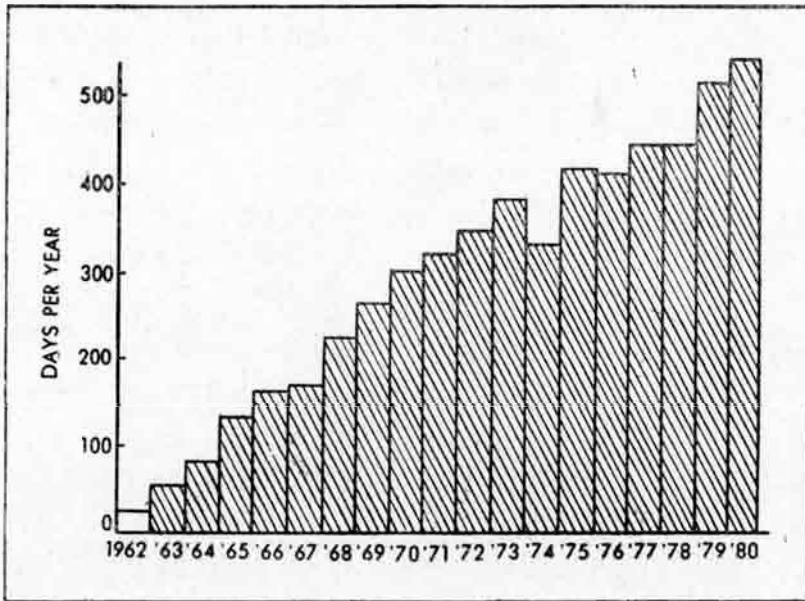
을 장치하고 있다고 한다.

\* 이와 같이 많은 위성들이 매년마다 궤도를 비행하고 있으며, 위성의 평균 궤도비행 수명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 어 보아 한 개 이상의 정찰위성이 항상 궤도를 비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궤도비행 수명시간 이 증가함으로써, 소련의 사진정찰위성이 매 년마다 완수하는 전체의 임무수행일수가 실제 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1979년에는 연간 증가 숫자가 500일을 초과하였다(도표 참조).

소련의 정찰위성은 Tyuratam과 Plesetsk에 서 발사되었으며, 이곳은 미국의 Kennedy





이 도표로 미루어 보아 소련의 정찰위성에 대한 노력이 1962년 이후부터 계속적인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974년의 감소는 제4차 중동전 기간 중, 1973년 후반에 기대하지 않았던 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Space Center와 Vandenberg 공군기지와 같은 곳이다. Tyuratam 기지에서 발사된 위성은 적도를 향하여 65° 또는 70°, 71°까지 경사된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Plesetsk 기지에서는 63°, 67° 73°, 또는 81°~82°까지 경사된 궤도로 위성을 발사한다. 궤도경사와 발사시간을 신중하게 선정함으로써, 소련은 거의 매년 전 세계의 지역을 최대로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가 있다.

Plesetsk에서의 위성발사는 대체적으로 Tyuratam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하루 늦게 발사하며, Tyuratam의 북동쪽지역에서의 모든 위성의 회수시간은 아주 규칙적으로 Tyuratam 시간으로 오전 약 11시경이다.

이와 같이 회수시간이 규칙적인 것은 위성

사진체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경미한 방해요인들 때문일 것이다.

정오에 가까운 시간에 통과하면 많은 목표물들을 충분히게 비출 수가 있으며, 이른 아침과 오후 늦게 나타나는 긴 그림자는 특별히 관심이 있는 목표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계의 여러 지역들을 각 회전기간 동안 전형적으로 비추게 하는 시험을 함으로써 더욱 더 알 수 있다.

#### 고 · 저사진해상도 (Low and High Photo Resolution)

아주 최근까지는 소련의 사진정찰임무는 고 · 저사진해상도의 2가지 형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전자의 저사진해상도(Low Photographic Resolution)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동목표물이나 또는 건축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Wide-angle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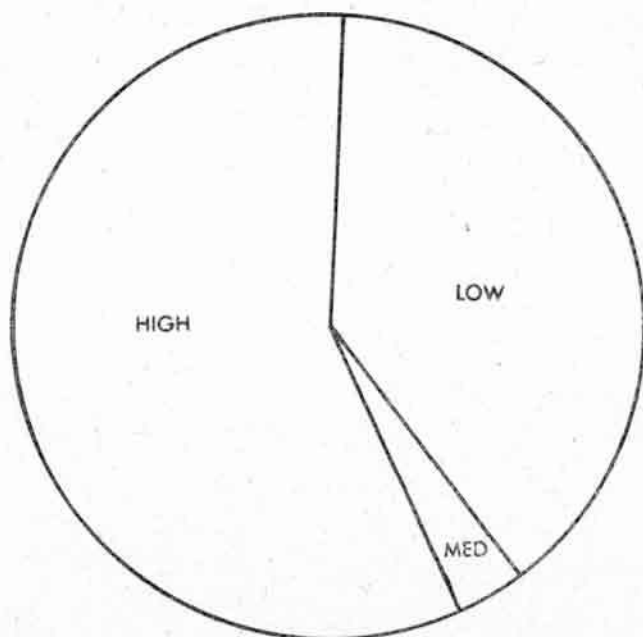
이와 같은 변화가 포착되면, 어떤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보다 좁은 시계를 사용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고해상도 임무를 항시 뒤이여 시작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소련의 모든 정찰임무 중, 약 58%는 각종 고해상도 임무였다(그림 참조).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중간해상도 임무가 구식의 저해상도 임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위성은 약간 높은 궤도를

비행하면서 2가지의 고·저해상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계가 보다 작은 카메라를 사용 기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Tyuratam 기지가 사진정찰 계획임무를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의 군사정보에 대하여 관심을 끌어왔던 중동에서 있었던 소련의 최근의 제반 활동은 이와 같은 다재다능한 우주선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

1980. 11. 12~28 동안 새로이 조직된 미국의 신속전계군은 카이로 근처에서 이집트군과 합동작전을 실시하였다. 훈련 첫날에 미군 요원들이 이집트로 공수되고 있었을 때, 소련은 Plesetsk에서 중간해상도의 위성정찰위성



위 도표는 1962~80년간 소련의 저·중·고해상도 사진정찰임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에는 중해상도 임무가 전체 사진비행 중 거의 1/4에 달하였다.

인 Kosmos-1, 221호를 발사하였다(그림 참조).

24시간이 되기 전에 Kosmos-1, 221호는 오후 1:15분에 255km의 고도로 카이로 동쪽 약 40km 지역을 통과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위치에서는 전개되는 훈련을 쉽게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이로 서쪽 공항에서 지난 밤에 추락하였던 미국의 C-141의 잔해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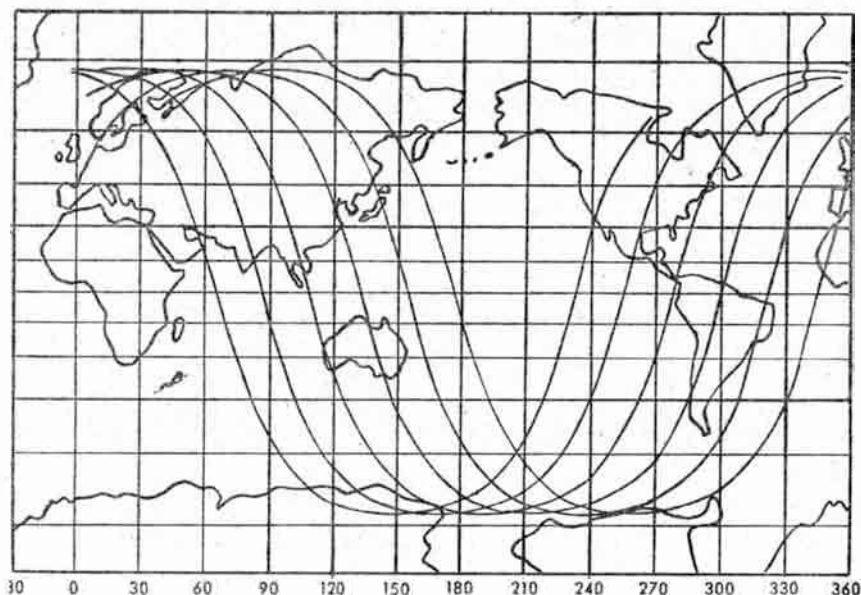
다음날인 11월 14일에 Kosmos-1, 221호는 대략 똑같은 시간과 고도로 카이로 서쪽을 통과하였으며, 훈련이 종료되고 있었을 때인 11월 26일에 지구로 회수되었다.

두번째의 소련 정찰위성이 카이로 시간으로 오전 8시 바로 전, 11월 17일에 185 km 고도로 카이로 상공을 통과하였다. Kosmos-1, 218

호로 부르는 이 정찰위성은 Tyuratam 기지에서 보다 낮게 경사된 궤도로 1980. 10. 30일에 발사한 최신세대의 고해상도 정찰위성이었다.

3일 후 그리고 계획된 궤도기동의 불과 수시간 전, Kosmos-1, 218호가 Khorramshahr 및 Ahwaz의 바로 서쪽방향과 165~175 km의 고도로 Dezful 및 Tehram 지역 상공을 직접 통과하였을 때, 소련의 관심은 이란·이라크전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과거 10여년 이상동안, 소련 정찰위성에 대한 각종 다른 임무간의 구별이 영국인인 Geoffrey Perry씨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Perry씨는 소련의 우주선에서 각종 원격회수신호를 방수(Intercept), 분류하여 충분한 분석을 한 후에 전반적으로 3가지의 임무형태로 구별할



Kosmos-1, 221호의 최초 6회(1980. 11. 12~26간) 선회 과정을 표시한 도표이다. 소련 사진정찰위성은 대부분이 고도로 경사된 궤도를 비행하며, 아는 가급적 전 세계를 사진 촬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의 분류방법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였으며, 미 상원에서 발표된 5개년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1969~1976간의 대다수의 비행은 우주의 체류기간에 따라 고해상도 또는 저해상도별로 잠정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2일간의 임무 중 81%는 저해상도임무였고, 13일간의 임무 중 92%는 고해상도임무였다. 그러나 1976년 이후, 4년 동안에는 12일간의 임무수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고해상도임무인 13일간의 임무는 전체의 고해상도 임무 통계수의 %와 거의 같다.

1개월간 궤도비행을 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이 현재 2주간 비행하는 위성을 점차적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가서는 소련의 사진정찰위성의 인간 수가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동이 불가능한 우주선도 보다 다목적의 중간해상도위성으로 전체적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Tyuratam 기지에서의 제반 위성의 운영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추측되며, 반면에 Plesetsk 기지에서는 73도와 81도 그리고 82도까지의 급경사의 궤도에 집중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

따라서 소련은 미국이 주로 사용해온 역태양동위궤도의 사용을 꺼려해 왔다. 이 궤도는 일정한 위치에 대하여 실제로 일정한 태양각을 허용하며, 새로운 건설이나 또는 각종 부

대의 이동 등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소련이 훨씬 장기간 동안(수개월 동안) 궤도를 비행하면서 캡슐이나 디지털 송신방식으로 각종 사진을 지구로 회송할 수 있는 정찰용 우주선을 개발할 때까지는 잠정적인 여러 가지의 이점보다는 이 궤도상에서 발생하는 총량상의 여러 가지 결점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지리적, 기상학적, 해상학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구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주에 영구적인 유인전초기지를 개발할 것을 소련은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소련은 아직도 계속 시험하고 있다.

1979년에는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Ryumin과 Lyakhov는 궤도를 비행하는 Salyut-6 우주정거장의 선체에서 거의 6개월 동안을 체류하였으며, 소련은 이 해에 19년 계획의 역사상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유인사진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각종 전술 및 전략목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이 유인군사 Salyut 계획은 1973~1977년 간에 3개의 특수 저고도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중에 7회의 중요한 실패를 체험한 바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중지하여 왔다.

따라서 하늘의 Robot 「스파이」는 앞으로 수년 동안, 그의 기계적인 눈을 계속 훈련할 것 같다.

×

×

×

# TU-계열의 항공기

尹 龍 鉉 譯

투폴레프(Andrei Tupolev)는 「러시아 항공의 아버지」 주코프스키(Nikolai ye Zhukovsky) 교수가 組織한 모스크바 高等技術學校(MVTU)의 航空研究 所를 出身으로서 世界的인 폭격기 設計者다.

그는 TU-4에서부터 戰略폭격기 TU-26 (Backfire)에 이르기까지 소련 폭격기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TU계열의 항공기를 設計하였다. 그래서 TU계열 중 몇몇 代表的인 機種들을 골라 그 항공기의 概要와 性能 및 諸元 등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특히 중복되는 명칭들이 많아 혼동하기 쉬운 점 등에 착안하여 그 명칭을 分明히 하는데 노력하였다.

— 譯者 註 —

## 1. TU-28(Fiddler)

TU-28(Fiddler)은 매우 重要的 特性을 지닌 戰鬥機이지만 소련이 運用하고 있는 戰鬥機中에서 잘 公開되지 않았던 飛行機다. 그런데 1959年 美國 CIA의 첩보기 U-2機에 의해서 사진이 입수되었을 때 의견상 TU-98(Backfin)과 유사하여 식별이 매우 모호하였다. 그후 1961년 TU-105가 出現했을 때 이 TU-105가 Backfin에서 기인한 중폭격기라는 사실이 확실히 되자 이 항공기들의 실제 역할에 따라 명칭을 새롭게 하여 TU-102와 TU-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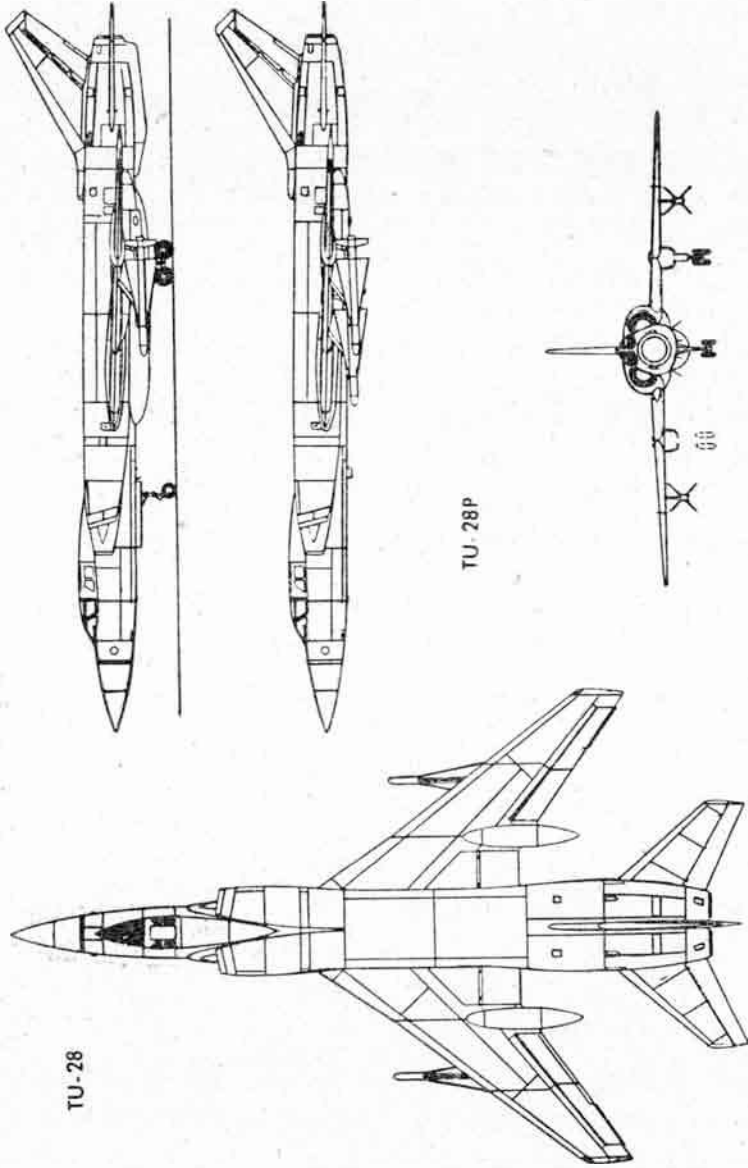
을 Fiddler라 하고 TU-105와 TU-22는 Blinder라 부르게 되었다.

TU-102/TU-28(Fiddler)은 YAK-25의 대체기로 보다 향상된 독자적 작전수행과 전천후 요격능력을 지닌 항공기로 生産하였다. 초기엔 YAK-25와 TU-102(Fiddler-A)를 경쟁생산하였으나 YAK-25가 먼저 完成되어 1956년 전반기에 비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1956년 6월과 59년 11월에 發生한 두 건의 사고로 인해 生産을 中斷하고 YAK-25대신 TU-102를 1961년부터 生産하기 시작했다. 이 TU-102는 두 개의 Lyulka AL-7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보다 우수한 요격임무(hunter-killer)를 수행하기 위해 카누형의 커다란 레이더 돔을 동체하부에 장착하였다. 요격임무시에는 AA-5 Ash 미사일을 유도하는 2개의 空對空 레이더를 사용했다. 1967년에는 전천후 요격능력을 갖도록 개량한 TU-28P(Fiddler-B)를 생산하였는데 이 항공기가 그 동안 소련이 제작한 전투기 중에서 가장 큰 戰鬥機일 뿐 아니라 대단한 制空力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美國의 F-102와 비교해 볼 때 性能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1974년부터 점차적으로 TU-22(Blinder)를 요격기로 개조한 TU-128로 대체하면서 TU-28은 SAM(Umbrella)이 部分的으로 방어하지 못한 地域을 초계비행하도록 임

무를 부여했다. TU-28의 체공능력은 보조연료탱크나 飛行中 재급유를 받지않고도 약 3시간 30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機首

部分에 장거리 대형 레이더와 Sukhoi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총 가동대수는 130~400대 정도로 판단된다.

Tu-28의 삼면도



Tupolev TU-102(Fiddler-A)/TU-28P  
(Fiddler-B)

임무 : 전천 후 장거리 요격기(복좌)  
엔진 : 2×7,000 kg/st(연료 : 4,070 gal)  
제원 : 스펜 (19.3 m)  
기장 (27.25 m)  
기고 (5.83 m)  
무게 : 45,000kg(최대이륙중량)  
性能 : 最大速度 (1,840 km/h)  
巡航速度 (1,015 km/h)  
실용상승고도 (16,000 m)  
戰鬪行動半徑 (900~1,440 km)  
항속거리 (3,450 km)  
무장 : 4 ×AA 5 Ash 공대공미사일  
2×radar  
2×IR Homing

## 2. TU-126(Moss)

TU-126(Moss)을 美 國防省은 SU AWACS, 파키스탄 情報局에서는 Spider라고 부르는데 이 항공기는 TU-114 Rossiya에다 조기경보탑재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TU-114의 機體를 거의 變形시키지 않고 胴體 위에는 직경이 1 m인 회전 레이더돔을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개조는 美國 Lockheed社가 Warning Stars, AWACS, Hawk eye 등을 채택해서 개조한 것과 유사한 方法이었다. TU-126에 대한 情報은 1960년대 중반쯤에 밝혀지기 시작하여 1968년에 이 비행기에 대한 확실한 偵察 사진정보가 公開되었다.

이 항공기는 1967~70년 사이에 작전배치되었는데 종전에 지상에서 戰鬪機까지 요격정보를 제공하던 체제를 탈피해서 미국의 조기경보기가 하는 역할처럼 주로 방공작전을 하는 Fiddler, Flagons, Foxbats와 함께 作戰을 한다. 또한 TU-126은 MIG-21의 制空作戰과 SU-17의 對地攻擊作戰을 유도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TU-126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戰爭에서 인도의 戰鬪機 作戰을 유도해 왔으며 근래 아랍-이스라엘戰에서도 아랍空軍과 協力했다고 한다. 現在 소련 空軍은 10~12대의 TU-126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TU-114, TU-114D, TU-95의 特性과 技術的인 資料가 TU-126과 거의 유사하고, 다만 巡航速度와 항속거리, 최대적재량만이 약간 차이가 난다.

## 3. TU-16(Badger)

1951년 TU-16은 美國 Boeing社의 B-47에 맞서는 새로운 제트 中폭격기로 開發에 착수, 開發期間中에는 쌍발 제트엔진(Samolot N)을 장착하여 TU-88이라 불렀다. 초기엔 IL-46과 경쟁 生産하였으나 IL-46은 오래가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되고 뒤져잡각의 날개를 갖는 비행기인 TU-88(TU-16)원형기를 제작했다. 서방제국의 정보소식통들은 이 새로운 항공기들을 확실하게 식별하지 못해 여러 명칭을 사용하다가 TU-104가 公式의으로 出現하게 되면서 점차 확실시되어 이 새로운 비행기를 TU-88(Badger)라 했다. TU-88(TU-16)은 급속한 開發을 하게 되어 1952년에 원형기가 이미 비



행하였으며 1953년 11월에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TU-88(TU-16)의 공식적인出現은 1954년 5월 1일, Air Show에서 9대가 첫선을 보였다. 이듬해 항공의 날 Air Show에서 총 54대의 폭격기가 공중 퍼레이드를 하며 소련 전락공군이 이미 막강한 中폭격기로 무장하였음을 과시하였다.

原型機와 예비생산 항공기는 두 개의 8단계 Mikulin RD-3 터보제트엔진(6,750 kg/s)을 장착하였으나 大量生産된 항공기는 AM-3M(혹은 RD-3M) 제트엔진(9,500 kg/s)으로 바꾸어 生産했다. 무장은 23 mm Cannon 한쌍을 장착한 2개의 원격조종 銃座가 있고 오른편 機首部分에 또 다른 Cannon이 있으며 폭탄 bay에 약 9,000 kg의 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 또한 해군 항공대에서는 해상정찰 항공기로서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이상적인 항공기라고 했다.

다음은 TU-16의 개량형들이다.

Badger-A :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같이 초기에 생산했던 것으로 중공 공군과 이집트 공군(6일 戰爭時 20~30臺가 격추) 그리고 이라크(6臺)에 배치되었다. 또한 몇 대는 空中급유기로 개조되고 나머지는 訓練과 氣象觀測用으로 사용되어 왔다.

Badger-B : 두 개의 AS-1 Kennel 미사일을 장착한 첫 미사일 운반용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이라크 공군등지에서도 활약했었다. Badger-A와의 차이점은 날개에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두 개의 Hard point가 있고 동체 중앙부에 대형 유도미사일이 있다.

Badger-C : 해상정찰용으로 사용되며 AS-2

Kipper 미사일을 폭탄 Bay에 운반하도록 개조하였다. 이 개량형은 이제까지 외국에 수출된 바가 없다.

Badger-D : 대형 레이다를 앞 부분에 장착하고 배부분에는 세 개의 작은 레이다돔을 갖도록 개조한 해상정찰용으로 배부분에 장착된 레이다 돔은 접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집트 공군에는 아직도 취역 중에 있으며 소련 승무원이 동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1년에 發見되었다.

Badger-E : 폭탄 Bay에 카메라를 장착한 Badger-A의 개량형으로 전락정찰용이다.

Badger-F : Badger-E의 날개 하부에 전자장비를 부착하여 종종 해군 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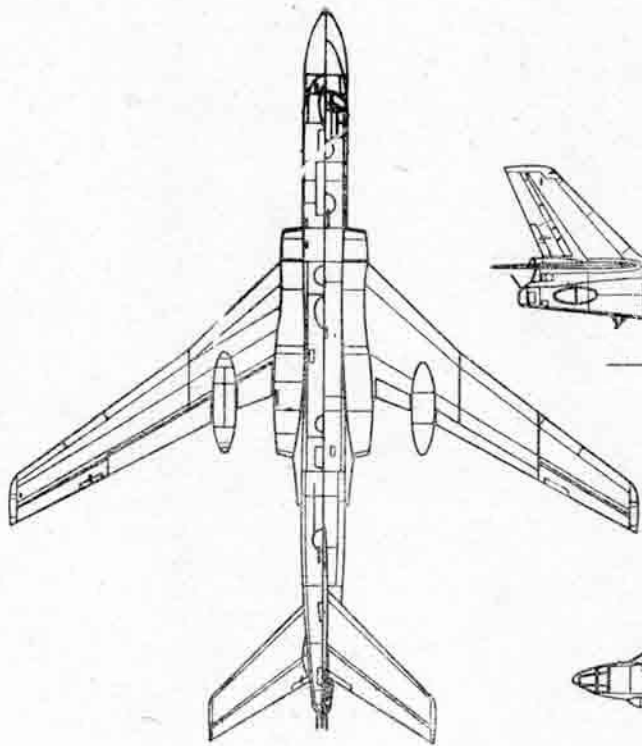
Badger-F : Badger-E의 날개 하부에 전자장비를 부착하여 종종 海軍의 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adger-G : AS-5 Kelt 미사일을 장착한 Badger-B의 개량형으로 약 18대가 이집트空軍에서 취역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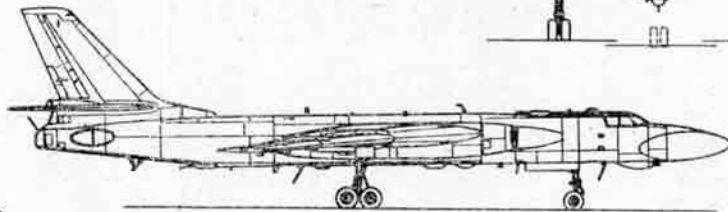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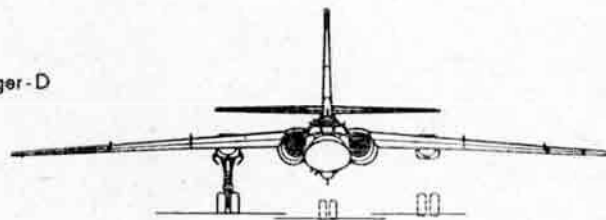
이제까지 소련은 약 1,500~2,000대의 TU-16을 제작하였고 최근에 들어서는 生産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中共에서는 1970년대 초 탄도미사일을 작전배치할 때까지 원자탄 운반용으로 이 모델을 제작하기 시작했었다.

소련은 점차 TU-16을 TU-22(Blinder)로 대체하여 현재는 약 4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나라의 TU-16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中共(60~100대), 이집트(17~25대), 인도네시아(22대), 이라크(8~9대), 리비아(1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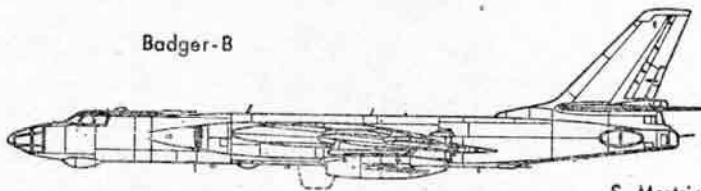


Badger-D



Badger-A

Badger-B



S. Mastrinor

TU-16/TU-88 (Badger-D)

임무 : 戰略 중폭격기 (7명의 승무원)

엔진 : 2×9,500 kg/s Mikulin AM-3M, RD-3M Axial Turbojet.

諸元 : 날개 길이 (33.5 m), 기장 (36.8 m), 기고 (10.80 m), 날개 면적 (169.0m<sup>2</sup>).

무게 : 적재 하중 (68,000 kg)  
최대 이륙중량 (77,000 kg)

性能 : 最大速度 (945 km/h)  
巡航속도 (786 km/h)  
실용상승한도 (13,000m)  
항속거리 (6,400 km)

무장 : 6×NR-23 (Nudelmann-Richter 23mm Cannons) 2×AS-1 Kennel/AS-5 Kelt 또는 AS-2 Kipper (空對地 미사일)

4. TU-20 (Bear)

設計時에는 TU-95라 불렀고 취역할 때는 TU-20이라 (NATO名 Bear) 불리우는 이 비행기는 Mya-4 (Bison) 이나 TU-16과 유사한 점이 많다.

TU-20은 Tupolev가 미국의 B-29를 기초로 해서 설계한 전략폭격기 중 맨 마지막 작품으로 소련의 戰略空軍에 배치하기 위해 設計하였다. 그러므로 Mya-4와 같은 폭격기들이 갖고 있던 항속거리가 짧은 問題點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設計者 Tupolev는 TU-20을 설계할 때 TU-85 (Barge)의 동체를 모방하고 엔진은 미국의 B-29 왕복동엔진 즉 소련제 TU-4 (Bull) 엔진을, 날개는 뒤처짐각이 있는 날개 형태를 채택했는가 하면 대형축류 터보제트의

막대한 연료소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터보프롭엔진을 개발하여 당시 제트폭격기들이 기록하는 속도에 가깝도록 하였다. 그래서 TU-20은 터보프롭으로 구동되는 항공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되었다.

TU-20 (Bear-A)은 1954년 늦은 여름에 처녀비행을 하고 1955년 7월에 TU-Shino에서 첫 선을 보인 후 1956년 중반에는 이미 소련의 전략공군에 작전배치 완료하였다.

Tupolev는 TU-20으로부터 TU-114 (NATO名 Cleat)를 창안해 냈는데 서방 정보분석가들은 TU-114의 성능에서 TU-20의 성능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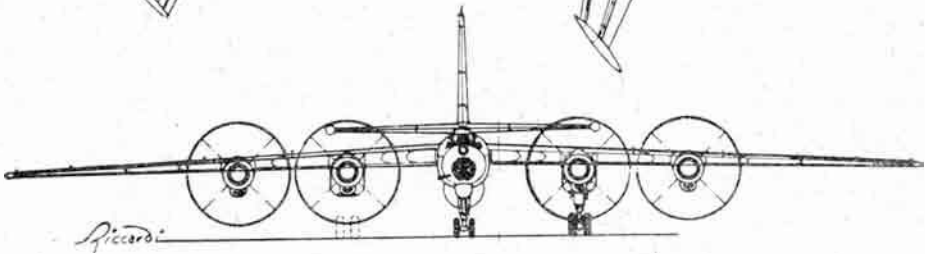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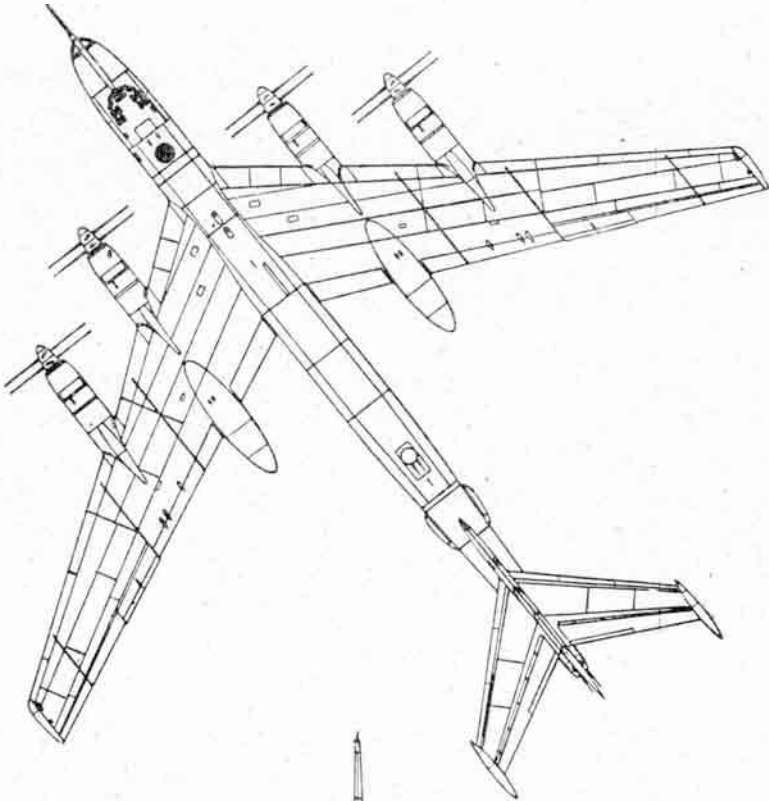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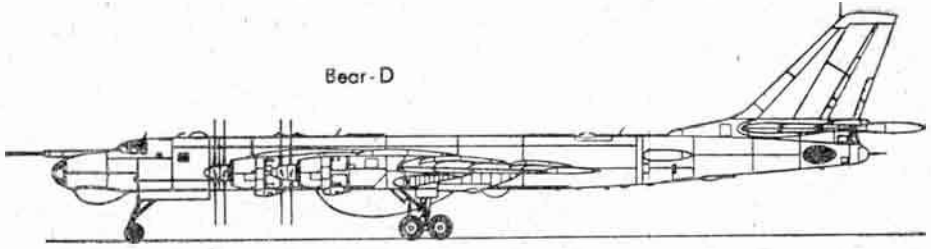
TU-95/20 (Bear-B)를 특별한 目的에 부합하도록 개량한 각종 개량형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Bear-B : 1961년에 소개되었으며 폭탄 Bay를 개조하고 AS-3 Kangaroo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했음.

Bear-C : 전략정찰용 및 대잠기로 개량하였으며 폭탄 Bay에 전자장비를 장착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체 양쪽에 레이더돔이 있다.

Bear-D : 이 개량형은 1967년 여름에 처음 식별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형기를 개조하여 공중급유장치, 향상된 항법장비, 순항미사일을 추적해서 유도할 수 있는 대형 레이더돔 등을 장착했다. 이 항공기는 미익 끝부분의 유선형 구조 (fairing)에 의해 즉시 식별 가능하다.

Bear-E : Bear D를 사진정찰용으로 개조하였으며 Radar돔 대신에 6~7개의 사진기를 장착하고 미익 끝 부분이 유선형구조 (fairing)가



아닌 것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다.

Bear-F: 안쪽 엔진의 낫셀을 보다 큰 유선형 구조로 개조한 이 개량형은 1973년에 출현하였으며 여러 개의 레이다돔은 해군 순항미사일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TU-20은 최근 폭격기로서 중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1975~76년 사이에 약 100대 정도만 가동되고 77년부터 점차 Backfire-B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현재 소련 공군에는 전자장비를 탑재한 후 약 50대의 C, D, E, F형이 대잠목적과 순항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TU-95/TU-20(Bear-A)

임무: 戰略重폭격기 (승무원 6~7명)

엔진: 4×12,000 HP

제원: 날개길이(48.5 m), 기장(47.5 m) 기고(12.2 m), 날개면적(292.6m<sup>2</sup>)

무게: 최대이륙중량(168,000 kg)

성능: 최대속도(881 km/h, Mach 0.83)

순항속도(807 km/h),

실용상승고도(13,500 m)

최대항속거리(12,550 km)

무장: 6×NR-23 Cannons, 30,000 kg(핵폭탄과 제라식 폭탄)

#### 5. TU-22(Blinder)

1961년에 TU-22 중폭격기가 公式적으로 出現하기 전에는 Myasishev나 Yakovlev 계열의 비행기로 간주되어 왔는데 미국의 B-52와 같

은 級으로 볼 때 性能은 약간 떨어진다. 이 TU-22는 미국의 B-47과 같은 級인 TU-16의 대체기로 생산했었다. IL-54가 이와 좀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TU-22(Blinder)는 TU-98(Backfin)를 기초로 하여 設計하였다. TU-98은 1955년 처녀비행을 하였으나 西邦世界에는 1957년에야 알려졌는데 이 비행기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TU-105/TU-22라 불리우는 새로운 원형기를 제작하여 1957~60년 사이에 작전화 하였다. 이 비행기가 公式적으로 출현한 것은 1961년 7월이었다. NATO에서는 초기 TU-22를 Beauty라고 명명했다가 후에 Blinder로 명칭을 바꿨다. 개량형은 그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Blinder-A: 초기에 개량한 것으로 전방 레이다돔이 동체에 완전히 부착되어 있고 비행 중 재 급유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미사일을 장착하기에 적당치 않게 되어 있다.

Blinder-B: 보다 광범위한 공격레이다와 공중급유 가능한 Probe를 접어 넣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대지 미사일 뿐만 아니라 자유낙하 폭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폭탄 Bay를 가지고 있다.

Blinder-C, D: 폭탄 Bay를 개조해서 6개의 사진전자장치와 ECM장비를 탑재한 TU-22R이 있고 해상조계와 대전함 전투훈련용의 TU-22T가 있으며 이를 후에 Blinder-D라 불렀다.

Blinder-E: 요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A-5 Ash와 4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했다.

TU-22는 불과 230~320대 정도 제작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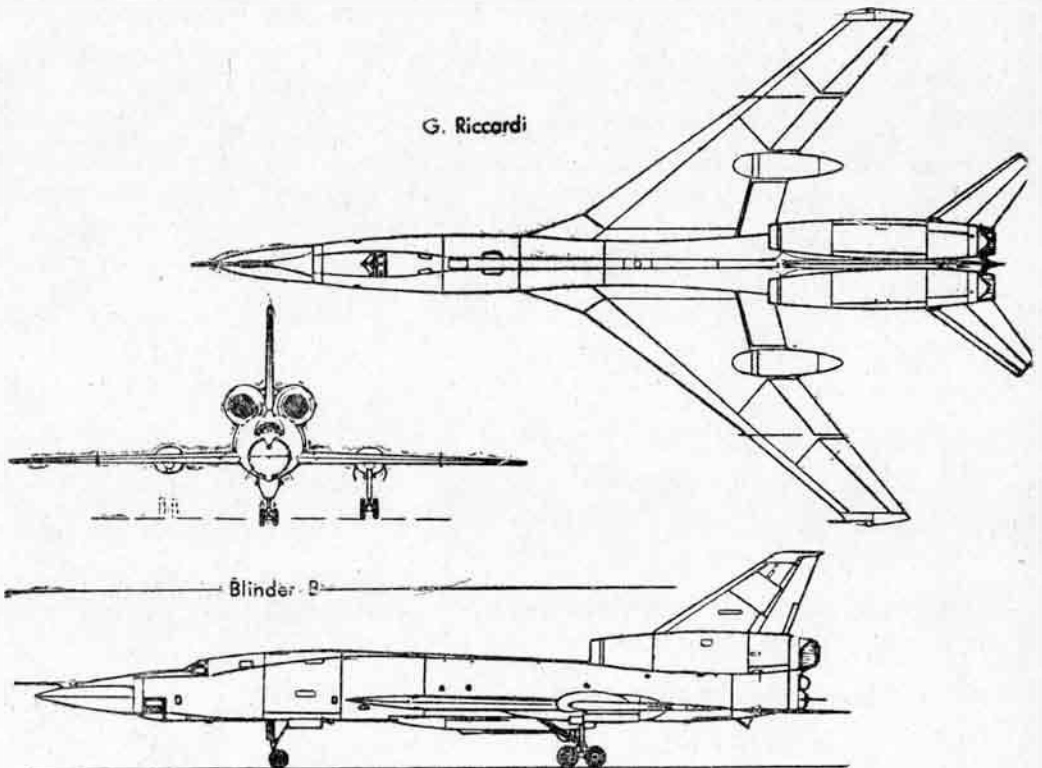
며 이 항공기는 「실패작」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TU-16의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충분치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B-58이라 불란서의 미라쥬 IV-AS같은 음속폭격기에 비교해 볼 때 전투행동반경이 짧기 때문에 제한 생산하게 되었다. TU-22는 가변익을 갖는 Backfire機(미국의 B-1級)의 시험기로 제작되었으며 이 Backfire機가 TU-22(Blinder)의 대체기(Successor)가 될 것 같다.

작전 중에 있는 Blinder를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종종 조우하게 되는데 리비아나 이라크 등에 수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Blinder의 주된 임무는 ① 해상로제 ② 대함공격 ③ 전자전의 세 가지 임무를 요약할 수 있다. 소련

은 1976년 말 통계로 170대의 TU-22를 취역 중에 있으며 체코 침공 때도 이 비행기로 전자전을 실시한 바가 있다.

TU-105/TU-22(Blinder-B)

- 임무 : 전술전략중폭격기(승무원 3명)
- 엔진 : 2×13,000 kg/s(Soloviev D-15 터보팬)
- 제원 : 날개 길이(26.85 m), 기장(40.95 m), 기고(11m), 날개 면적(188 m<sup>2</sup>)
- 무게 : 최대이륙중량(84,000 kg)
- 성능 : 최대속도(1,600 km/h, Mach 1.5)  
순항속도(960 km/h, Mach 0.9)  
실용상승고도(18,000 m)



전투행동반경 (1,000~1,530 km)

항속거리 (2,250~3,670 km)

무장 : 1×NR-23 Cannon

1×AS-4 Kitchen(공대지 미사일)

### 6. TU-26(Backfire)

중폭격기 TU-22(Blinder)가 TU-16(Badger) 대신 작전배치되던 1962년경, 소련의 군사교리는 중거리(2,500~3,000 km)에 위치한 戰略目標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戰術미사일이나 IRBM 등을 운반하여 공격할 수 있는 Backfire機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 1969년 가을에 TU-22를 개조해서 Sukhoi Su-7(Fitter)와 같은 가변익 항공기를 제작한다는 정보가 누설되었다. 그래서 초기에 서방측에서는 그 비행기를 Blinder-VG(Variable Geometry)라 불렀는데 1970년 美空軍 정찰위성이 소련의 Kazan 地方에 있는 Tupolev 계열 생산공장부근 비행장에서 그 비행기의 모델을 촬영하였다. 그후 다시 두 대의 원형기를 발견했는데 한 대는 비행 중에 있었고 다른 한 대는 MI-4(Bison)의 공중급유탱크에서 공중급유 훈련 중인 모습을 촬영했다. 미 공군 정보분석가들은 각종 자료를 수집, 이 비행기의 실제 모습과 거의 유사한 나무모형을 만들어 Big Swinger(F-111의 별명)라 했다.

이 Backfire機는 2개의 대형제트엔진과 두 개의 가변공기 흡입구를 가졌고 날개의 가변각은 20°~55°이다

1976년 미 공군에서는 Backfire-A에 비해 많은 변화가 나타난 Backfire-B(소련명칭 TU-

30?)의 규격을 다시 제작하였는데 Backfire-B(TU-30?)는 많은 수동과 능동의 전자전 장비와 항법장비 이 외에도 군사위성과 연락을 취하는데 사용하는 새로운 관성항법장비를 갖추고 있다. Backfire-A는 9대 정도가 남서러시아에 주둔한 戰略空軍部隊에 그리고 흑해사령부 산하의 해군항공대에 2개 대대가 배속되어 있다. 그리고 Backfire-B는 아마 1976년 말까지 약 80대가 작전배치 완료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 TU-26/30(?) (Backfire)

임무 : 戰略폭격기 (승무원 3명)

엔진 : 2×13,000 kg/st(이중 터보팬)

제원 : 날개 길이 (34.5 m, 뒤치집각 20°일 때)  
(26.2 m, 뒤치집각 55°일 때)

기장 (40.2 m), 기고 (10m)

날개 면적 (134.5~168 m²)

무게 : 최대이륙중량 (122,500 kg)

성능 : 최대속도 (2,123 km/h, Mach 2.0)

상승률 (140 m/sec)

실용상승고도 (18,000 m)

전투행동반경 (2,500~6,000 km 재급유 없이)

최대항속거리 (20,000 km 재급유 없이)

무장 : 1×NR-30 Cannon

2×AS-4 Kitchen, AS-6 ASM 미사일

4×350 Kiloton 전술핵폭탄,

16,500 kg의 재래식 폭탄



# 優秀戰闘 操縱士의 條件(2)

朴 范 鎮 譯

천차만별한 전황(戰況)에 빨리  
대응한다.

자신 있는 공중전투형이 물에 배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결코 오랜 시일에 걸쳐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는 없다. 공중전의 전황은 항상 천차만별하기 때문이다. 불리한 상황에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태세를 세로이 갖출 여유도 없이 Dog Fighting에 들어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격기의 일호 임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에이스는 戰技, 전술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 이상의 기술을 갖고 있다. 어떠한 적과 어떠한 상태에서 싸우더라도 1步도 양보하지 않는 실력과 자신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할트만은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戰法을 마스터했다. 바로 이것이 前人未踏의 大戰果를 올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戰法을 실증케 한 기량: All round player로서의 실력을看過해서는 안 된다.

전쟁 말기에 그는 8대의 무스탕에 포위되어 불리한 공중전을 했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8대의 무스탕에게 쫓기면서

이 무스탕 조종사는 정말 훌륭했었다. 엔진을 전개한 채로 左轉回急降下로 大地로 돌진하는 할트만 뒤를 바짝 따라 붙었다.

「自力으로 귀환하라! 나도 나중에 혼자서 귀환하겠다!」

그는 무신으로 요기에게 지시하였다. 분하지만 싸우기에는 적기의 수가 너무 많았다.僚機만은 탈출시켜 生還시키고 싶었다. 적은 單機가 된 그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다. 그는 백미터로 좌우를 보았다.

8대의 무스탕이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垂直面 機動으로 빠져 나오려고 급상승을 시도했다. 이것이 적을 혼란시키는 것이 되었다. 잠깐 동안에 태세가 好戰하였지만 곧 進路를 차단당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버렸다. 어느 때와 같이 그는 큰소리로 혼자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만사가 생각한 대로다. 「에릿히」 침착해라.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야, 힘을 다해 싸워라!」

무스탕은 4대씩 2편대로 나뉘어 그를 한가운데에 몰아 넣었다. 그들은 그와 거의 같은

속도였다. 그는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만들 수 없었다. 『급선회하라! 「에잇히」 힘껏 급선회하지 않으면 허리에 큰 구멍이 날꺼야!』

바로 고양이의 쥐의 추적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기체를 좌선회시켰다. 그러면 적도 좌선회를 했다. 그는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였다.

힘껏 우선회—2대의 무스탕으로부터 集中砲火—다시 좌선회—다른 방향에서 曳光彈의 다발이 치솟는다—급히 우선회—또 다시 예광탄의 다발,

『운이 좋구나. 「에잇히」놈들은 명사수가 아니야 놈들의 사격은 너무 서플리 射距離가 너무 멀어. 「에잇히」 너의 사격술을 놈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너는 벌써 저승에 갔을거야! 운이 좋구나!』

급한 우선회, 좌선회에 신경을 극도로 소모시키는 선회 전투 중에서도 무스탕이 자기 앞에 나오면 그도 포화를 퍼부었다.

『「에잇히」이 따위 사격으로 탄환은 명중하지 않아. 너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놈들은 너의 예광탄을 보고서 조금은 기분이 중요할거야. 그리고 자기 기관포의 발사음은 웬지 모르게 기분을 안정시켜 주는 법이야. 그러나 아뵤튼 몇 분 후에 나는'놈들에게 먹혀버리고 만다'라고 생각하면……?』

8대의 미군기와 1대의 독일기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좁은 듯 선회를 계속한다. 斷續적으로 기관포가 발사되고 어떻게든지 예광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독일기는 필사적으로 逃避機動한다. 땀이 그의 등을 축축히 젖게 하고 그의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은

한증탕에 들어 있는 듯하다.

Dog Fighting은 고통에 가득찬 중노동이다. 무스탕의 총탄을 피하는 필사적인 도피기동 중에 과거의 회상이 머리속을 스친다.

학교에서 체조를 잘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구나. 「에잇히」너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근육을 갖고 있어. 머리만을 써서는 아무것도 안 돼 힘을 내는거야 체력의 싸움이다!

그도 어떻게든지 반격을 하려고 사격찬스를 노린다. 그러나 이렇게 급선회의 연속이어서는 명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Dog Fighting을 계속하면서 그는 점차 기지에 접근해 갔다.

『멈추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비행장에 접근하라. 「에잇히」아군 고사포가 너를 놈들의 손으로부터 구해 줄거야!』

실제 그는 조금씩 조금씩 열세를 만회하고 있었다. 선회할 때마다 조금씩 적으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트만」은 방어를 위한 독특한 戰法을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그는 가장 자신있는 공격 전법으로 노련한 선배들을 격추 댈수 면에서 월등히 추월하고 이 방어 전법으로 죽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後上方으로부터 적에게 공격당했을 경우 그는 적기의 안쪽으로 급선회하여 들어가면서 급상승한다. —적은 後上方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비스듬히 한바퀴 도는 형으로 적의 後下方으로 돌아 들어서 그대로 돌진하여 急降下離脫한다.

그와 함께 작전비행을 한 조종사들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예측과 계산을 기초로 한 이

機動을 마치 조인적인 기술이라 생각했다.

그는 적을 항상 면밀 정확하게 관찰하여 발포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적이 발포하기 전까지 回避旋回機動을 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는 본능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拔群의 機眼과 냉정을 가질 수 있는 담력을 필요로 한다.

너무 조금하게 회피기동을 하면 적은 이찬스를 포착하여 追尾旋回를 뿌리치고 뒤로 돌아와 버리므로 한층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배후에서 자신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적이 기관총을 발포하기 직전에 기체를 뒤집음으로써 느린 속도를 이용하여 작은 신뢰로써 적의 총탄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모험이다. 그러나 그는 이 방법으로 적의 총탄을 회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타인이 따라서 할 수 없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 활로를 열어준 것이 “-G”이다. 총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작은 반경의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격측은 공격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층 작은 신뢰를 하지 않으면 명중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순간 바로 코앞의 목표가 사라져 버린다. 그대로 계속 비행을 하면 回轉急降下한 적이 뒤에서 급상승하여 명중탄을 보내게 된다. 즉 追跡당하는 측은 조종간을 힘껏 앞으로 밀어 방향타를 밟고 회전급강하하여 위험

한 코스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중력은 +G로부터 -G로 급격히 변화한다. -G를 거는 조종은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다. 속도가 우세한 공격측이 이러한 기동을 쫓아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리하게 쫓아오면 갑자기 커다란 -G에 습격 당하여 조종사의 몸은 좌석에서 떠서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머리에 피가 몰려 눈이 감기고 일시적으로 조종 불능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는 이 테크닉을 사용하여 절대절명의 궁지를 탈출했을 뿐 아니라 가끔 절정적인 전과를 올렸다.

그 혼자만의 秘術이었던 것이다. 占位한 사격점으로부터 신속하게 적기발견, 접근기동, 그리고 기량을 다 발휘하여 Dog Fighting. 이들은 모두 사격점을 점위하기 위한 것이다. 머리와 근육을 사용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도 목적은 단 한 가지 적기를 명중시키는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겨우 획득한 발포가 명중하지 않는다면 만사가 물거품이 된다.

전쟁 중 자신의 습격이 미숙하다는 것을 나는 속으로 여러 번 뼈저리게 느꼈다.

「명중하는 기관포가 있었으면 精巧한 조준기가 있다면……. 미군과 같이 1,000 km 떨어져서도 예광탄이 똑바로 날라 갈 수 있는 기관포가 있다면……. 뒤에서 뿐이 아니다. 그들과 같이 앞에서든 옆에서든 명중탄을 퍼 부을 수 있다면……」

F-36F의 조준기는 레이더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명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 스크로브상의

원내(圓內)에 목표를 맞추는 것이 매우 힘들다.

웬 만큼 안정된 조종을 하지 않으면 이 원이 흔들려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결국 조종사의 기량에 맡길 수 있을 뿐이었다. 高速機 일수록 사격은 힘들다. F-86 F처럼 운동성이 뛰어난 비행기도 옛날처럼 光像式照準機로는 아무리 사격의 명수더라도 명중탄을 퍼붓는 것은 힘들 것이다. 적기를 명중시킬 수 있는 위치를 점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다 한 번 있을 만한 좋은 찬스를 맞아서도 사격 기술이 미숙한 탓으로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는 한다.

기회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에이스이다. 그리고 대(大)에이스 일수록 기회를 놓치는 적은 결코 없다.

B-29의 直上方攻撃은 조인적인 경지에 도달한 구로노(黒野)중위의 사격 기량 때문에 처음으로 가능했다. 이 공격법이 유효하고 적탄을 맞는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이 공격법을 사용한 조종사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 아메리카 전선에서 1년도 채 못되어 158대를 격추하고 아깝게도 엔진 고장으로 추락사한 마르세이유 대위는 조종학생 때부터 사격의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미·영기(美·英機) 1대의 격추는 소련기 3대의 격추에 상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것을 감안할 때 그의 전과를 소련기로 환산하면 474대라는 계산이 된다. 더욱 할트만의 절반의 기간 동안에 도달한 전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르세이유야

말로 톱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현실은 산술계산처럼은 안 된다. 독일 공군이 적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던 시대와 30:1의 열세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전쟁 말기와의 환경 조건의 차 그리고 소련 공군에 관한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이 견해에는 전적으로 찬성은 할 수 없지만 마르세이유는 어떠한 위치로부터도 적기를 명중시켰다 한다.

비행군 사령으로 할트만의 상관이며 275대를 격추하고 전쟁 후에는 독일 항공함대 사령관으로서 할트만을 음으로 양으로 돌 보아준 군타 칼은 그를 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우들의 할트만에 관한 추억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명중탄을 적기에 퍼붓는 명사수라는 것이었다.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방향, 각도 그리고 원거리로부터 적기를 명중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230대 격추, 그 중 미·영기가 124대를 차지하는 전과를 올리고 아깝게도 1957년 스포츠 비행기로 추락사한 하인즈·페아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전방공격 사격에 있어서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군 제1의 명사수였던 전설적인 명사수였던 마르세이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정비사 출신으로 수학이 뛰어난 포크류슈킨은 비행경로와 총탄의 속도를 계산하여 공중 사격의 諸要素를 수학적으로 검토 정리하였다. 복잡한 계산으로 紙面을 메우고 목신을 그렸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그는 결론에 도

달했다.

「성과는 가까운 지리에서의 사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하여 오로지 근거리 사격의 연구에만 골몰하여 끝내는 획기적인 명중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실제 공중전에서 59대를 격추하여 그의 결론이 정확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조종기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항공쇼의 곡예 비행팀, 장거리 함법, 계기비행, 공중전에 이르기까지 각각 뛰어난 조종사가 있다.

그러나 사격은 이들 모두를 집대성한 것이 아닐까. 사격은 명인이지만 공중전이라든가 편대비행은 형편없다고 하는 조종사는 본적이 없다.

### 이탈 귀환의 3가지 타입

100대 이상씩 격추시킨 대(大) 에이스들은 몇 번씩 격추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수백회가 넘는 공중전에서는 절대로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가 불속의 밤을 주어야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료 부하들을 위협으로부터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敵地爆撃, 대지공격에서 적의 화기는 상대를 선택하지 않는다. 할트만은 15회, 디웨르트는 14회 루멜은 실로 30회 격추 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껏해야 2회까지 -1고 3회 격추돼서 생환 해 돌아온 예는 아직 들어본 적

이 없다.

전장이 평원(平原)이고 진공거리가 짧고 격추당하여도 대개의 경우 救助班이 와서 구출해 주고 귀환하여 즉시 재 출격할 수 있는 환경과, 낙하산으로 탈출하여도 바다위인메다가 구조반도 없고 예들들면 육상이더라도 적의 점령 지역을 몇 백 km씩이나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본군의 경우와는 조건이 다르지만 인간인 이상 격추당한 정신적 쇼크는 상당히 큰 것이다. 이 쇼크를 몇 번씩 당하여도 태연자약하게 전전한 신경을 견지할 수 있는 조종사가 아니면 대(大)에이스로 성장할 수가 없다.

격추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세한 병력, 불리한 태세하에서의 공중전의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승리가 확실하고 병력이 우세했던 미군 조종사의 스트레스는 일본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미군은 규정출격 회수에 도달한 조종사는 후방에서 휴양시켜 사기회복을 시켰다.

일본군이나 독일군 모두 미군과 같은 여유는 없었다.

특히 전쟁말기에 전장에 나온 조종사는 살아서 조국의 땅을 밟는다는 것은 우선 없다고 작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 대하여 신경과 체력을 극한 상태까지 소모시키는 공중전을 살아 남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똑같은 공중전이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능력은 거의 없어진다.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다음 출격뿐이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까지도 생각을 할

수 없다. 더우기 2,3일 후의 자기의 운명은 어디 먼 세계의 일 같은 생각이 든다. 전과를 올리든, 생환을 하든 앞날에 거의 희망을 갖지 못한다. 자기의 생명도 조국의 앞날도, 이 흙탕물 같은 상태에서 빠져 나오려면 그것은 죽음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닥쳐 올 때까지 전력을 다하여 싸우는 길 이 외에 도리가 없다.

이런 스트레스는 경험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일본군의 전통과 각자의 意志가 한계점에서 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있던 것이다. 이 당시의 상황은 슈타인 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편대로 적을 수색 중에 있을 때의 각자의 행동은 평상시와 같다. 제기 스위치류의 점검, 연료농도의 조절, 산소 마스크의 점검 등이다.

수위에 여러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동하는 유리창 내의 좌석은 매우 고독하다. 엔진이 어디엔가 이상한 소리라도 나지는 않을까, 밑에 보이는 망망대해(茫茫大海)에 시선을 준다. 과연 살아 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비행성능의 저하는 타기와 행동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기지에 귀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된다. 각 조종사는 이와 같은 유혹에 끌리고는 한다.

누군가가 「적기발견」하고 소리치면 상황은 급변한다. 전투대형 뿐만 아니라 심리면에서도 그렇다. 수색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有無를 불언케하는 宣告이기도 하다. 이제는 싸우는 수 밖에 길이 없다.

자기 혼자만 빠질 수는 없다. 여기까지 와서 전투를 피해서 단독 행동을 취하려 하는 자는 격추될 수 밖에 없다.

편대로부터의 이탈 귀환은 보통 착륙 후 바로 또는 적과 조우할 위험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유감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항상 뒤를 잇는다.

「엔진 이상(異狀)!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는 말은 사람에 따라 전혀 순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식의 귀환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정말로 비행기가 고장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많은 戰局을 치러온 노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베테랑들은 자기 비행기에 관하여 체험상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간단한 고장정도로는 그렇게 험사리 임무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일일이 설명은 안 한다. 고장의 원인을 객관적이며 확신을 갖고 편대장에게 보고한다. 타인이 신용하든 안하든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 종류는 갑자기 쳐들어오는 체력, 기력의 한계에 도달한 노련한 조종사들이다. 그들이 이것을 의식하던 안하던 간에 상관없다. 수백회를 넘는 출격과 공중전을 거쳐서 출격을 할 때마다 여하히 자기자신을 극복할 것인가. 본능적인 자기 보존욕을 기만할 것인가를 잘 안 후에 극도의 피로의 상태에 도달해서 갑자기 그 억제하는 벽이 무너져 버린다. 그리하여 적당한 시기에 「미안하다」 하고 말하고 편대를 이탈하고 싶은 유혹에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세번째 종류는 보충부대로부터 온 젊은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항상 무엇인가 구실을 만들어 전투를 회피하려고 하는 유혹에 사로 잡혀 있다. 그들은 그 진장의 냉혹무참한 양상에 놀라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기분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죽고 있었던 것이다. 戰線으로부터의 보도는 항상 씩씩하고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것 뿐이었고 적이 한발 한발 쫓아온 우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다.

이런 전투기 조종학교에서도 젊은 조종사들에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에 관해서 마음 가짐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련한 조종사들은 출격으로부터 귀환한 후 출격 도중에 되돌아온 젊은 조종사의 비행기를 시험해 본다. 대개의 경우 고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서 젊은 조종사의 허구성이나 산산히 깨져 버린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훨씬 지난 후에 두번째 종류의 部類에 속하게 된다. 그들의 대부분은 전사하든가 아니면 다른 임무로 전환되기 위하여 본국에 송환된다.」

전쟁 중의 일본에서도 소수였지만 두번째 종류에 속하는 조종사가 있었다. 계급이 높을수록 자유 제약의 여지가 크므로 대개의 경우 지상 지휘를 한다하여 자기 자신은 거의 출격하지 않는다. 계급이 낮아지면 임무를 남에게 轉讓하려 하여도 부하가 없으므로 병을 들어 버린다. 心因性병이다. 그러나 이들 조종사들은 겁쟁이라든가 미겁하다고 정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잔혹하다.

한때는 용맹, 과감한 戰士였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발신하려 하여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후사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간한 신경을 가진자가 아닌한 언젠가는 역제의 한계를 넘어 버리게 된다. 이렇게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적이다. 말하자면 물리적 현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때의 용감한 전사를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전쟁 지도층의 후머니즘의 문제이다. 비 인간적인 방법으로 뿐이 전쟁 수행의 길이 없게 되면 전쟁은 벌써 진 것과 마찬가지다. 구 일본군의 경우는 이 단계조차도 지나쳐서 특공대로서의 죽음을 강요했다. 이미 지휘는 부재(不在)한 상태였다. 기량이 미숙한 조종사는 출격시켜서 개죽음을 시키는 것보다 뜻있게 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暴言이다.

## 전기(全機) 특공대 출격의

### 흥분과 침착

그러나 소수였지만 상식의 밖에 있는 조종사들도 있었다. 어떠한 곤란과 위협에 부딪혀서도 조금도 동요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태연하게 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포라든가 生의 집착에 대한 본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케 할 정도였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 거기에다 별로 수양 또는 사색에 잠겼던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므로 역시 신경의



구조가 보통 사람과는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 하기도 했다. 全機特攻이라는 명령을 받고 출격 2시간쯤 전에 마지막 朝食을 취했다. 비행기의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식사는 형편 없는 밤에 멀건 된장 국위에 푸른 파파이아 열매가 떠 있을 뿐이었다. 조미료같은 것은 들어 있지도 않다. 매 식사때마다 같은 메뉴여서 웬만큼 배가 고프지 않코서는 목구멍을 지나지 않는 음식이었다.

나는 전날밤 12시에 명령을 받고나서 한 잠도 못 잤었다. 이제 몇 시간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신경이 곤두서서 어렸을 때부터의 추억이 하나 하나 뇌리를 스쳤다. 폭탄을 안고 무작정 가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하다.

마음껏 공중전을 한 후에 산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던 나였기 때문에 이 식사는 보기만해도 식욕이 일지 않았다. 제1진으로 출격 예정이었던 特操 1기(一期) 조종사가 유유히 깨끗하게 다 먹어 치우는 것을 보고 대단한 신경의 소유자라고 존경스럽게 보고 있었다. 이어서 그는 식사 후에 함께 출격하게 되어 있던 기무라(木村) 상사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태도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로 머리가 수그러지는 기분이었다.

전혀 마음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경의 소유자일까? 이와 같은 조종사가 정말로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있었던 중대의 선임장교 사하쿠(佐泊) 중위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경우는 항상 명랑하고 어느때나 싱글 싱글 웃고 있었다.

출격으로부터 귀환하면 마치 훈련을 마치고 작록한 것 처럼 싱글 싱글 웃으면서 보고했다. 마치 즐거운 산책에서 돌아온 것 처럼 나보다 1년 후배였지만 戰場에서는 선배였다.

매우 센스가 뛰어난 조종사였지만 아깝게 終戰직전인 8월 13일 B-29의 요격에서 전사했다. 아마 이와 같은 조종사들이 에이스로 성장해 갈 것이다. 베테랑으로는 편대장이었던 시시모도(四至本) 대위, 이또(伊藤) 상사, 기요미(清見) 상사, 다무라(田村) 준위 등 모두 강인(強韌)한 신경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벌써 에이스의 좌(座)에 있었다.

心身 모두 튼튼해야만 한다. 작전 비행은 평시의 훈련보다 통상 비행시간이 길다. 공중전 훈련은 보통 비행장 주변의 공역이므로 1시간 이상 계속되는 일은 드물다. 하루 16交戰이 내가 체험한 최고의 훈련회수이다. 이 정도 훈련하면 아무리 갓 20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힘들다. 훈련을 마치고 거실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쓰러져 버린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작전 비행은 약간 그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면 船團엄호는 항속시간이 最長이고 공격의 경우는 400~500 km를 왕복하게 된다. 요격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초계대기이다. 이 동안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된다. 이 긴장이 육체적 피로로 되돌아 온다. 그리고 하루에 2~3회는 출격한다.

독일 전투기대의 경우는 전장이 평원이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짧지만 출격 회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다. 하루 3~4회는 보통이었고 17회라는 기록도 있었다. 1940년의 영국 본토 防空戰에서 영국전투기대에는 하루 20

회 출격할 조종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거기다가 전장에서는 給糧이 엉망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몇 번인가 적으로부터 취득한 물자로 생각지 않던 호화스런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항공모함의 조종사라면 식·주(食·住) 걱정이 없으므로 체력 유지도 가능하겠지만 전쟁말기의 전장에서는 비행기라든가 부품의 보급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므로 식사 걱정은 할 수도 없었다. 거의 현지 조달했는데 주민이 쌀, 돼지, 양, 닭, 모두 갖고 도망해 버렸으므로 식사는 정말 형편 없었다. 주거시설, 위생환경 모두 좋지 않았다.

스트레스도 전장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 전투부대도 동부전선에서는 죽은 말의 고기와 감자를 먹고 싸웠다. 나도 전장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서 고생했다. 지상부대의 장병들은 잡초와 같이 강인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었다. 조종사들은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 대만에서는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깨끗한 침구에서 잤는데 겨우 3시간 후에는 위와 같은 상태였다. 더우기 밤에는 산발적인 공습이 수면을 방해했다. 어떻게든 영양을 섭취하려고 생각해서 강물의 새우를 잡아서 먹었더니 아메바 설사에 걸려 버렸다. 하루에 30번씩이나 설사를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며칠 사이에 10 kg이나 체중이 빠져 버렸다.

정미사에게 영덩이를 받쳐 가면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 귀환할 때까지 계속 설사를 했다. 만족스런 공중전을 할 수가 없다. 부대의 전인차가 되는 배대량들은 심신 모두 튼튼하다. 튼튼하지 않으면 사기도 안 오른다. 튼튼하다는 것은 근육이 많고 거대한 체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대(大)에이스들은 결코 커다란 체구와 균형미의 소유자는 아니다.

할트만, 슈타인호프, 쿨빈스키 모두 독일인으로서 약간 작은 편에 속하고 마른 편이었다. 랄은 약간 작은 편이었고 카란트의 경우는 동양인보다도 작고 풍채도 형편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 에이스들은 보통 남자였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심신이 모두 잘 균형이 잡혀 있었던 점이다. 예외적인 것은 구로에(黒江) 소령일 것이다. 그는 70 kg이 넘는 거구였다. 전장의 형편없는 식사로 연속 출격하여도 체력, 기력 모두 왕성했고 「내 위장은 돼지와 같다」라고 말했다.

할트만은 운동가로도 뛰어 났었다. 슈타인호프도 전쟁 후 체육교사가 될려고 생각한 시기가 있었다. 시시모트 대위는 운동은 뛰든지 다했다. 구로에 소령도 의외로 움직임이 민첩했다.

스포츠맨=명(名) 조종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튼튼한 체력의 양성분이 아니라 강인한 신경과 조종사로서의 센스를 함양하기 위한 스포츠가 매우 유효하다는 것은 틀림없다.

× . × ×

## 日帝下 獨立運動精神과 그 敎訓



우리 나라에 있어서 民族獨立運動은 19세기 말 이후의 여러 強大國勢力의 侵略, 특히 1910년 이후 1945년 8월 15일까지의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에 항거하여 36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民族의 自主獨立運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獨立運動은 19세기 후반의 鎖國政策에 의해 거절됨으로써 양자간에 반목되어 오던 중 1875년 雲揚號事件 이후 日本과 1876년 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함을 계기로 敵國과도 修交하게 되었다. 그 이후 國內의으로는 開花派와 守舊派의 대립과 國際的으로는 淸과 日本의 勢力競爭이라는 새로운 사태가 벌어졌다. 壬午軍亂(1882)과 甲申政變(1884) 등은 이러한 상황아래서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國內에서의 淸·日間의 角逐戰은 第3者인 「러시아」 勢力을 이끌어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1894년(高宗 31년)에 일어난 東學亂은 사상 최대의 組織的인 農民反亂

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淸日戰爭에서 日本이 승리함으로써 日本勢力이 강력하게 진출하였고, 이에 따라 國內事情도 현저히 달라졌다. 甲午更張으로 전부면에 걸쳐 일대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는 日本侵略의 전초공작으로 마침내 乙未事變(1896)을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對日感情이 극도로 악화됨을 기화로 「俄館播遷」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日本은 강압적으로 侵略政策을 수행해 갔다.

이에 반대하여 民族的 自覺을 깨달은 知識人들은 政治的으로 단합하여 民族의 獨立과 民權의 確立을 위해 투쟁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先祖들이 日帝 36年間に 걸쳐 民族獨立을 위해 싸운 그 精神과 얼을 되새기고 이를 오늘의 敎訓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開港 이후 韓半島를 위요한 당시의 國際政治的 環境을 살펴보고, 日帝로부터 내 나라를 찾기 위



한 獨立運動家들의 理念과 그 鬭爭精神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 意義를 찾고자 한다.

## 1. 開港 이후 韓半島의 國際 政治的 環境

植民國家인 日本이 近代國家로서 발족한 것은 260여년간의 장구한 德川幕府의 封建社會가 解體 崩壞되고 王政復古에 의한 明治維新의 성취를 계기로 하였던 바는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들이 韓半島를 그 前進基地로 삼아 大陸侵略을 기도한 사례는 高麗末葉 이후 시작된 三南沿岸에서의 대규모적인 海賊行爲와 15세기 말엽 明에 대한 원정을 전제로 朝鮮을 先取하려고 壬辰倭亂을 일으킨 日本의 國家政策的인 기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日帝의 韓國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은 1875년 江華島武力威脅으로부터 1876년에 丙子修好通商條約을 맺고 朝鮮의 門戶를 강제로 개방시킨데서 시작된다. 특히 日本은 明治 이래 西歐式 交物을 소화하고 西歐列強과 병존하면서 內的으로 政治的 支配形態는 軍閥·財閥政治의 성격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 隣國侵略을 꿈꾸고 있던 軍國主義勢力은 아직도 前近代的 米桶에서 깨어나지 못한 韓國을 마음대로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의 商船이 釜山, 元山, 仁川 등에 왕래하면서 경제적 침략을 시도하게 되어 朝鮮을 屬國視하던 淸國은 1882년에 朝鮮으로 하여금 美國과 修好通商條約을 맺게 함으로써 日本의 勢力을 견제시키려 하였다. 이어 朝鮮은 英國(1883년), 獨逸(1884년), 「이탈리아」(1884년), 「러시아」(1884년), 「프랑스」(1886년)와도 같은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日本으로서는 江華條約의 성립을 본 후 韓國이 西歐列強과 조약을 체결됨으로써 對韓政策인 「完全開國」이 결국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견제하기 위하여 西歐諸國의 政治的 勢力均衡을 가져 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변태적으로 韓國과 西歐列強과의 修好通商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세기 이후 西歐列強의 東進으로 말미암아 「유럽」政治圈에서 全地域的 단위로 國際社會가 확대됨에 따라 韓半島도 西歐列強의 野心的 표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日本의 韓國에 대한 지배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는 점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치가 되고 말았다.

특히 1895년 淸·日戰爭 이후 韓半島에 대한 日本의 우월권이 확립되자 「러시아」는 淸國에 대신하여 日本에 대항하는 勢力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는 朝鮮內에서 俄館播遷이라는 勢力操作까지 감행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세력부식은 그들의 東進政策의 일환으로 不凍港을 얻기 위한 전통적인 國家利益의 기초에서 빚어진 결과로서 그것은 8·15解放前後나 최근의 그들의 態度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英國은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정책과 「발칸」半島와 中東地域에서 종종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韓半島에서의 세력부식에 의아심을 가지고 급기야는 우리 政府에 대하여 엄연히 침략행위가 되는 巨文島事件(1885~1887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이후 英國은 1905년에 英日同盟을 맺어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日本에 위임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1905년에 露·日戰爭이 일어났고, 그 결과 日本은 韓半島에서의 유일한 侵略的後見國이 되었다. 결국 日本은 韓半島에서 그들의 지지기만을 확보함과 동시에 1905년에 乙巳保護條約을 성립시키고, 이어서 1910년에는 賣國의인 親日勢力과 제휴하여 國王을 위협하여 韓·日合併條約을 체결하고 韓國을 中國大陸으로 진출하는 그들의 帝國主義膨脹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舊韓末 西歐列強의 帝國主義的膨脹의 여파가 韓半島에 비쳤을 때 政府의 지배층은 本能的의 危懼心에만 사로잡혀 소극적인 防衛體制를 유지하는데 골몰할 뿐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鎖國政策 내지 排外政策으로 구체화 되었다. 당시 內政刷新과 王朝의 改革을 위하여 전력하였던 大院君 조차도 이러한 行動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찍이 權力層內의 一部勢力은 외세의 압도적 軍事力과 文物에 대결해

보아야 그 결과는 편하다는 체념적 小國根性에서 또는 기왕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外勢에 편승하여 自體勢力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權力志向의 一部支配勢力의 야심에서 對外勢力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들이 韓末의 政局을 어지럽히고 외세의 간섭을 촉진시킨 이른바 親清·親日·親露勢力들이었다. 이들에게는 國外的 여건이나 현실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國家利益을 위하여 노력하는 自主性보다는 異타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近代的의 의미의 우리 民族精神은 뜻있는 愛國志士들의 西歐 物결을 탄 開化運動과 日本의 침략에 대항한 義兵抗爭 3·1運動을 기점으로 한 武裝活動, 文化活動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의 民族獨立運動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日帝의 韓國侵奪過程에서 나타난 國內外 獨立運動家들의 끈질긴 鬪爭精神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2. 日帝의 韓國侵奪과 植民統治方式의 특징

第2次大戰 前까지의 植民地 지배의 목적은 한결같이 社會經濟的의 수탈이었으나 그 目的達成을 위한 수단이나 방식은 나라나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日帝의 韓國植民地 統治의 으뜸가는 특징은 한 마디로 「民族抹殺政策」에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英國型 「間接統治」와 「프랑스」型 「直接統治」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直接統治는 본국정부의 한 기구인 總督府나 기타 관청에 의해서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고 間接統治는 植民地 재계 統治機構를 존속시키고 본국은 그 지도성을 확보하는 방

식이다.

그런데 英國의 경우에는 原住民의 政治的 反抗을 감소시키고 그 통치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植民地의 관습이나 사회조직을 이용하는 間接統治가 지배적 형태였다. 게다가 英國은 統一的인 民族獨立運動의 결성을 막으려고 植民地의 宗族, 宗教, 言語, 社會的 계층 등을 서로 대립 향쟁케 하는 이른바 「分割統治」를 추구했으나, 처음부터 「同化政策」을 취하지 않고 「自治政策」을 취하였다. 이는 곧 民族主義의 발달에 따른 民族獨立의 요구가 높아지기 전부터 英國統治의 최종적 목표는 植民地에 자치를 부여하는데 있었으며, 植民地人을 政治적으로 훈련하여 단계적으로 自治의 범위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英聯邦自治領으로 한다는 방침을 명백히 해 왔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는 「同化政策」에 의거하는 직접통치의 방식을 취하였다. 「프랑스」의 同化政策은 「프랑스」革命의 政治理念과 「프랑스」문화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였다. 「프랑스」는 모든 植民地를 궁극적으로는 本國과 政治的 文化的으로 同化시키는데 최종 목표를 두고 우선 「프랑스」식 高等教育을 받은 植民地人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부터 「프랑스」市民化하는 정책을 써 나갔다.

그러나 植民地民族에게는 제각기 독특한 社會的 政治的 傳統이 있으며, 자기들의 생활양식을 지키려는 民族的 自存心이 있게 마련이다. 英國型에 비해 「프랑스」型이 植民地民族의 보다 큰 저항에 부딪치곤 한 것은 이 때문인데, 그로 인한 강대한 군사력 유지의 필요는 재정적 부담을 무겁게 했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든 英國과 「프랑스」식 植民地政策을 찬양한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들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곧 韓國民

에 대한 日本의 植民地政策이 얼마나 악랄했고, 여기에 대항했던 우리 民族의 獨立運動精神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력했든가를 알리는데 있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日本의 植民地政策은 「프랑스」型을 모방하여 「直接統治」의 원칙을 채용했지만, 「프랑스」型과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同化」라는 미명아래 「民族抹殺政策」을 집행한데 있는 것이다. 곧 日帝는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保護·武斷·文化政治로 바꾸어 가면서 최종 목표는 韓民族 그 자체를 지구에서 소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日帝의 植民地政策은 近代 西歐帝國主義의 그것과는 근본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 獨立運動先列들의 鬪爭精神과 일은 그 어느 國家의 民族運動家들보다 높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西歐帝國主義의 植民地政策은 間接統治거나 直接統治거나 간에 社會的 經濟的 수탈을 기본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지배 민족의 民族保存은 당연한 일로서 인정했으며, 民族文化運動에 대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獨立運動이 아닌 한 방관적 정책을 취했다. 게 아무리 「프랑스」가 同化政策에 기존하는 직접통치 방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원주민의 民族保存運動에는 방관적이었으며, 民族文化運動에 대해서도 教育을 통해 통제하고 「프랑스」식 文化體制를 옮겨 심으려는데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日帝의 植民地政策은 社會的, 經濟的 수탈에 그치지 않고 植民地民族을 抹殺, 消滅시켜 日帝안의 종속신분층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 異民族抹殺政策을 근간으로 하는 악랄한 성격의 것이었다. 실로 韓民族抹殺을 위한 日帝의 노예교육은 그 어느 植民主義 國家의 그것보다도 철저했고 무자비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日帝의 모진 학정에 신음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民族의 自主獨立을 위해 싸웠던 先列들의 숭고한 피와 그 精神이 얼마나 고귀했었가를 다시금 느끼게 한다.

### 3. 日帝下 民族獨立運動의 理念과 그 특징

舊韓末 日本의 植民地政策은 이른바 「保護政治」라는 구실하에 우리 民族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10년 韓國을 강제로 병합한 이후부터는 극도로 가혹한 統治를 폈는데, 「武斷政治」라 불리는 3·1運動까지의 日帝統治는 일종의 軍政體制였다.

이 시기의 獨立運動의 특징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抗爭의 준비기로서 民族教育, 植民性封建階層形成에 대한 응징, 獨立軍基地開拓, 土地紛爭, 3·1民衆蜂起 등으로 武斷政治에 대항하였다. 이 시기는 모든 民族運動이 民族感情의 자연적 폭발로써 극한 투쟁을 수단으로 하는 조직적인 抗日獨立運動이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基督教, 天主教, 佛教 및 儒教 등의 宗教團體와 義兵 등의 지도층이 그 中心體를 이루었다. 그리고 3·1運動에 이르는 일련의 國外鬪爭은 지역적으로 개인적인 투쟁과 더불어 극한적 抗日獨立運動이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아직 時空間的인 면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海外에서의 이들 亡命獨立鬪士나 獨立團體들의 투쟁활동은 이전에 國內에서의 獨立運動에 참여하였던 투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히 國內의 獨立鬪士나 團體와 縱橫

的인 면에서 연결을 갖고 3·1운동을 전후하여 國際舞臺에서 抗日獨立運動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그 근간을 이루어 기여한 바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3·1獨立宣言의 理想的 근거가 된 民族自決主義는 舊王朝의 부고가 아닌 점에서 民族代表를 내세워 밑으로부터 民族國家를 만들어 내려는 근대적 民族意志의 表現이었다 하겠다.

그 歷史的 증거는 3·1獨立宣言 이후 그 宣言에 의거하여 세갈래의 임시정부안이 나왔지만, 그 공통적 형태는 主權在民의 民主共和制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國內의 3·1運動과 國外에서의 임시정부수립 및 民主憲法制定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련이 있으며, 3·1運動은 바로 民主憲政으로 구현된 民族國家의 잠재적 성립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1獨立宣言은 民族自決主義에 의거하는 理想的 國際觀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그것은 侵略主義, 強權主義를 구시대의 유물로 돌리고 全人類의 共存共生權이 보장되는 평화와 행복이 깃든 세계를 그리고 있다.

3·1運動은 이러한 理想主義的 國際觀에 따라 우리 民族史를 世界史의 전개과정과 연관 지으려 했는데, 이때 韓國民族은 民族國家를 건설하여 世界史의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국제적 단위로써 참여하기 위해 國家의 형태를 갖추려 한 것이다.

요컨대 3·1運動은 고도로 양양된 民族意識과 그 당시 그 나름대로의 國際情勢에 따라서 「自己樹立」을 선언한 운동이다. 그것은 단순한 대외적인 운동이 아니라 근대적인 國民國家를 형성하려는 民族主義 運動이었다.

그런데 3·1獨立運動을 계기로 많은 獨立運動家들의 被殺, 投獄, 亡命과 더불어 日帝의



회유책에 의한 일제의 「文化政治」가 실시됨으로써 지도자를 잃은 國內에서는 文化運動을 전개함과 동시에 보다 조직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思想的 社會運動의 이 시기의 二大傾向으로 나타났다.

즉 新幹會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自由主義, 民族主義, 社會主義, 無政府主義 및 共產主義 등의 思想的 배경을 지닌 人士들이 作派, 作黨하여 政治의 극한 투쟁 위주로 조직된 정치 단체와 더불어 그 鬭爭樣相을 啓蒙, 教育 등과 같은 民族의 文化的 經濟的인 自體實力을 배양함으로써 독립에의 길로 접근하려던 조직적인 文化團體와 社會團體가 共存하면서 抗日 獨立運動을 전개하였던 극히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주사변(1931년), 中日戰爭(1937년), 2차대전(1939년) 등의 발발로 우리 韓國은 兵站基地化되면서 이른바 「皇國臣民化運動」 또는 內鮮一體運動 등으로 民族抹殺策動이 노골화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民族은 포악한 日帝下에서는 武力抗爭을 계속하는 가운데 聯合國의 승리로 8·15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 4 獨立運動精神의 敎訓 과 우리의 자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日帝의 韓國統治는 단지 植民地 韓國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韓國民族自體를 抹殺, 同化하려

했던 특이한 성격의 것이었다. 결국 韓國民族은 日帝統治 아래서 특히 말기에는 民族의 主體性이 총 파산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運動 이후 獨立運動過程에서 民族陣營간에는 民族主義와 共產主義의 思想的 對立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民族陣營 속에서 종전기에는 변절자도 있었다는 사실이 民族運動史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日帝의 侵略過程에서나 그 이후 獨立運動過程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진정한 友邦은 없다는 점과 나아가서 8·15解放이 우리 民族이 염원하던 自主的인고 統一된 祖國光復이 아니었지만, 그 요인은 반드시 美·소 두 나라의 分斷協定에만 돌려버릴 수 없다는 점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內的 要因은 그간의 척척한 공을 세운 獨立運動家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統一된 抗一獨立軍事團體의 不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義兵, 獨立軍으로 이어진 獨立戰爭路線이 獨立運動史의 주류를 이루어 戰後 韓國問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라면 自主的인 民族光復은 기대 가능하였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獨立運動의 하나 하나의 史例를 敎訓삼아 내 나라는 내가 지킴과 동시에 우리 民族의 統一은 우리 民族 스스로 성취시켜 나간다는 自主的인 主體意識의 定立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

×

×



## 個人과 國家社會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란 무엇인가를 밝히려면 학문적으로는 발생형태, 종류, 성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사회이다.

그 이유는 현대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있으나 국가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국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개인만 앞세우는 일이 많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원래 개인의 자유, 권리 등을 가장 값진 것으로 보는데서 발견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국가사회란 개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요구만 하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등한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따져보면 국가사회란 나, 우리, 우리 국민의 연장이다.

즉 국가란 나의 의지, 목적이 승화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국가가 부강하면 나도 부강하고 국가가 불행에

빠지면 나 자신도 불행해 진다.

개인의 행복도 자아실현도 자유도 나의 국가가 존재하는 속에서만 가능해 지는 것이다.

국가없이 무엇이 있겠는가는 일제 지배시대를 회고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국내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다.

북괴의 남침위협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속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국군장병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더 많이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 안보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겠으나 다시 한 번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부탁한다.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려는 자세가 확립될 때 우리 국가 사회의 발전뿐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도 보장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 韓國人の 自覺

우리의 血脈 속에는 만주의 鞭撻을 달리던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과 삼국을 통일하던 신라의 창조력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던 高麗의 호국정신과 이조의 선인들의 秋霜烈日 같은 大義名分の 道義心이 뻗뻗히 흐르고 있다. 우리의 숨결 속에는 한국의 얼이 깃들고 우리의 맥박 속에는 민족의 정기가 서리어 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

많은 민족들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다가 힘의 淘汰作用에 의하여 소멸되고 말았다.

우리는 가혹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민족의 피와 말과 얼과 문화를 수호하면서 역사의 도전을 용감하게 이겨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놀라운 潛在的 底力과 창조적 에베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과거에 사는 민족과 현재에 사는 민족을 구별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민족이 아니고 미래에 사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족의 자량과 영광을 과거에는 찾을 것이 아니고 미래에 창조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 자신을 회복하고 민족적 사명을 자각하여 민족의 창조력을 아름답게 開花結實해야 한다.

일찍이 島山 安昌浩 선생은 한국을 세계의 最高民族으로 완성해 보자는 원대한 이상을 우리 앞에 제시했다. 우리는 체력으로나 지식력으로나 도덕력이나 세계의 최고 민족이 되도록 분무노력에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허황한 꿈이 아니다. 실현가능한 이상이다.

우리 국민 각자가 그러한 민족적 사명을 자각하고 青天白日 같은 정신으로 光明正大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다.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바치며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길이다. 우리는 民族奉仕에서 사는 의미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 내가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가장 훌륭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 인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



한잔 두잔 술을 마시다보면 평소에는 없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제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면 의기소침해져 풀이 죽기도 하고 주먹이 근질거려 무엇이든 부숴버리고 싶다거나 싸움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 술을 마시면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알콜을 흡수한 때문일까?

美 위스콘신주립大學과 웨스턴미시간大學의 연구팀은 새로운 실험을 통해 이러한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알콜자체보다 오히려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심리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실험에서 보통 술꾼이 전혀 그 맛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히 준비된 보드카트닉과 알콜성분이 전혀 없는 단순한 트닉을 사용했다.

연구원들은 실험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종류의 음료를 같은 비율로 제공하면서도 한 그룹은 그것이 술이라고, 다른 그룹은 술이 아니라고 믿게끔 만들었다.

또 연구원 자신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누가 진짜 술을 마셨는지를 사전에는 알 수 없게끔 해서 실험대상자의 행동을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알콜성분 그 자체보다도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심리적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들은 실험대상자에게 앞서 말한 두 가지 음료를 제공하고 나서 교묘히 그들의 화를 돋워 보았다. 이 때 자신이 알콜을 마셨다고 믿고 있는 그룹은 실제로 그들이 마신 것이 술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보다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로는 술을 마셨어도 그것이 술이 아닌 트닉이었다고 믿게끔 한 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만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자신이 술을 마셨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과거의 경험이 술의 이름을 빌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알콜에 의한 화학작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효과는 공격성 이외에도 술과 긴장감의 관계에서도 입증된다.

## 알콜의 作用과 술주정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남자의 경우 불안감이 줄어들지만 여자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결과도 남녀 어느 경우건 술을 마셨다는 심리적 작용에 크게 좌우된다.

美 러트거대학의 「테렌스·윌슨」과 「데이비드·에이브럼즈」박사는 남성들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데인케 하고 그녀에 대해 달콤한 말을 늘어놓도록 하면서 남성들의 심장박동 수를 체크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이 술을 안마셨다고 믿는 그룹에 비해 알콜함유여부와 관계없이 훨씬 느긋하게 행동하고 심장박동수도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 즉 술이 남자에 있어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심리적 효과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대체로

술에 대한 경험이 적고, 그에 따라 술을 마신후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반응은 술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희망 또는 두려움 등 각자의 심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술을 일단 한잔 두잔 마시다 보면 발동이 걸려 계속 잔을 비우게 되는 것이 술꾼의 생리, 알콜중독자의 경우는 술이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비록 알콜중독자라도 역시 심리적 인 면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美 위스콘신대학의 「앨런·매터트」교수는 8시간의 금주로 인해 몸에 경련을 나타내기 시작한 알콜중독자들에게 앞서와 똑같은 실험을 실시해왔다.

그랬더니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술이 아니었더라도 정상상태로 회복되었으며 같은 음료를 계속 찾았지만 실제로는 보드카인데도 알콜성이 아닌 토닉이라고 믿게끔한 사람들은

계속 몸을 벌면서 알콜성 음료를 찾았다. 이는 의학에서 말하는 플라세보(偽藥)효과라는 것으로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권위있는 의사가 소화제를 진통제라고 주면 통증이 멎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같은 양의 술을 마실 경우에도 주위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혼자 술을 마실 경우에는 여럿이 마시는 경우보다 빨리 취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진다.

이러한 사실들은 술을 마신 뒤의 행동들이 알콜의 화학작용자체보다 술에 대한 각자의 생각·주위 분위기·습관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알콜중독자의 경우 비알콜성 음료만으로 경련 등 禁斷症에 대처할 수 있으며, 술을 마신 후 난폭해지는 사람들도 음주전 심리교정에 의해 어느 정도 공격성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게 될 지도 모른다.

## < 충 고 >

황희정승의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농부에게서 얻은 교훈이 있다. 황희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황정승은 그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그래 그 두 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일을 잘 하오?」

이렇게 묻는 황정승의 말에 농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황정승은, 혹시 농부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해서 더 큰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얼마 뒤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 황정승 옆으로 가까이 다가서더니, 황정승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서, 「점정소가 일을 더 잘하지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황정승은 농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그제서야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점승이라 하여도 잘못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 소들이 듣지 못하도록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황정승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가 정사를 하는 데도 늘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 諜者

柳 周 鉉

“이 근처가 경계선이 갔어요!”

사공이 별안간 불쑥 말했다. 배에 오른지 거의 2시간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공이 입을 열었다.

하늘에는 별도 나 있지 않았다. 바다 위에는 이렇지는 파도도 없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같은 빛, 그것은 어둠이었다. 어둠만이 공간에 꼭 차있는데 배는 앞을 보지 않으면서도 계속되었다. 가볍게 선체를 흔드는 것은 바다의 흥분하지 않은 숨결과 선창 깊숙이 숨은 엔진의 동계(動悸)였다. 그러나 바다의 숨소리는 장엄했다. 엔진의 음향은 경쾌했다. 하지만 모두가 단조로웠다. 가을밤 바다 위, 어둠 속, 침묵은 어둠보다도 짙었다. 몸이 으시시 떨렸다. 마음이 떨었다고 생각했다.

“별은 서울 구경하갔슈다. 피양보다야 좋은는디두 모르디…….”

어디를 바라보는지 사공은 선미에 앉은 채로 두번째의 입을 열었다. 탁한 음성이 60대의 뱃사람임을 짐작케 했다. 박 영복은 잠자코 배가 향해서 달리는 남쪽을 보았다. 칠혹의 공간이 시계(視界)를 가로막아 상념을 번지게 하지 않았다.

(평양보다야 좋은지 모르지 서울이…)

사공의 이 괴상한 말을 받아들일 만한 태세를 영복은 갖추고 있지 못했다. 반문해야 할지 동의해야 할지, 분별이 가지 않아 입을 열지 않았다. 영복은 자기 옆에 앉은 사나이의 표정을 찾았다. 어둠만이 보일 뿐, 역시 병어리처럼 말을 않는 그의 입에서 담뱃불이 꺾뻐였다.

운명은 사공이 말아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배에 오른 것이 어둔 연후였다. 이따금 담뱃불을 붙이느라고 성냥을 그은 일이 있지만, 서로 얼굴들을 익힐 틈은 없었다.

그러니 이 어두운 밤 바다위에서 서로 눈치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사실 누구에게도 눈치 뵈 말이라곤 있을 수도 없었다.

배에는 네 사람이 타고 있었다. 선창에는 지금 배를 운전하는 선원 한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외양은 범선이었다. 지금은 돛을 달지 않고 비밀장치로 되어 있는 모터로 해상을 미끄러져 가고 있지만 낮에는 돛을 단 어선으로 변하는 특수한 배인 모양이다. 갑판이탈 것도 없는 배 위에 어망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옆의 사나이는 언뻑 어느 이름 없는 나루에서 이 배에 올랐다. 영복은 그 사나이가 이유

없이 싫었다. 그래 그가 배에 오르자 차츰 가슴 한 구석에서 눈 떠오르는 불안의식이 있었다. 6개월 동안이나 철저히 밀봉교육을 받았지만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제 마음이었다.

그것은 평양 사동(寺洞) 빈민촌에 있는 조그마한 바라크였다. 그 바라크에는 방이 두개밖에 없었다. 거기서 밀봉교육을 받았다. 윤이라는 식모와 단 둘이서 기거하며 매일 낮과 밤으로 순회해 오는 중앙당 간부들에게 교양을 받은 것이다. 그 바라크는 대낮에도 늘 대문을 닫아 걸고 있게 마련이었다.

식모 윤이순이라는 여자는 말만 식모격이지 실상은 영복의 동정을 감시하도록 중앙당에서 밀파한 서른 세살된 여자 당원이었다.

그 윤이순은 정말 모를 사람이었다. 자기가 실토한 배에 의하면 원래 사변 전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다 한다. 남편이 남로당원이었는데 9.28 때 국군이 그 곳을 수복하는 바람에 잡힌 몸이 되어 아내인 자기의 눈 앞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따금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드득 보드득 이를 갈긴 했으나 어딘지 그 모습은 남편없는 여자의 히스테리 발작으로 보였다. 사흘만씩 투입되는 남한의 여러 신문과 잡지의 활자 하나하나를 네어 읽으며 쓸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기간에는 남한의 방송까지도 수시로 듣게 하여 남한의 실정을 익히게 하는 까닭에 둘이서는 곧잘 과거 이야기들을 나누기까지 했다. 그럴 때면 분명 그 눈에는 향수가 어려 있었다.

그 윤이순과는 같이 있게 된 지 한달이 채 안 되어 정을 서로 통했으나 결코 연애는 아니었다. 육체적인 고독을 푸는 것이라고 언제나 담담한 태도로 대답할 수 있었다.

영복은 갑자기 그 윤이순의 말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박동무 조심해요. 만약 이남에 가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조심해요. 여기서와 똑같이 동무를 감시하는 눈이 늘 따라당길 테니. 그리구 늘 동무에게 대답을 강요할 것이요. 공작, 공작포기, 자수, 첩포……, 그 중에서 동무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구.”

윤이순은 어제 아침 마지막 헤어질 때, 울먹울먹하면서 한 가지 당부가 있노라고 했다.

“우리 고향엘 들려줘요. 수원 X×동이야, 친정 어머니가 살아제신가 살펴만 줘요. 히긴 박동무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이런 말로 보아도 그 윤이순은 정말 모를 여자였다.

철저한 당원인지 아닌지 걸으로는 열성적인데 이따금 피로한 기색을 보이며 새까만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원한을 가진 여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원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에 이용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머지않아 자기도 공작대로 지원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말뜻은 어떤 본심을 내포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영복은 잠시 전 연백에서 오른 그 사나이를 보자 문득 윤이순의 말대로 감시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선뜩했던 것이다. 윤이순의 말대로 벌써부터 대답을 강요하는 자가 따르는 것인가 서먹했다. 그러나 임무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도 여겨졌다.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첩보하라면서 단독으로 보낼 리가 없을 듯 싫었다.

“동무는 고향이 어디니까?”

잠시 후 그 사나이가 영복에게 이런 말을 물었을 때,

“경상도 안동이외다.”

영복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돌리며 무뚝뚝



하게 대꾸했다.

"난 원주되다. 15년만에 이남에 가는 길이요. 동무는 대전엘 가 본 일이 있으?"

묻지도 않는 말을 수월하게 해대는 것이 더욱 불쾌했다. 최라고 했다. 영복에게 비하면 10년은 연장적인 마흔 네댓쯤 될적한 사나이이다.

"동무는 사변 후에 넘어왔겠수다래?"

"....."

최가 이런 말을 또 들었으나 영복은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

확실히 사변 후에 넘어갔다.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온 그는 대전으로 내려가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사변을 맞이했다. 칩락군이 그 곳을 석권했을 때, 어떻게 된 셈인지 그는 그 곳에 남아 있었다.

그래 적장이 민원(民怨)을 사는 곳이었으므로 겹도 나는데다가 마침 동료 중에 남로당 비밀당원이 있어, 그에게 이끌려 덩벼거린 것이 어느 틈에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다. 그저 덩벼덩벼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자기 목적이나 의사대로 행동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자 칩락군이 다시 후퇴하는 사품에 끼어 몇 달 끌려 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북한 땅을 밟게 되었고, 거기서 또 몇 해 목숨을 부지한 것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열성당원처럼 된 것이다. 역시 자기 의사대로 산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에게는 뚜렷한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조성되는 환경에 언제나 끌려 들어갔다는 편이 옳았다. 아니면 소극적이고 자포자기적인 행동이 그를 이끌고 다니며 몇 번이고 변질시킨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포적인 성격이 또 새로운 구령으로 그를 몰아넣었다. 필배로 되라는 심정은 가다가 과단(果斷)과 용기로 변하는 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작대원은 엉뚱한 짓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과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에 무슨 근거가 있는 편이 유리하다.

영복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 그 형의 일가는 남한 대전에서 크게 목재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사변 전, 영복은 결혼한 지 불과 반년 남짓한 아내와 더불어 그 형의 집에 얹혀 있다가, 혼자 몸으로 북한까지 밀려 왔었는데, 이제 평양에다가 또 다른 아내와 1남 1녀의 자녀까지 남겨놓고 남한으로 밀파되어 가는 길이다. 여기에도 또한 영복 자신의 의사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것이다. 의사에 없으면서 책임은 걸대적이다. 만약 남한에 가서 책임을 완수 못하면 반동이라는 명목하에 처단을 받게 마련이다. 그 처단이란 평양에 남은 처자들이 받을 것이었다. 실혹 불가항력인 경우 경찰에 체포되는 것까지 인민에 대한 반동이라 했다. 기막힌 노릇이다.

거기다가 무대는 서울이었다. 특히 서울 거리에서는 형사들이 언제나 널려 있다고 하면서, 그네들을 신속히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멋장이 신사를 보면 일단 형사로 알라! 이것이 누누이 강조된 주의 사항이다. 이남의 형사들은 걸보기에 짝 짝 뻗 신사들이라는 것이다. 최신식 고급 양복에 빅타이를 단정히 매고, 여름이면 과나마, 겨울이면 중절모를 꺾듯이 쓰고 다니는 것이 형사라 했다. 일반 대중과 노동자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남한의 실정이지만, 형

사들만은 기름진 얼굴에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니까, 말쑥한 신사를 보면 대개 형사로 보아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영복은 지난 몇 해 동안에 남한의 실정이 그렇게 변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기의 사명은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노릇이다. 팔대로 그렇게 많은 형사들을 어떻게 끝내 피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구와 불안이 가슴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나 당의 명령은 절대였다.

영복이 교육을 마치고 기림리(箕林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것은 바로 어제 아침이었다. 하룻밤 자면 남한으로 떠난다니까 아내는 단박 서글픈 표정을 하며 이를 악물었다. 한 말이 너무 많아 차라리 함구(緘口)하는 것이었다.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죄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말을 잃은 것처럼 서로 단전만 보고들 있다가, 고생이 되더라도 넉넉히 3년만 아이들 잘 기르며 몸조심하라고 타이르는 영복에게 옆드리며 흐느끼던 아내의 모습이 가슴아왔다.

“고생은 타고난 팔자 아니외까? 아주 못 오시는 건 아니지요?”

그 순간, 영복은 7년 전 여름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남한, 대전집에서 의용군으로 떠날 적에도 품에 안겨 울부짖던 여인이 있었다. 그 때는 그 여인이 아내였다. 마구 푸념을 했다.

“남들은 다 피하는데 왜 당신만이 끌려갈 게 뭐예요? 당신이 언젠적부터 공산당이라고 앞장을 서는 거예요?”

영복은 항변하는 아내의 음성이 너무나 커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주었다.

“넉넉잡구 석 달이면 끝난데, 염려 말구 기다려 줘요!”

세월은 흘렀다. 분명 7년……

대전의 아내는 여학교 출신의 지식녀로서 눈이 맑고 해사한 얼굴, 신이 가늘었다. 남한의 도시는 거의가 잿더미로 화했는데 그 아내는 죽었을까 살아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별한 평양의 아내는 국민학교조차 제대로 못 마친 두메 여자다. 코가 낮고 입술이 두터워 좀 감때 사나운 얼굴이다.

그래 몸이 건강한 탓인지 아이는 잘 배어서 연년생으로 두살짜리 아들 녀석에다 며칠 전에 백일이 지났다는 딸년이 있다. 남기고 떠났다.

땅에서 일단 발을 떼어 바다 위에 몸을 두니까, 영복의 머리 속은 이런 생각들로 갑자기 어지러워졌다. 몇 해 동안 회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약화한다 하여 질색하는 사회에서 살았다. 망망대해와 끝없는 공간이 어둠에 용해되어 흐느끼는 이 마당에서 잃었던 가지 가지의 기억이 하나 둘 소생해 왔다.

배에 오른 후 2시간의 침묵은 대전에서 삭주까지 2천리를 밤낮으로 둔주(遁走)하던 그 해의 정경과(그 후의 5년은 뿔아버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그들의 말마따나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할 인민예의 의무를 다시금 명심하는 충성의 자세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최라는 사나이가 나타나 불쑥 대전엘 가보았느냐고 묻는 때에는 적잖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살해버리니까 최는 재차 묻는 것이었다.

“동문 대전엘 가보았느냐 말이오.”

영복의 어조는 자연 또 통명스러웠다.

“대전……. 대전은 내가 살던 곳이오.”

“아하, 동무가 살던 곳이라.”

최가 반드시 다음 말이 있을 텐데 주저해버

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공이 입을 열었다.

“최동무는 대전으로 잡배까?”

최는 사공에게 단박 핀잔을 주고 만다.

“사공동무는 남의 일을 묻지 마시오!”

그러면서 최는 영복에게 또 묻는다.

“그럼 동무는 살던 고향 먼저 찾아보지 않았소?”

영복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정말 기분 나쁜 작자다.

그런 유도적인 발언으로 당애의 충성심을 떠보는 것인가.

영복은 대답했다.

“내 공작지는 서울이오.”

“그런 기밀에 속하는 말은 묻지 않았소! 혹시 대전엘 먼저 들리느냐 물었을 뿐이오.”

최의 차고 거만한 말투를 듣자 영복은 뺨이 발락 났다.

“동무도 남의 일을 물을 거 없지 않소?”

이 때 사공이 영복에게 커다란 음성으로 말을 던졌다.

“박동무, 서울 가문 내 부탁 하나 들어 주시구래!”

영복은 담배를 한 개 입에 물었다.

최는 입에 물었던 공초를 툭 씹겨 바다 위에 버렸다.

사공은 그들 앞으로 다가오더니 사려놓은 로프를 베게 삼아 벌렁 누우며 별도 없는 밤이군! 하고 혼자 뇌까렸다.

바다 바람은 점점 차가웠다. 파도 소리가 훨씬 요란해졌다. 깊고 진한 어둠은 변함 없었다. 엔진 소리는 열이 오른 것처럼 차츰 고조되어 갔다.

육지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긴장이

풀려 갔다.

흙 위를 떠나고 보니 흙 위에서 악다구니를 치던 몇 시간 전까지의 생활들이 마치 먼 옛날의 전설처럼 가물거려 왔다.

그들 세 사나이는 제각기 자기의 현실적인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듯 명칭했다. 지나온 길도 가는 앞길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다가, 일시 그들의 화제를 끌며 삼켜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그 상태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들의 세계인 듯 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다.

“홍, 이 세상에 사람이랴군 우리 셋만 살아 있는 것 같수다래!”

영복이 그 말을 받았다.

“기관사가 또 있지 않소!”

최가 핀잔처럼 영복에게 말했다.

“기관사는 지금 우릴 위해 있는 게 아니오?”

영복이 또 대거리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운명은 기관사가 맡아 가지고 있는 거요!”

“말긴 누가 맡아? 언제 말렸단 말이오? 기관사는 우리 지시대로 이 배를 움직일 의무가 있을 뿐이오, 동무.”

최의 말에

“글쎄요, 난 지금 이 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영복은 의식적으로 탄침을 부렸다.

“동무들! 우리 쇠주나 한 잔씩 합시다래, 몸두 좀 넉힐겸.”

사공은 엉뚱한 제안을 했다.

“그것 참 좋은 말이외다.”

최가 신뜻 찬성했다.

“안주는 고추장하구 망둥이 편이외다. 그까  
짓 거, 생것대루 먹읍시대래!”

사공은 어둠 속 흔들리는 배에서도 술을 한  
방울도 흘리는 법 없이 알미늬 양제기예다 따  
라서 두 사나이에게 전했다.

술 기운이 얼근히 돌자 사공은 새삼스런 어  
조로 누구에게나 지목하지 않고 말했다.

“동무들한테 이런 말 해두 괜티 았을디 모  
르지만……, 우리 들쭉 아들놈은 이남 국방군  
의 장교외다. 대위외다. 전엔 국방부에 있었다  
는데, 박동무 서울 가문 좀 찾아와 주구래!”

영복도 동의했다.

“그러나 영감에게 소식 전할 길이 있을라  
구요.”

사공은 이 말에 쓸쓸히 대답했다.

“그저 잘 있나 찾아와 주구래, 멀리시 쳐다  
만 보면 되디요.”

윤 이순의 부탁과 같은 것이라고 영복은 미  
소를 지었다.

이 때 최는 별안간 영복의 어깨를 탁 쳤다.  
“박동문 잘 됐수다. 사공동무의 아들을 먼  
저 포섭하면 공작하기가 쉽겠소.”

사공이 펄쩍 뛰었다.

“거 힘들 거외다. 생각두 말우! 그 놈은  
털매(철저)하니까 되레 박동무의 꼬리가 잡  
힐 거요. 애당초 생각두 말우!”

“그런 반동일수록 포섭만 하면 안심하구 공  
작할 수 있지..”

최는 단정했다.

이번에는 영복이가 언성을 높였다.

“그런 애긴 그만들시다. 여기선.”

“내 배따라기나 한 번 불러 볼까? 동무  
들!”

사공은 최를 흘겨보고는 영복이의 무릎을  
툭 치고 팔꿈질을 쫓겨 했다.

“그것 좋습니다. 그름 황해바다 한가운데서  
공작원들이 배따라기를 들으며 술을 마신다!  
오랜만에 참 멋있는 애깁니다. 허허히.”

영복도 거북해진 김에 너털웃음을 웃었다.

“좋아, 좋아! 시러베 아들놈들! 밤낮 투쟁  
이니 인민이니 화군 부러만 먹올라구 드니 이  
놈의 세상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어떤 놈들  
은 호의호식 앉아서 방망 명령이나 하구. 우  
리는 설 세 없이 사지로 몰아넣구.

요행히 죽을 고비를 넘겨 목숨이 부지되면  
제법 엄숙하게 뻔뻔질 배끼 칠한 훈장이나  
주구, 그 놈의 훈장! 난 세 개나 있는데, 소  
주 한 병 하구 바꿔주는 놈도 없거든 태백산  
일대의 빨치산을 영웅적으로 지휘했다구 국기  
훈장까지 받았는데, 그런 건 전당두 안 잡는  
단 말야, 어 사공동무, 자 배따라기나 한 번  
들어 봅시다 그려.”

최는 본심인지 아닌지 이렇게 늘어놓았다.  
그 바람에 좌중은 단박 피괴해졌다. 아무도  
최에게 맞장구커녕 솔깃한 기색조차 나타낼  
수가 없었다. 배따라기가 나올리 없었다.

늙은 사공은 잠자코 자작 술을 따라 마시  
고, 강퍽을 뒤적거리며 망둥이 한놈을 꺼내 고  
추장을 꼭 찍어서는 입 속에 깊숙이 넣고 질  
경질경 씹기 시작했다.

영복은 기가 죽었다. 그러나 최의 그 칸 마  
더로 기가 죽어서는 끝내 그에게 휘감길 것을  
생각하고 칠혹의 허공을 노렸다.

또 최의 말.

“이봐, 박동무! 서울에 가거든 말야. 국방  
부를 찾아가서 저 사공동무의 아들을 만나,  
당신 아버지의 배를 타구 북반부로 넘어가라  
고 전하란 말야, 잉? 장교라지? 그러구 박동  
무가 그 자리에 가 았어. 오래 고생했으니 이  
게 좀 쉬어야지, 잉? 모두 그렇게 한 번씩만

교대를 해 봤음, 남북이 통일될 거야, 단박 하하하, 예, 그렇지 않소? 사공동무!”

최는 어느 틈에 어깨를 얼싸안고 있었다. 술기 돌았는 듯싶었다. 영복은 미간을 찌푸리고는 그의 팔을 어깨에다 풀어 떼며 매서운 음성으로 소리쳤다.

“최동무! 아무리 술을 마셨더라도 말조심을 해요! 반동적인 언사는 삼가시오!”

그러자 어둠을 가르는 웃는 소리가 요란히 났다. 하하하, 하하하, 다시 하하하 하하하 허…… 최는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 동안 웃어 젖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영복의 어깨를 탁 쳤다.

“어보시오, 박동무! 다시 말하거니와 난 국기훈장을 받았어, 1951년도 태백산 일대는 내가 쥐고 흔들었어, 그래서 영명하신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내 가슴에다 제 1급 국기훈장을 달아 줬단 말야. 그런데 날더러 반동이라구? 하하하, 그래 그깟 양폐지 같은 김일성이가 뭐란 말야. 내가 왜 김일성도당의사에 충실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단 말야. 난 나야, 내 생각과 당의 생각이 같을 순 없어, 응? 그렇지 않야? 내 목숨이 왜 그네들에게 매였느냐 말야. 왜 좋으나 싫으나 북종해야 하느냐 말야, 두 번, 세 번 사선을 넘었는데, 또 공작대로 밀파하는 건 뭐냐 말야. 뭐 날더러 반동이라구? 그래 난 반동이다. 사실 그래, 내 본적은 강원도 원주군 ○○면 ××리 189번지구 이름은 최장식, 번호는 1934호, 공작지는 남한의 대전 일대, 대전에는 내 매부가 경찰서장으로 있거든 자, 이만 하면 분명히 내 성분을 가르쳐 줬는데, 어때 동무, 날 처단할 때야? 하하하 어이 취한다. 취하는 걸…….”

이쯤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사람이면 철저한 진짜인 것이 분명하다. 영복은 사공을 흘깃보았다. 아금이 덜덜 떨렸다. 바다 바람이 쌀랑해서만은 아니었다. 사공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뱃전을 대롱(담뱃대)으로 딱딱 두드리며 카악! 하고 진가래를 바다 위에 뱉었다. 그리고는 한 마디 했다.

“취했군 취했어! 동문 술이 약하외다래, 웬 젊은이가 최주 몇 잔에 취다니…….”

물결이 뱃전을 꽤 세차게 와 때렸다. 배가 기우뚱하고 흔들렸다. 멈칫했다가 쭈욱 나가는 듯했다.

“사공동무! 나 언제 취하도록 술 주었소? 그렇지만 취하진 취했우다. 취하지 않구서야 그런 말 할 수 있을라구 잉, 박동무도 술 마시라우, 술을 마셔야 다 용기가 나는 거야, 공작할래문 용기가 있어야지 잉, 맘 놓구 취해 봅시다. 여기는 북반부도 아니구 남반부도 아냐, 황해바다 위야, 우리 3인 천하야, 지배자두 없구 공작 대상두 없는 곳이야, 조금 후엔 얘긴 달라져 잉, 박동무 날더러 반동이랬지? 박동무나 남반부에 가서 공작 잘 하라우. 사공동무의 아들이 이남 국방부 장교잖아. 찾아가 보라우, 반가와할 테니 사공동무의 안부두 전해 주구. 우리들 실어다 주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구 잉, 하하하.”

취한 채하며 영복을 자꾸 얼싸안는 데에는 질색이었다.

“동무 취한 채하지 마오. 우리 다른 애길 합시다!”

영복은 불쾌한 언사로 타박을 주며 어깨에 잠긴 최의 팔을 또 떨어 버렸다.

“하하하, 취한 채하지 말라구? 하하, 박동무의 투쟁적인 신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 한도, 최소 한도 말야, 가면은 벗으라 우. 남한에 가면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를 동무가 괜시리 큰소리 작작 하구. 여보, 사공동무! 그렇잖소? 이런 무골충(無骨虫)이야 말루 정말 어떤 반동을 할지 모르는거요. 박동무! 불평이 있는 것은 고민이 있는 까닭야. 무조건 순응만 하는 자는 그만큼 반동할 소질이 있는 거지. 자 그럴 사공동무의 배따라기나 들어 봅시다 임."

영복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무골충이란 말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무조건 순응하는 자는 의지가 빈약한 까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영복은 찬찬한 말씨로 최에게 말했다.

"최동무는 남을 모욕하지 마시오! 최동무가 얼마나 영웅적인 투쟁을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신념이란 죽음 앞에 마주 봐야 알겠읍니다."

"죽음 앞에서두 반발하는 게 신념이지!"

"어, 어떠한 죽음이나가 문제 아니요? 게 죽음은 아니어야죠?"

걱정을 억압하면 은근한 태도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복은 말을 자주 더듬었다. 이번에는 사공이 말했다.

"동무들은 왜 흥분하오! 공작내루 밀파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솔해서야 되겠소? 지금 니론을 가지구 다툰 때냐 말이우. 최동무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수다!"

이 말에 최는 단박 격분해서 소리쳤다.

"사공동문 참견 마오!" 사공동무야말로 반동이 아니요? 아들이 국방군의 장교로 있더니 반동이 아니구 찢니까?"

늙은 사공도 벌떡 일어났다.

"땃이, 어드래? 이 쌍 잔나 새끼! 날더러

반동이라구? 이 새끼 술 처먹여 주니까 누구한테 개수작이야!"

사공은 아들 애기를 자주 꺼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절기가 대단했다. 최의 딱살을 잡았다.

비틀거리며 딱살을 잡힌 최는 사공의 가슴에다 주먹질을 했다. 두 사람은 함부로 욕을 퍼부으며 드잡이를 시작했다. 영복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그들을 뜯어 말리려고 했으나 그들의 드잡이는 더욱 열을 가해 갔다.

배가 다소 흔들렸다. 쉼진 소리는 여진히 경쾌했다.

파도는 심심치 않게 소리 내며 뱃전을 쳤다. 바람에는 습기가 있었다. 공간은 사뭇 먹칠이었다. 하늘에는 그렇게 별이 하나도 안 보일 수가 없었다. 구름이 두껍게 덮인 모양이다. 바다 한가운데였다.

시작은 험식은 싸움이었으나 말이 자주 읊허가며 점점 사납게 벌어져 갔다. 최는 술이 깨었는지 제법 몸을 가누며 늙은 사공에게 육박했다.

사공은 몇 번인가 대갈받이로 최에게 결정타를 가하려 했으나 번번이 빗나갔다.

"이 늙은새끼! 내 아들 애긴 왜 자주 꺼내는 거디? 국방군임 군방군이디 어쨌단 말야! 이 개 같은 늙새끼!"

영복은 중간에서 말리다가 몇 번인가 얼굴에 주먹 세례를 받았다. 입 언저리가 축축한 것을 보면 영뚱하게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는 그래도 연상 '반동' 소리만 연발하며 조금도 수그러 지지를 않았다.

이 때 밑에서 기관사가 뛰어 올라왔다. 어둠 속일망정 버티고 섰는 체구로 보아 젊은 장정임이 분명했다.

기관사는 잠시 허리를 짚은 채로 싸움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늙은 사공이 최에게 몇 번 쿼어박히는 것을 보더니, 두말 않고 앞으로 나서며 세찰 주먹으로 최의 면상을 갈겼다. 두 번 세 번, 연거푸 갈기는 바람에, 최는 뱃전에 버켜서 있는 영복에게로 비틀거리며 넘어왔다.

영복은 넘어오는 최를 본능적으로 떠다밀었다. 힘껏 떠다미는 바람에 배가 약간 기울었다. 배가 기울는 편으로 최의 몸도 기울었다. 그 순간 최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편으로 넘어갔다. 침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최는 허리가 꺾인 순간 바다로 떨어졌던 것이다.

배는 그대로 진행 중에 있었다. 어둠은 세계(觀界)를 방해했다. 파도는 또 뱃전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멍청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살려야디!”

사공이 입을 열었다.

“살리운 아저씨가 죽습네다!”

기관사가 응대했다.

영복은 아래웃니가 마주쳐 따다닥 소리를 내고 있었다.

“뱃머리를 들립시다. 거 건져야지!”

영복은 말을 또 더듬었다.

아무도 대꾸해 주지 않았다. 배는 벌써 현장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었다.

영복은 뱃전에다 허리를 척 걸쳤다.

(살인)

뇌까린 듯했다. 분명 자기가 떠다민 힘으로 최는 넘어간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 결코 그를 죽이려는 의사는 아니었는데 죽이고 말았다.

영복은 몸이 걸잡을 새 없이 덜덜덜 떨렸

다. 눈을 크게 벌리고 배가 지나온 방향을 돌아보았으나 어둠 뿐이었다.

“사공동무! 배, 배를 도, 들립시다.”

그의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바람이 앓아갔다. 사악하고 물갈라지는 소리, 툭툭거리는 엔진 소리.

배의 진행은 한결같았다.

“아저씨, 술이나 한 잔 주시오! 늙은\*일티는 놈은 죽어 싸디!”

기관사의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남은 세 사람은 다시 새로운 소주병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젊은 동무! 부디 몸 조심하라우요! 그리고 내 아들놈 꼭 좀 찾아봐주! 잘 있나...”

엔진을 끄고 노를 저어 물에다 배를 갖다 대어준 늙은 사공은 마약 짐을 들고 뛰어내리는 영복의 어깨를 탁 치며 당부하는 것이었다.

날은 아직도 칙흙이었다. 주위는 파도소리도 없이 괴괴했다. 눈 앞에는 시커먼 산이었다. 남남동으로 15리 가면 김포읍이라 했다.

실어다 준 배가 촌시도 지체하지 않고 물을 뒤로하는 것을 보다 영복은 몸이 작 깨부러지는 것처럼 허전했다. 사람은 좋건 싫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바다를 등지고 어두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가슴이 설레어 왔다.

(남한 땅.....)

영복은 자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집히는 조약돌을 만지며 “남한 땅”하고 다시 한번 뇌까렸다. 땅이 다 틀 리 없었다. 어두운 하늘에 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가 남한 땅이라고 생각하니 일각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면서도 그 자리에 엎드려 한바탕 통곡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유는 오직, '남한 땅'이라는 것 뿐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무엇이 그리다고 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싶는데, 그저 그리운 마음이 가슴에 부딪혔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공작을 하러 온 것이라는 절박감은 추호도 없었다.

잠시 후 보파리를 들고 언덕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그저 안온한 심정에서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지나온 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등신처럼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어둠 속에 떠오르는 최의 추정하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죽음의 동기가 그토록 간단하다는 것을 전쟁터에서도 보지를 못했다. 떠돌지만 앉았더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불현듯 달음박질해서 바위 언덕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는 법 없이 허겁지겁 달리고 있었다. 오직 남남동이라는 방향만이 머리 속에 있을 뿐이었다.

영복은 오후까지 이름 모를 산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서야 잠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 안도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버스에 타고 보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순간 영복은 가슴이 썰렁했다. '신사를 보면 일단 형사로 알라!' 짹짹 신사들, 중절모를 단정하게 눌러 쓰고, 벡타이를 똑바로 매고 색채도 화사한 말쑥한 옷차림의 신사들이 왜 이리 많으냐 말이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는 신사들, 형사들? 벌써 냄새

를 맡고 따라선 것인가. 옆에 앉은 빨간 벡타이도 눈매가 이상했다. 맞은 편에 앉은 검은색 안경의 사나이도 자꾸 이쪽만 바라보고 있다. 문 앞에 서 있는 곤색 양복도 이따금 뒤를 돌아보곤 한다. 과연 모두가 쪽쪽 뻗 신사 차림이다. 이걸 도대체 몇 사람씩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영복은 가슴을 펴며 태연한 자세를 꾸며 보았다. 고개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오히려 부자연한 것 같아 이내 옆으로 돌아앉으며 차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옆의 사나이가 물었기 때문이다. 옆의 사나이....., 빨간 벡타이

영복은 가슴이 두뎡뎡이질렸다. 필적 돌아앉으며,

"서울 갑니다."

했다. 상대편에게 들렸는지 물었다. 너무 크게 들렸는지도 모른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가, 평양 사투리가 섞이지 않았을까?

빨간 벡타이는 그 이상 더 묻지 않았다.

그것이 더 불안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으면 응당 다음 말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영복은 잔등에 축축한 감촉을 느꼈다.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아 바닥에다 꼭 눌렀다. 그래도 빨간 벡타이는 다음 말을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고등술책이 아닌가.

꼬치꼬치 캐어묻는 것은 소련식인지도 모른다.

영복은 눈을 감았다. 떨리는 가슴을 자제해 보려고 이를 악물었다. 이마에 콧잔등에, 땀이 솟는 것 같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본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색안경……, 빙긋이 웃고 있는 것 같다. 이걸 완전히 조롱이다. 꼬라지나 보자고 유유히 앉아 있는 것인가? 눈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입 가에는 분명 가벼운 웃음이 깃들어 있다. 우스워 웃는 게 아니다. 정녕 조롱하는 웃음이다. 문턱을 본다.

문턱에 서 있는 곤색 양복은 어느 사이에 돌아서 있다. 이 작자는 웃지도 않고 결눈질도 않으며 아주 시치미를 딱 떴고 있다. 이걸 좀 노련한 수작이다.

영복은 마음을 굳게 다잡으며 조심성 있게 차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누구 하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차 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차든 버스든 차를 탄 사람들은 생부지 처음 만난 사이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오고 가는 법이다. 이렇게 조용하다니 까닭이 있을 것이다. 모두들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형사들이 셋씩이나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토록 말 한 마디 주고 받지 않는 차 안의 분위기로 보아 남한의 경찰은 공작대원을 하나 잡는 일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얼마나 세심한 수사망을 펴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영복은 입맛을 다셨다. 이렇게 심겁게 잡힐 수는 없었다. 잡히는 것도 인민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라고 했다.

반동에 대한 보복을 평양에 남기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받는 것이다. 호락호락 잡혀서는 아니 되었다.

윤 이순의 말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다. 공작, 공작 포기, 자수, 체포, 그 중에 동무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고,

그 뿐이 아니다. 늘 감시하는 눈이 따라 다

닌다고 했다. 이 차 안에도 있을는지 모른다. 노련한 공작대원이 승객을 가장하고 앉아 새로 밀파되어 오는 공작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복은 배에 찬 권총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 보았다. 시뮬중에 기재된 주소를 외워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 ××번지 신분증은 회사원이다. 무역회사 남미상사의 사원으로 되어 있다. 국민병 수첩도 있다.

병종(兵種)은 을종(乙種), 무조건 신체 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남한 경찰의 특색이라 했다. 지나치게 근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형사들에게 미행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을 성싶다. 그렇다면 다음 정류장에서 일단 내려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미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좋은 방도가 아닐까? 버스는 어느 면소재지 정도의 부락으로 돌입하고 있다. 순경이 보조를 서 있는 주주소 앞을 지나 조금 구르다가 정거를 했다.

영복은 벌떡 일어났다. 민첩한 동작으로 내려버리려고 문 앞으로 나가자니까, 아찔싸 문 앞에서 있던 곤색 양복이 앞장을 서며 먼저 선뜻 내리는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곤색 양복이 내리자, 이번에는 가죽 잠바를 입은 사나이가 잼싸게 차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영복은 무의식 중에 주춤하고 망설였다. 여차장은 벌써 호각을 불었다. 차는 움직였다. 가죽 잠바는 영복을 가볍게 한 번 쳐다보고는 서슴지 않고 바로 여지껏 영복이가 앉았던 좌석에 가서 털썩 앉아버린다.

영복은 기가 막혔다. 이걸 정말 틀림이 없다. 곤색 양복과 가죽 잠바는 교대를 한 것이

다. 지서 앞에서 내린 곤색 양복은 영복을 가족 잡바에게 인계한 것이 틀림없다. 그 증거로는 아직도 색안경과 빨간 넥타이는 꺾어지고 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과연 남한 경찰의 정보망은 경이적으로 발달되었다고 영복은 은근히 놀랐다. 달아날 염려가 없는 버스 안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자기를 체포하지 않을 뿐이다.

버스가 서울역 앞 종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날이 가물가물 어두워 올 무렵이었다. 드디어 영복은 버스가 엔진을 끄자마자 필시 가족 잡바가 수갑을 들고 나설 줄로 알았다.

그러나 가족 잡바는 차가 서니까 잠자코 영복의 앞을 가로막았다. 앞서서 내리려는 것처럼,

빨간 넥타이는 바로 영복의 뒤로 바짝 대었다.

색안경은 영복의 옆으로 붙어섰다.

영복은 기가 딱 질렸다. 앞 뒤 옆으로 묵묵히 포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 오직 당장 수갑을 치르지는 않는 것은 미국식 경찰의 규칙이려니 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상 중인 환시리에서는 포박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단정했다.

영복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완전히 절망했다.

벌써 자기의 의사는 행동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에는 순응도 거역도 어떤 효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여기까지의 생활체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다만 목적과 생명의 비중을 저울질해서 행동하는 것이 생리화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는 남한에 온 목적이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무거운 비중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었다. 마음

이 일조일석에 변한다는 것은 믿기 싫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표면화되지 못한 잠재의식의 문제였다. 잠재의식이란 언제나 기회가 있으면 길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여러 번 변신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의사가 아니었다 해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다. 불안은 언제나 따라 다녔다. 영복은 흡사 몽유병자와도 같이 가족 잡바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남태문을 향해 가고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를 못했다. 뒤따르는 발소리만을 귀에 담으며, 이대로 곧장 경찰서로 들어가게 마련이라고 체념했다. 체념하니 오히려 마음은 누그러졌다.

그런데 거리는 너무나 혼잡했다.

영복은 문득 가족 잡바를 잃어버렸다. 금방 바로 앞에 가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지 온데 간데 없이 보이지를 않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도 없었다. 으레히 뒤따라 오려니 했던 빨간 넥타이도 색안경도 보이지 않았다. 이진 사람을 사뭇 미치게 하는 수작들이 아닌가. 그러자 영복은 불현듯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펴 자세를 차렸다. 눈 앞에 보이는 골목으로 도망하러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길 가운데에 주춤하고 섰 채 움직이지를 못했다. 남한 땅에 와서 또 어디로 떠난 말인가.

그는 마침 앞으로 다가오는 낮 모를 신사를 노려봤다.

(어디 쫓아가 있어?)

영복은 본능적으로 그의 팔소매를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동무, 아 저 선생님, 저……, 선생님 말입니다……."

낮 모를 신사는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형사였다.

---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

1982년 7월 10일 인 쇄

1982년 7월 15일 발 행

발 행 : 공 군 본 부

편 집 : 정 훈 감 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연락처> 전화 : 827-2691, 호-5241

## 軍人의 길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기필코 共產敵을 쳐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嚴肅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